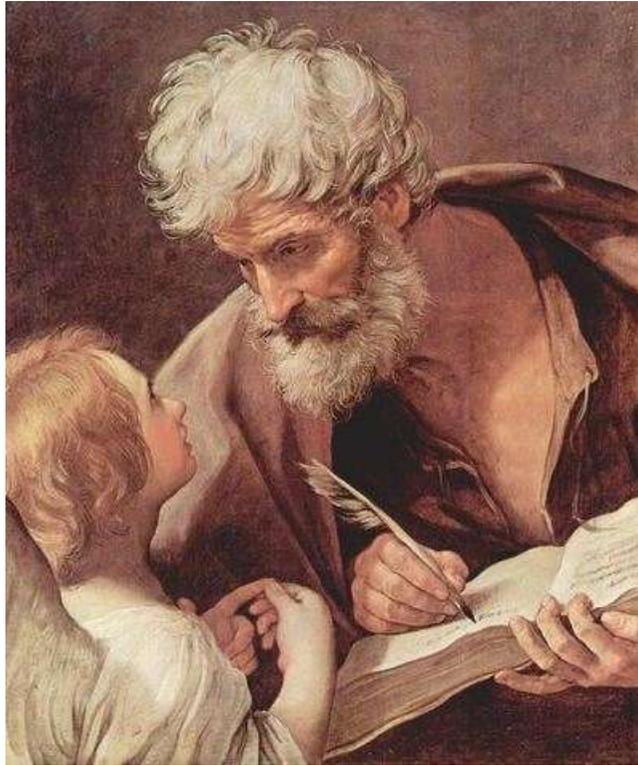


마태복음 이야기

새천년시대를 위한 복음

조동호 지음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A Story of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GOSPEL FOR NEW MILLENNIAL AGE
DONG HO CHO

Christian Church Studies, 2012
20-10 Beonyeong 8-gil Kyeryongsi Choongnam
Korea, 321-931
Tel(042)841-9697

머리말: 새천년시대를 위한 마태복음의 구조주의 모형론(Structural Typology, 마 23:13-36)

신구약전서의 이해에서 가장 핵심적인 테마가 가나안 땅이다. 땅은 오랜 종살이 또는 오랜 떠돌이(유배)를 끝내고 얻는 구원과 안식의 상징이다.

구약(옛 언약)성경에서 땅은 문자적이고 세속적인 지상의 가나안 땅이고, 구원개념은 이 땅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이 땅의 지속적인 유지여부는 언약의 내용인 토라(Torah)의 준수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아무리 대단한 유대인일지라도 그들이 죄와 허물, 특히 우상숭배에서 자유롭지 못한 피조물인 이상, 그들의 땅은 그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땅을 소유했던 때보다 빼앗겼던 때의 기간이 3배나 더 길었다.

신약(새 언약)성경에서 땅은 영적이고 영원한 하늘 가나안 땅이고, 구원개념은 영적이고 영원한 하늘의 땅(기업)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후사)로 약속받고, 인감(인침)과 선수금(보증)으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지상의 땅에서 그 축복을 미리 앞당겨 맛보고 선취하는 것이다. 이 하늘 가나안 땅의 유지여부는 신약의 준수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신약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은, 마치 모세오경(토라)이 이스라엘이 지상 가나안 땅에서 언제 어떻게 왜 누구에 의해서 형성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듯이, 새천년시대으로써의 교회천국이 언제 어떻게 왜 누구에 의해서 형성되었는가를 모세오경의 모형을 좇아서 설명하고 있다. 이들 모형들로는 이집트, 모세, 열 가지 재앙표적들, 출애굽, 홍해도하, 홍해해변, 광야사막, 시내산

토라(옛 언약), 구름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샘물, 성막, 이방족속들과의 갈등, 요단강도하, 가나안 땅과 그 땅의 정복 등이다. 마태복음에서 이들 모형들의 실체로써 드러난 것들은 교회천국, 예수님, 열 개의 기적들, 침례, 산상수훈과 설교들(새 언약), 성령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바다기적, 새 질서, 새 윤리, 바리새인들 및 서기관들과의 갈등, 예루살렘 입성, 정치종교지도자들과의 갈등,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등이다.

마태복음은 기독교의 모세오경으로 편집되었다. 모세오경이 이스라엘의 새천년시대인 가나안시대 직전까지의 역사이듯이, 마태복음은 새천년시대인 교회시대 직전까지의 역사이다. 예수님의 공적생애를 광야사막시대로, 교회시대를 가나안정착시대로 설정한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일생을 모세의 일생에서 또 예수님의 공적생애를 출애굽사건에서 모형을 갖는다. 이스라엘과 유대교가 출애굽사건에 기초하였듯이, 교회천국과 기독교가 예수님의 공적생애에 기초하고 있음도 보여준다.

마태복음은 기독교와 유대교가 상반된 대립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마태복음은 신념체계이자 하나님의 뜻의 실체인 기독교 복음을 독자들인 초기 유대인기독교인들에게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또 그들의 패러다임(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유대의 정치종교지도자들과 그들의 613개의 계명들과 장로들의 전통(Gezeirah: 울타리 율법)을 건강한 상태인 기독교복음에 대립되는 병든 상태의 행동들로 설명한다. 어둠 속에서 빛이 밝게 빛나듯이 기독교복음의 건강한 상태가 유대교의 병든 상태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만든다. 마태복음은 기독교복음이 의미하는 것과 의미하지 않는 것을 함께 진술함으로써 기독교복음의 의미를 명확히 밝힌다.

마태복음은 새천년시대인 교회시대가 출범하기 직전까지의 과정을 이스라엘의 새천년시대인 가나안시대 직전까지를 설명한 모세오경의 모형을 좇아서 설명한다. 1장에서 새천년시대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첫 번째 희망(Ha-Tikvah)의 성취와 실패 그리고 두 번째 희망의 성취를 예고한다. 첫 번째 희망의 실패란 절

정기에 이른 다윗왕국의 붕괴 즉 인간왕국의 실패를 의미한다. 그리고 두 번째 희망의 성취예고는 교회천국의 개혁을 의미한다. 인간왕국이 필연적으로 갖는 유한성, 제한성, 일시성, 불완전성 때문에 그곳에서는 정의와 평화와 안식을 기대할 수 없다. 그것들은 언제나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며, 흥하고 망하기를 반복한다. 그래서 마태는 영원하고 완전하며 영적인 교회천국의 개혁을 예수님의 탄생소식을 통해서 예고하였다. 따라서 마태복음이 선포한 두 번째 희망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유배이후 예수님의 탄생까지 580여 년간 기대하고 꿈꿨던 다윗왕국의 재건이나 회복이 아니라, 국경과 민족을 초월한 영원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기독교역사관을 압축한 것으로써 새천년시대의 희망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온 인류를 위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준 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가나안 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희망이 모두 세속적이고 물질적이며 문자적인 것으로써 유대민족만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

마태복음은 오랜 인간의 고독과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새천년시대를 활짝 여셨다고 말한다. 그것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 속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그것은 인간왕국이 멸망한 이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교회천국의 개혁이었다. 그것은 노예와 떠돌이였던 히브리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생취한 가나안 땅을 그토록 소중히 여겼지만, 다 빼앗긴 후 또 다시 예전의 노예와 떠돌이의 신세로 돌아간 다음에, 그들뿐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활짝 여신 새천년시대의 출범이었다. 그 초석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들이 바라던 ‘올람 하바’(Olam Ha-Ba) 즉 장차올 이 땅의 문자적인 나라가 아니라 이미 도래한 영적인 교회천국이었다.

1장에서 ‘임마누엘’ 예수님은 벼랑 끝 위기에서 탈출하여 새천년시대를 향해 날아오를 날개임을 보여준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출 19:4)와 “임마누엘이여, 그가 퍼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사 8:8-10)에서 보듯이 히브리민족이 홍해를 건넌 것에 비교된다.

2장에서 동방박사들의 순례와 메시아별의 인도는 광야사막에서 구름과 불기둥 쉼기나(Shekinah)가 히브리민족을 인도한 것에 비교된다. 또 바로왕의 칼날을 피한 모세의 제1차대구원사건을 모형으로 이해하면서 헤롯의 칼날을 피한 예수님의 제2차대구원사건을 예측토록 하였다.

3장에서 세례요한은 모세의 형 아론에 비교될 수 있고,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홍해도하에서 모형을 갖는다(고전 10:1-2).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3:2, 4:17, 10:7)는 교회천국의 임박한 도래 즉 시작된 현재종말의 임박한 도래를 의미한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선포는 3년 6개월 정도 후, 즉 주후 30년 5월 28일(일요일) 오순절에 성취되었다.

유대인들은 새천년시대를 ‘올람 하바’(장차올 세상)라 부르며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믿는다. 그들이 원하는 제2모세 모쉬아크(Moshiach)가 아직 출현하지 않았고, 그가 와야만 제2가나안 땅의 시대가 개방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미’ 시작된 현재종말이란 것이 없고,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미래종말만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현재종말과 미래종말을 모두 믿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3:2, 4:17, 10:7)에서 임박한 천국이 바로 주께서 승천하신지 열흘 후에 시작된 현재종말시대 즉 교회천국이다.

4장에서 마귀의 시험은 유대인들이 요구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과 다윗왕국회복을 희망하는 역대기사관에서 모형을 갖는다.

5-7장에서 팔복산은 시내산에, 팔복은 십계명에, 산상수훈은 시내산 율법에, 주기도는 쉼모네 에스레이에서 모형을 갖는다. 613개의 계명들과 그것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든 율타리 율법들이 지상의 가나안 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산상수훈은 새천년시대에서 복을 받을 자들, 곧 천국을 소유할 자들에 대한

교훈이며, 유대인들이 버린 “율법의 더 중한 바 사랑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23:23)을 강조한 새 율리법 즉 신약법이다.

8-9장의 10개의 기적들은 모세의 10개의 재앙 표적들에서 모형을 갖는다. 예수님이 행하신 10개의 기적들은 믿음이 만든 것들로써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새천년시대를 여는 능력임을 드러낸다.

9장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마 9:17)는 말씀에서 보듯이 죽임의 일을 하는 유대교전통은 낡은 것이므로 새 천년시대에는 살림의 일을 하는 새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한다.

10장은 새천년시대를 열기 위한 강한 당과성을, 11장은 절박함을, 12장은 새 질서를, 중심장인 13장은 새천년시대의 특징과 성격의 8개의 천국비유로 설명한다.

14-17장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가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점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3:3) 그의 사명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이 시점부터 그동안 감췄던 메시아신분을 노출하시고 죽음을 예고하신다. 오병이어, 물 위를 걸으심, 칠병이어의 표적들은 그가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들로써 모세가 행한 만나와 홍해 도하와 같은 표적들에서 모형을 갖는다.

18-20장은 임박한 투쟁과 죽음을 앞두고 행한 8개의 설교들로써 새천년시대에서 실천해야할 새 율리들이다.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모세의 신명기 설교에서 모형을 갖는다. 모세는 가나안을 눈앞에 둔 옛 언약공동체에, 예수님은 교회시대를 눈앞에 둔 새 언약공동체에 설교하였다.

21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새천년시대 개방을 위한 거사(擧事)요, 히브리민족이 요단강을 건넌 것에서 모형을 갖는다. 이후 27장까지는 비폭력 무저항이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말씀투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데,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모형을 갖는다. 28장에서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것은 모세의 죽음과 몽소승천에서 모형을 갖는다. 히브리민족이 가나안

8 / 마태복음 이야기: 새천년시대를 위한 복음

정복을 끝내고 새천년시대를 활짝 열었듯이, 승천하시고 10일 후 오순절에 인류의 구원과 안식을 위한 교회천국시대가 활짝 열렸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마태복음 전체를 45개의 설교로 풀어 적어보았다. 본서가 마태복음을 조금치라도 깊이 이해하고 은혜롭게 설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

2012년 6월 5일

조 동 호

차례

머리말: 새천년시대를 위한 마태복음의 구조주의 모형론
(Structural Typology, 마 23:13-36) / 3

1. 새천년시대를 향한 탈출(마 1:1-17) / 17

새천년왕국운동	17
인간왕국의 실패	18
하늘왕국의 개벽	20

2. 새천년시대의 임마누엘(마 1:18-25) / 23

‘임마누엘’의 역사적 배경	23
‘임마누엘’ 예수님의 탄생	24
‘임마누엘’과 무소부재	26

3. 새천년시대를 향한 출발(마 2:1-23)/29

‘메시아의 별’의 출현	29
‘메시아의 별’을 따른 사막여행	30
‘메시아의 별’을 따른 바다여행	32

4. 새천년시대의 선구자(마 3:1-17) / 35

“이미”와 “아직”의 긴장 조절	35
새천년시대를 얻기 위한 SOS	36
새천년시대의 선구자	38

5. 새천년시대 입문시험(마 4:1-11) / 41

떠돌이 유대인(the Wandering Jew)	41
아하스 페르츠의 환멸	42

가롯 유다의 환멸	44
6. 새천년시대의 개방운동(마 4:12-25) / 47	
새천년왕국운동	47
새천년왕국, 천국(하나님의 나라), '올람 하바'	48
예수님의 천국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	50
7. 새천년시대로서의 천국과 복(마 5:1-3) / 53	
새천년시대로서의 천국	53
새천년시대의 상징 숫자 8	54
새천년시대에서 가난한 자들이 받을 복	56
8. 새천년시대에서의 팔복(마 5:3-12) / 59	
마태복음의 구조적 특징	59
유대교인들의 윤리의식과 문제점	60
새천년시대에서 누릴 8복	62
9. 새천년시대의 윤리기준 1(마 5:13-48) / 65	
새천년시대를 위한 산상수훈	65
새천년시대의 착한행실	66
새천년시대의 신약법(新約法)	68
10. 새천년시대의 윤리기준 2(마 6:1-18) / 71	
새천년시대의 구제법	71
유대교인들의 기도법	72
새천년시대의 모범기도	74
11. 새천년시대의 윤리기준 3(마 6:19-34) / 77	
새천년시대의 보물 쌓기	77
새천년시대의 성한 눈 갖기	78
새천년시대의 목숨보존하기	80

12. 새천년시대의 윤리기준 4(마 7:1-29) / 83	
새천년시대에 합당치 못한 자들	83
새천년시대에 합당한 자들	84
새천년시대에 입문할 자격	86
13. 새천년시대를 여는 믿음 1(마 8:1-34) / 89	
마태의 복음서 기록방식	89
믿음이 만든 기적들 1	90
예수님의 제자의 길	92
14. 새천년시대를 여는 믿음 2(마 9:1-8, 18-34) / 95	
믿음이 만든 기적들 2	95
믿음과 죄 사함	96
믿음의 권능	98
15. 새천년시대를 위한 새 패러다임(마 9:9-17) / 101	
패러다임의 전환	101
유대교의 금식 전통	102
유대교의 음식 전통	104
16. 새천년시대의 선포(마 9:35-10:33) / 107	
천국복음운동의 지속성	107
구약성경과 복음서의 차이	108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	110
17. 새천년시대의 당파성(마 10:34-42) / 113	
‘인자’의 의미	113
새천년시대의 검(劍)	114
두 갈래 길	116

18. 새천년시대를 여는 절박함(마 11:1-30) / 119

절박함의 긍정성	119
절박함의 부정성	120
절박함의 보상성(補償性)	122

19. 새천년시대에서의 새 질서(마 12:1-50) / 125

새 질서에서의 안식일 법	125
새 질서의 배척자와 수용자	126
새 질서의 성격	128

20. 새천년시대의 특징과 성격 1(마 13:1-43) / 131

새천년시대에 합당한 자들	131
새천년시대에 부당한 자들	132
새천년시대의 성장 능력	134

21. 새천년시대의 특징과 성격 2(마 13:44-46) / 137

구도자의 가치매입	137
무지로 인해 감춰졌던 가치	138
계시로 밝혀진 가치	140

22. 새천년시대의 특징과 성격 3(마 13:47-58) / 143

새천년시대이후의 운명	143
새천년시대는 새 것으로	144
새천년시대의 산통(産痛)	146

23. 새천년시대를 앞당기는 신분노출 1(마 14:1-36) / 149

새천년시대를 앞당기는 신분노출의 위험	149
새천년시대를 앞당긴 세례 요한의 순교	150
새천년시대의 메시아신분을 노출시킨 표적들 1	152

24. 새천년시대를 앞당기는 신분노출 2(마 15:1-28) / 155

새천년시대에서의 빵문제	155
새천년시대에서의 손 씻기 문제	156
새천년시대에서의 이방인문제 1	158
25. 새천년시대를 앞당기는 신분노출 3(마 15:29-16:28) / 161	
새천년시대에서의 이방인문제 2	161
새천년시대의 메시아신분을 노출시킨 표적들 2	162
예수님의 신분과 새 왕국 교회의 노출	164
26. 새천년시대를 앞당기는 신분노출 4(마 17:1-27) / 167	
메시아의 자격: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167
메시아의 자격: “하늘로부터 소리”	168
메시아의 자격: 하늘로부터 증인(證人)	170
27. 새천년시대에서의 실천윤리 1(마 18:1-35) / 173	
새천년시대: 바보들이 대접받는	173
새천년시대: 소외된 자들이 관심을 받는	174
새천년시대: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는	176
28. 새천년시대에서의 실천윤리 2(마 19:1-30) / 179	
새천년시대: 여성들이 보호받는	179
새천년시대: 어린이들이 보호받는	180
새천년시대: 가난한 자들이 복을 받는	182
29. 새천년시대에서의 실천윤리 3(마 20:1-16) / 185	
새천년시대: 노동자들이 보호받는	185
새천년시대: 차등원칙이 적용되는	186
새천년시대: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188
30. 새천년시대에서의 실천윤리 4(마 20:17-34) / 191	
새천년시대: 공동선이 추구되는	191

새천년시대: 눈뜬 자들의 1	192
새천년시대: 눈뜬 자들의 2	194
31. 새천년시대 개방을 위한 투쟁 1(마 21:1-17) / 197	
새천년시대 개방을 위한 거사(擧事)	197
새천년시대 개방을 위한 고난	198
새천년시대 개방을 위한 무기(武器)	200
32. 새천년시대 개방을 위한 투쟁 2(마 21:18-46) / 203	
새천년시대 개방을 위한 바른 지식	203
새천년시대 개방을 위한 바른 순종	205
새천년시대 개방을 위한 바른 일군	206
33. 새천년시대 개방을 위한 투쟁 3(마 22:1-14) / 209	
새천년시대를 거부한 실족	209
새천년시대를 거부한 물질 대가	210
새천년시대를 경홀히 여긴 영적 대가	212
34. 새천년시대 개방을 위한 투쟁 4(마 22:15-46) / 215	
유대인들의 인두세 올무	215
유대인들의 수훈법 올무	216
유대인들의 큰 계명 올무	218
35. 새천년시대 개방을 위한 투쟁 5(마 23:1-12) / 221	
새천년시대 개방을 가로막는 울타리 법	221
새천년시대 개방을 가로막는 랍비들	222
새천년시대 개방을 가로막는 외식	224
36. 새천년시대 개방을 위한 투쟁 6(마 23:13-39) / 227	
새천년시대를 가로막는 선교 왜곡	227
새천년시대를 가로막는 계명 왜곡	228

새천년시대를 가로막는 본질 왜곡	230
37. 새천년시대의 임박한 개방 1(마 24:1-28) / 233	
새천년시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233
새천년시대: 시작된 종말	234
새천년시대: 환난시기	236
38. 새천년시대의 임박한 개방 2(마 24:29-51) / 239	
새천년시대: 재림의 지연	239
새천년시대: 재림의 시기	240
새천년시대: 재림의 임박	242
39. 새천년시대의 임박한 개방 3(마 25:1-46) / 245	
새천년시대: 깨어서 준비함	245
새천년시대: 적은 일에 충성함	246
새천년시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봄	248
40. 새천년시대 개방을 위한 최후승리 1(마 26:1-25) / 251	
새천년시대: 거룩한 싸움	251
새천년시대: 외로움과의 싸움	252
새천년시대: 세속적 욕망과의 싸움	254
41. 새천년시대 개방을 위한 최후승리 2(마 26:26-30) / 257	
새천년시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257
새천년시대: 옛 언약의 피	258
새천년시대: 새 언약의 피	260
42. 새천년시대 개방을 위한 최후승리 3(마 26:31-75) / 263	
새천년시대: 공개적인 신앙고백	263
새천년시대: 닭이 울다	264
새천년시대: 세상 죄를 지고	266

43. 새천년시대 개방을 위한 최후승리 4(마 27:1-56) / 269	
새천년시대: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269
새천년시대: 어둠속에서 절규하시고	270
새천년시대: 율법의 요구를 마치시고	272
44. 새천년시대 개방을 위한 최후승리 5(마 27:57-28:15) / 275	
갯세마네 동산의 두 얼굴	275
골고다 십자가의 두 얼굴	276
동굴 무덤의 두 얼굴	278
45. 새천년시대 개방을 위한 최후승리 6(마 28:1-15) / 281	
예수님부활의 신앙	281
예수님부활의 직접증거	282
예수님부활의 간접증거	284
46. 새천년시대의 전망(마 28:16-20) / 287	
단한 세계와 열린 세계	287
부활하신 예수님의 대위임령	288
교회천국시대의 발전	290

1. 새천년시대를 향한 탈출(마 1:1-17)

새천년왕국운동

새천년시대를 향한 희망은 인간의 오랜 고독에서 비롯된다. 작년 한해만하더라도 지구와 지구인 다수가 심한 몸살을 앓았다. 지진, 해일, 홍수, 화산폭발과 같은 자연재해뿐 아니라, 분쟁, 시위, 경제위기와 같은 인재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의 고독과 아픔은 갈수록 극에 달하고 있다.

인간은 오랜 고독과 아픔에서 탈출하려는 시도들을 해왔다. 가장 잘 알려진 시도가 히브리인들의 출애굽사건이다. 국가를 이루지 못했던 떠돌이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인들의 억압으로부터 탈출에 성공할 뿐 아니라, 가나안 땅이란 대망을 품고 사막길을 40년간이나 행군한 끝에 그 땅을 쟁취한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다.

우리 민족의 극한 빈곤과 독재로부터의 탈출도 근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성공사례 가운데 속한다. 조선말기로부터 한 세기 동안 우리 민족은 격동의 시기를 보냈다. 일제강탈로부터 동족상잔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은 처참하게 빼앗기고 부서지고 망가졌고,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로 추락하였다. 그러나 반세기만에 괄목할만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일궈내었다. 오랜 고독과 가난과 압박의 서러움으로부터 탈출하는데 성공하였고 새천년 시대를 활짝 열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양극현상과 개인주의는 깊어지고, 협동정신과 공동체의식은 옹어지며, 소외계층의 신음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70-80년대 한국신학의 흐름은 민중신학이었고, 민주운동의 사상적 토대였다. 그 영향력이 커서 불교계조차 민중불교를 말할 정도였다. 민중이 봉기하여(메시아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

라를 세워야 한다며, 새천년왕국운동을 펼쳤던 신학이었다. 그 운동의 핵심은 한국교회가 민중의 한과 신음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며, 민중의 한과 갈망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인은 한의 사제로서 민중의 한을 풀어주고 상처를 싸매주며 위로하는 자라고 하였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오랜 고독과 아픔에서 탈출을 시도하였고, 그 중심에 항상 종교가 있었으며, 종교인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그렇다고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15세기 초 체코 보헤미아의 타보르파(the Taborite)가 이끈 천년왕국운동과 16세기 초 독일에서 토마스 뮌처가 농민의 난을 이끈 천년왕국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수행불교에 구세주와 새천년왕국사상을 집어넣으면 미륵불교가 된다. 미륵은 재림주 예수님과 같고, 도솔천은 낙원과 같으며, 미륵경에서 말하는 용화세계(龍華世界)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천국왕국과 같다. 미륵불교의 이런 가르침은 불교의 열반과 윤회사상에 모순되지만, 민중의 한을 위로하고 새천년시대의 도래를 희망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천년왕국사상과 함께 많은 이들에게 자극을 주었다. 조선에서는 19세기에 최제우(1824-1864)가 창도한 동학을 중심으로 전봉준과 농민들이 일으킨 동학혁명이 대표적이다. 같은 시기에 중국에서는 홍수전(1814-1864)과 농민들이 일으킨 태평천국의 난(1850-1864)이 대표적이다. 동학혁명이 미륵신앙에 기반을 두었다면, 태평천국은 기독교신앙에 기반을 둔 새천년왕국운동이었다. 이 운동들도 모두 실패로 끝났지만, 그렇다고 새천년시대를 꿈꾸는 인간의 희망마저 꺾인 것은 결코 아니다.

인간왕국의 실패

마태복음 1장은 새천년왕국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첫 번째 희망의 성취와 실패 그리고 두 번째 희망의 성취를 예고하고 있

다. 첫 번째 희망의 실패란 절정기에 이른 다윗왕국의 붕괴 즉 인간왕국의 실패를 의미한다. 그리고 두 번째 희망의 성취예고는 하늘왕국의 개벽을 의미한다. 인간왕국이 필연적으로 갖는 유한성, 제한성, 일시성, 불완전성 때문에 그곳에서는 참 정의와 평화와 안식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마태는 영원하고 완전하며 영적인 하늘왕국의 개벽을 예수님의 탄생소식을 통해서 예고하였다. 따라서 마태가 선포한 두 번째 희망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유배이후 예수님의 탄생까지 580여 년간 기대하고 꿈꿨던 다윗왕국의 재건이나 회복이 아니라, 국경과 민족을 초월한 영원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이다.

이 땅에서 추구하는 정의와 평화와 안식은 영원하지도 완전하지도 않다. 그것은 언제나 잠정적이고, 일시적이며, 흥하고 망하기를 반복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희망은 항상 영원하고 영적인 확고한 토대,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세속에의 지나친 집착은 인간에게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한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다면, 가난해도, 무식해도, 병들어도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겉보기에는 유대인 혈통의 계보인 듯이 보여도, 실상은 새천년시대의 하늘왕국의 도래를 희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몸을 바쳐서 쟁취했던 네 사람의 이방 여인들, 즉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가 나온다. 그리고 처녀의 몸이지만, 아기예수의 잉태를 믿음으로 수용했던 마리아가 나온다. 모두가 적극적으로 몸을 바쳐 새천년왕국을 수용한 믿음의 여인들이었다.

새천년왕국의 희망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온 인류를 위해서 성취된다는 것이 마태의 역사관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달랐다. 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가나안 땅의 희망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이며 문자적인 것으로서 유대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들의 첫 번째 희

땅과 두 번째 희망이 모두 문자적으로 가나안 땅과 유대민족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 편협한 민족주의사상 때문에 그들이 애써 일군 왕국이 멸망하고 말았다.

마태복음 1장 17절의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는 이스라엘 왕국의 출범과 발전기를 말한다. 이스라엘 왕국은 아브라함이 씨앗을 뿌리고 모세가 싹을 틔웠으며 다윗이 열매를 맺게 함으로써 절정에 이르렀다.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는 왕국의 쇠퇴기와 멸망을 말한다.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졌고, 북이스라엘왕국이 먼저 망한 후 136년 만에 남유다왕국도 멸망하였다. 여기까지가 인간왕국의 첫 번째 희망의 성취와 실패에 관한 것이다. 히브리인들은 출애굽사건을 통해서 오랜 고독과 아픔으로부터 영광스럽게 탈출하여 가나안 땅을 쟁취하였고, 영토를 넓혔으며, 국제무대에 서는 데까지 성공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읽지 못함으로써 그들의 성공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였다.

하늘왕국의 개벽

마태는 그 오랜 인간의 고독과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새천년왕국시대를 활짝 여셨다고 말한다. 그것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 속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그것은 인간왕국이 멸망한 이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왕국의 개벽이었다. 그것은 노예와 떠돌이였던 히브리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쟁취한 가나안 땅을 그토록 소중히 여겼지만, 다 빼앗긴 후 또 다시 예전의 노예와 떠돌이의 신세로 돌아간 다음에, 그들뿐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활짝 여신 새천년왕국의 출범이었다.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요, 기독교의 출범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세속국가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교회였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마지막이자 세 번째 희망인 새천년왕국 또는 신천신지를 선언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시대의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광야시대로 살도록 권하였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발붙이고 있는 현시대를 영원히 완전하고 완벽한 세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잠시 스쳐지나가는 나그네로 잠정적이고 유한한 세상을 살면서 보다 밝고 발전된 새천년왕국을 향해서 부단히 정진하여 걷데, 그 길이 비록 가시밭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광야사막 길일지라도 당당하게 영웅적으로 걸어야 할 것을 권하였다.

히브리인들의 광야시대는 가나안땅을 바라보는 종말론시대였다. 동시에 광야시대는 하나님의 세키나(구름기둥)가 인도하던 이동성막교회시대였다. 이 광야교회는 오늘 이 시대의 상징이요, 모형이었다.

이 세상을 가나안땅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하고 일시적인 가치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뛰어 넘어 영원불변한 세계를 향하여 순례의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이것이 성도의 광야의식이요, 새천년왕국운동이다. 성도는 멈추지 않고 전진한다. 아브라함처럼, 히브리인들처럼 자기가 안주한 불편한 자리에서 탈출할 수 있어야 한다. 안주하면 망하고 만다. 성도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 붉은 “유리 바닷가에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계 15:2-4),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 그날이 오기까지 성도는 힘차게 전진해야 한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이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맞고 있다. 자칫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경제뿐 아니라, 군사와 국제정치에서 그렇다. 중국과 러시아의 강세는 미국과 일본까지 합세한 4강의 틈새에 끼인 대한민국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구한말 조선이 처했던 국내외상황을 닮아가고 있다. 이스라엘의 분열왕국들이 멸망하기 직전에 처했던 국내외상황을 닮아가고 있다. 남북은 대치상황에 있고, 한반도의 지배권

을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는 더욱 거칠어져가고 있으며, 동맹국인 미국은 우리 국민의 배신에 울분을 삭이고 있다. 지구촌의 경제위기는 곧바로 대한민국의 위기임을 웅변이라도 하듯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어려워져가고 있다. 기독교에도 위기는 벌써왔다.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다는 듯이, 채 오르기도 전에 내리막이 시작되었다. 우리 각자가 안주한 터전에서 희망에로 탈출하지 않는다면, 임진년의 시작은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할 것이다.

2. 새천년시대의 임마누엘(마 1:18-25)

'임마누엘'의 역사적 배경

마태복음 1장 23절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으로써 북이스라엘왕국이 앗수르에 멸망하기 직전 그리고 남유다왕국이 국내외정세와 종교문제 모두에서 심히 위태롭던 시기에 나온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지금으로부터 2,730여 년 전 남북이스라엘 왕국은 국제정세라는 측면에서 매우 위태로운 시기였다.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늙은 호랑이 아람(지금의 시리아지역)과 동맹을 맺고, 젊은 호랑이 앗수르(지금의 이라크지역)의 서진정책을 막고자 하였으며, 주변국 들인 모압, 암몬, 에돔, 남유다왕국에 사신을 보내 동맹에 가입할 것을 압박하였다. 이때 남유다왕국은 젊은 호랑이 앗수르의 편에 섰기 때문에 앗수르에 조공을 바치는 속국에 편입되는 한편,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국들로부터 보복침략을 당하는 등 위태롭기가 말 그대로 벼랑 끝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이때의 유다왕 아하스(731-716 B.C.)는 앗수르의 우상과 문물들에 영향을 받아 이방신을 섬기고, 아들을 제물로 바쳤으며, 성전기구들을 훼손하고, 성전 문을 닫음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하였다.

남유다왕국의 이 벼랑 끝 위기에서 나온 것이 ‘임마누엘’에 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다. 결국 앗수르에 맞섰던 북이스라엘과 아람 등은 주전 722년에 멸망당하여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남유다왕국은 살아남아 그 후로도 136년간이나 더 존속되었다.

이사야 8장 8-10절을 보면, 남유다왕국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마치 홍수로 물이 불어 유다왕국의 목에까지 찬 상황이었다. 도피할 곳은 오직 하늘뿐, 날개가 없이는 죽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 생명의 날개가 바로 임마누엘이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임마누엘이여, 그가 퍼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고 노래하였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만이 우리의 피할 날개요, 구원의 날개임을 노래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활짝 편 날개가 나와 함께하는 한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 9-10절이다.

너희 민족들이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이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사야의 이 노래는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인들이 홍해에 접한 벼랑 끝 위기에 몰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출 19:4)는 위대한 신앙고백을 생각나게 한다. 암으로 투병중인 소설가 최인호가 가톨릭 서울대교구 주보, <말씀의 이삭>에 실은 글에서 "과거를 걱정하거나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날개를 가진 거룩한 천사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의 신앙고백이다. 우리가 벼랑 끝으로 몰리면 몰릴수록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것은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이다. 그 날개가 바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탄생

이사야 선지자 때 벼랑 끝까지 몰렸던 유다왕국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기사회생한지 한 세기가 지난 예레미야 선지자

때 또 다시 거듭해서 벼랑 끝에 몰렸으나 예레미야의 충고를 무시한 채 이집트를 의지하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말았다. 이후 유대인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속주국민으로 600년 가까이, 예수님 탄생이전까지, 가난과 억압 속에서 벼랑 끝 삶을 살고 있었다. 말 그대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마 4:16)의 고단한 삶이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나온 복음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었다. 이 소식은 그들에게 큰 구원의 빛이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들에게 하늘을 훨훨 날아 강 건너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안착할 수 있는 구원의 날개였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가장 특별한 은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 즉 대강절, 성탄절, 부활절, 오순절, 주의 만찬, 침례, 안수 등 거의 모든 행위들이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징한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체험하도록 하는 예배행위들이다. 교회에서의 일들은 ‘임마누엘,’ ‘파루시아’ 혹은 ‘여호와 삼마’를 체험하게 하는 것들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뜻이고, ‘파루시아’는 ‘임재’ 혹은 ‘도착’의 뜻이며,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뜻이다. 교회의 일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과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나 도착하시는 ‘파루시아’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여호와 삼마’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과거에 끝나버린 일회적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교회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지속되고 있는 현재적 사건이며, 예수님의 두 번째 도착 즉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미래적 사건이다.

사람들에게는 두 부류가 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논하는 것 자체가 허무맹랑한 짓이고 미

신이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고, 술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조차, 하나님이 죽고 아니 계신 것 같은 절망적인 현실에서조차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하심을 강하게 확신하고 체험을 말하는 부류가 있다. 과연 어느 쪽이 옳은가? 아니 옳고 그른 것은 차지하고서라도 과연 어느 부류가 더 유리한가? 긍정과 부정의 유익성에서 평가하자면, 긍정이 부정보다는 훨씬 더 유익하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증하는 사람은 삶이 훨씬 더 긍정적이고, 믿음에 차있고, 자신에 차 있고, 시련극복의 힘이 크다. 환란과 시련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다. 닥쳐온 환란을 극복한 후에는 삶에 활력이 더욱 넘치게 된다.

인간은 만물의 법칙이 그렇듯이 버려두면 망가진다.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은 마치 산에서 떠온 돌덩이를 쪼고 다듬어서 아름다운 석상을 조각하는 것과 같다. 그리스 신화에서 믿음이 깊어 신의 사랑을 받은 피그말리온은 석상을 사람이 되게 하였지만, 오만방자하여 신의 노여움을 산 니오베는 자기 자신이 석상이 되고 말았다.

'임마누엘'과 무소부재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무소부재와 다르다. 하나님의 무소부재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자연계시 혹은 일반은총에 속한다면, '임마누엘'은 특정인에게 미치는 특별계시 혹은 특별은총에 속한다. 예를 들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특별은총을 입어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것과 같다. 이처럼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사적이고 개인적이며 특별한 은총이다. 그러나 무소부재는 하나님이 어느 곳이나 계시다는 뜻이다. 그것은 마치 햇볕이나 공기가 어느 곳이나 있듯이, 하나님이 어느 곳이나 계신 것을 뜻한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햇볕을 쬐기 위해 고의로 양지를 찾거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산행을 하는 사람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미치는 은총이다. 따라서

‘임마누엘’의 체험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심을 강하고 특별하게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성경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한 이들의 신앙고백서이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일상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특별한 은총을 성경을 읽음으로서 선배 신앙인들과 영적으로 교류하고 검증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와 함께하시는가? 함께하고 있어도 의식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다. 그것은 마치 공기나 불가시광선과 같다. 확률로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다’보다 배나 유리하다. 만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다면, 그것을 믿었던 사람이 믿지 않았던 사람보다 손해를 본 것처럼 느낄지 모르나 실상은 유익이 더 많았다고 느껴야 옳다. 그의 긍정의 태도가 삶에 대단한 플러스 요인으로, 삶을 운택한 방향으로, 행복지수를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손실을 능가하는 유익을 보게 된다. 하물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그것을 깊이 체험한다면, 그 축복이 얼마나 크겠는가? 돈으로는 살수 없는 엄청난 기쁨과 행복이 보너스로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재물과 명예와 권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에게 절실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체험이다. 일상에서 하던 일들을 조금씩 줄이고, 매일의 기도와 성경읽기와 개인묵상에 좀 더 긴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시도해 보지 않고, 자신의 영성개발에 투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을 불평하는 것은 선부른 행위이다.

소설가 박완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하나님의 침묵에 몸부림치면서, 수없이 겪는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포악을 떨면서, 그러한 부정의 고비를 수없이 겪으면서, “산중 깊은 곳에 향기 짙은 난이 피어 있을 때, 눈으로 발견하기 전이라도 가까이 갈수록 난의 존재를 확신하며 이끌리게 되듯이,” 점점 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된다고 했다. “코의 능력도 천차만별이어서 멀리서도 난

향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척에 가서나 겨우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다. 난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멀리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영성의 필요를 언급한 말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리를 듣고 있어서 듣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고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알렉산더 캠벨은 가시(可視)거리, 가청(可聽)거리, 보고 들을 수 있는 공간과 거리 안으로 들어가야 보고 들을 수 있다고 하였다. 아무리 향이 짙은 난이 피어있다고 해도, 후각거리에 들어서지 않으면 그 향을 즐길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분이 눈에 들어오고, 그분의 음성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며, 그분의 향기가 코끝을 자극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벼랑 끝 위기에 몰린 우리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여야 하고,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할 날개, 즉 임마누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구원의 날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3. 새천년시대를 향한 출발(마 2:1-23)

'메시아의 별'의 출현

유대인들은 주전 605년, 597년, 586년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 주전 605년에 다니엘이, 주전 597년에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고, 주전 586년에는 유다왕국이 완전히 멸망하였다. 그로부터 600년이 지난 2000여 년 전 유대인들이 그토록 희망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출현할 징조가 하늘에 보였다. “그의 별,” 즉 다윗의 별이 하늘에 출현하였기 때문이다. 밤하늘에 펼쳐진 그 징조를 알아챈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었다. 그들은 다름 아닌 근동지방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의 후손들로서 천문학자들이었다. 그들은 출현한 별의 특이사항을 연구하였고, 그 별이 바로 유대인들이 자자손손 기다렸던 메시아출현의 전조란 것을 알았으며, 즉시 태어난 메시아를 뵈려고 긴 여행길에 나선 자들이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먼저 헤롯궁을 찾은 것은 태어날 아기가 왕족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마태는 여기서 유대인들의 예상과 하나님의 계획사이에 큰 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현한 메시아가 유대인들이 예상했고 희망했던 메시아와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유대 땅을 통치하는 왕이 이미 있는데, 자기 씨가 아닌 다른 씨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게 달갑지 않은 소식이었다. 그래서 헤롯궁전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유대인 학자들이 소환되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에 답해야 했다.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예루살렘 헤롯궁전에서 남서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이란 것이 밝혀졌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불러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를 찾거든 돌아와 보고하라고 단단히 일렀다.

동방박사들은 아기를 발견했고, 엎드려 경배하였으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바쳤다. 하나님의 천사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꿈에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도록 지시했고, 요셉에게도 나타나 급히 이집트로 피신하도록 지시해야 했다. 아기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이 죽은 주전 4년 봄까지 1-2년 정도 이집트에 머물러야 했으며, 그 후에 갈릴리지방 나사렛에 가서 정착하였다. 아마 동방박사들이 선물로 바친 예물들이 비용충당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헤롯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내버려두면 장차 자신과 가문의 왕위를 위협하게 될 싹을 미리 제거해야 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불러 즉시 동방박사들을 뒤따르게 하였고, 한 두 살 된 사내 아기들이 있는 집들을 파악하게 하였을 것이다. 상황의 위급함을 깨닫고 동방박사들과 예수님의 가족이 민첩하게 피신한 반면, 그들의 행적을 놓친 헤롯은 분노하며 두 살 아래의 사내 아기들을 모두 살해토록 하였다.

마태는 모세가 바로왕의 서슬 퍼런 칼날을 피한 후에 첫 번 유월절 때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제1차 대구원사건을 그림자로 이해하면서 헤롯의 칼날을 피한 예수님이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킬 제2차 대구원사건을 예측하도록 하였다. 예수님이 출생한 시기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주전 5년 3-4월 유월절 시기로 봐야한다는 것이 천문학자 마크 키저(Mark Kidger)의 주장이며, 다른 천문학자들도 역시 유월절 시기로 본다. 예수님의 탄생목적과 사명이 인류구원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메시아의 별’을 따른 사막여행

마태복음 2장은 ‘메시아의 별’을 찾아서 혹은 새천년시대를 향한 희망을 찾아서 길을 떠나는 이야기이다. 존 번연의 <천로역정>을 연상해 볼 수도 있다.

마태복음 2장에서 네 종류의 사람들이 길을 떠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길을 떠난 이는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인류구원을 위한 오랜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길 떠날 준비를 하셨고, 높고 높은 하늘나라에서 낮고 낮은 땅으로,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외양간에로 떠나오신 것이다. 두 번째로 길을 떠난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다. 그들은 지금의 이라크나 이란에서 출발한 학자들이다. 그들이 먼 길을 떠난 목적은 새천년시대의 희망인 메시아를 찾아 뵈옵기 위한 것이었다. 세 번째로 길을 떠난 이들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이다. 그들은 로마제국의 황명에 따라 호적에 등기하려고 북쪽 갈릴리를 떠나 남쪽 베들레헴까지 여행한 것 결혼한 부부였고, 마리아는 이미 만삭의 몸이었다. 네 번째는 헤롯이 보낸 군인들이었다. 그들도 역시 예루살렘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여행하였다. 그들은 가장 늦게 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떠난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베들레헴을 찾은 목적은 갓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아 죽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하였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곳을 떠나고 없었다. 헤롯의 군인들은 두 살 아래의 사내아이들을 모두 죽였다. 이렇듯 이들 네 종류의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떠난 곳은 달랐어도 도착한 곳은 동일하였다. 바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이었다. 예수님을 모셔 받들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얼굴의 광채를 보았으며, 새천년시대의 희망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해서는 안 될 못쓸 살인을 저질렀다. 예수님을 찾는 목적에 따라서 그 결과가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격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이토록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출발지점과 시간은 각기 달라도 언젠가는 다 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에 사람들은 심대한 격차를 보게 될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격차는 우리가 길을 떠난 후 가까운 미래에 맞닥뜨려야 할 운명이다. 따라서 마태복음 2장은 우리들에게 동방

박사들처럼 옳은 목적과 출발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헛웃과 그의 군인들처럼 잘못된 목적과 출발을 해야 할 것인지를 숙고하도록 촉구한다.

희망을 찾던 동방의 박사들은 특이한 별을 발견하였고, 그 별이 희망의 표지란 것을 직감하였다. 그들은 희망의 별을 따라나설 준비를 갖췄다. 비용을 마련하고, 여러 주일 먹을 식량과 마실 물을 준비하였다. 선물도 마련하고, 낙타도 구입하였다.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 긴 여행에 따른 위험도 각오하였다. 바보들이나 하는 무모한 짓이란 비난도 감수하였다. 단호한 결단과 노력이 있었기에 그들은 새천년시대를 활짝 여실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의 행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2천년 넘게 칭송되고 있다. 매년 성탄절이면 카드에 어김없이 그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메시아의 별’을 따른 바다여행

작고한 이윤기의 작품, <그리스 로마 신화: 아르고 원정대의 모험>이 2010년 10월 15일 유고(遺稿) 작으로 출판되어 서점에 나왔다. 이 책의 내용은 영웅 ‘이아손’(제이슨)이 콜키스 땅에 있는 금양모피(황금양의 가죽)를 찾는 과정에서 겪는 모험담이다. 콜키스는 일찍이 헬라인으로서는 누구도 가본 적이 없고,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는 머나먼 땅이었다. 그런데도 이아손은 이곳 미지의 땅으로 가기위해서 아르고 원정대를 꾸려서 험한 바다에 배를 띄웠다. 마태복음 2장으로 말하자면, 콜키스는 베들레헴이요, 금양모피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양 예수님이시다.

지중해에 배를 띄운 지 얼마 못되어 이아손의 아르고 원정대를 실은 배는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을 동서로 갈라놓는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과해야 했다. 보스포루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이스탄불의 서쪽은 유럽, 동쪽은 아시아이다. 이 보스포루스 해협은 지중해에서 흑해로 혹은 흑해에서 지중해로 들어가는 관문

이다. 신화에 의하면, 보스포루스 해협 입구에 두 개의 바위섬이 있었고, 이곳을 지나는 배는 반드시 이 두 개의 섬 사이를 통과해야 했었다. 그러나 이곳은 통과하는 배들을 십중팔구 싸늘한 역풍과 물보라로 휘감아 산산조각을 내고 마는 악명 높은 해협이었다. 보스포루스 해협입구 좌우에 자리 잡은 이 두 개의 섬들은 배가 뚫든, 새가 뚫든, 무엇이었던 간에 그 사이에 들어온 것들을 향해서 양쪽, 즉 동과 서에서 부딪쳐 오는 쉼플레가데스, 일명 충돌하는 바위섬들이었다. 인간들이 그들의 힘과 용기와 지혜로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바닷길로 나가지 못하고 연자 뗏돌에 들어간 낱알처럼 몽개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아손이 영웅인 까닭은 그가 그의 원정대를 이끌고 이 협로를 무사히 통과했기 때문이었다. 이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와 그의 원정대는 흑해를 지나 금양모피가 있다는 콜키스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다.

충돌하는 바위섬들을 지나 콜키스 땅에 도착한 이아손은 또 다시 세 가지 큰 난관에 부딪쳤지만, 그것들을 모두 극복하고 결국 금양모피를 손에 넣었다. 이 과정에서 이아손은 풍랑도 만났고 암초도 만났다. 높은 산도 넘고 물도 건넜다. 금양모피를 손에 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했던 과제들에 직면하기도 했었다. 그가 맞닥뜨렸던 이 모든 장애물들은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풀어야할 과제들일는지도 모른다. 우리 앞을 흑해가 가로막고 있고, 충돌하는 바위섬인 쉼플레가데스가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것들이 두려워 길을 떠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금양모피는 없다. 험난한 검은 바다 흑해와 역풍과 물보라를 내뿜는 쉼플레가데스는 누구에게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쉼플레가데스를 통과해야하고, 우리의 흑해를 건너야 한다. 출발도 하지 않고, 모험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금양모피라는 희망을 손에 넣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넘어야할 산과 바다는 험악할 수 있고, 우리가 건너야할 강은 거센 물살일 수 있다.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을 좇아 길을 떠났던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별을 보고 원정대를 꾸려 먼 길을 떠났던 그들은 사

막의 모래바람에 맞서야 했고, 강도들의 위협과 맞서야 했으며, 임시 텐트에서 추운 밤을 보내야 했고, 수주나 걸리는 머나 먼 이국땅을 향하는 길을 낙타 등에 의지해야 했다. 그 결과 그들은 별이 가리킨 갓 태어난 희망, 곧 인류의 희망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4. 새천년시대의 선구자(마 3:1-17)

“이미”와 “아직”의 긴장 조절

오늘의 현실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까지도 온통 벼랑 끝에 몰린 절박한 상황들이다. 이럴 때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벼랑 끝 위기를 벗어나게 할 날개이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카루스의 날개이야기가 나온다. 이카루스의 아버지 데이달루스는 지혜의 여신 아테나의 영감을 받은 대단한 발명가이자 건축가였다. 그러던 그가 질투심을 이기지 못하고 톱을 발명하여 자기보다 더 유명해진 조카를 신전위에서 밀어뜨려 죽였다. 그 죄값으로 아들 이카루스와 함께 크레타 섬에 유배되었는데, 그곳을 탈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날개였다. 이카루스가 유명해진 것은 그가 아버지가 만든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게 되자, 목적지를 향해 날기보다는, 아버지의 충고를 무시한 채, 건방지게 태양을 향해 날다가 날개를 붙인 밀랍이 녹아 바다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이었다. 데이달루스와 이카루스의 이야기는 벨레로폰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신(神)에 대한 믿음과 오만에 대한 응보를 다룬 신화이다. 벨레로폰도 지혜의 여신 아테나의 도움으로 하늘을 나는 말 페가수스를 얻어 타고 유럽의 용인 키마이라를 물리쳤지만, 오만 때문에 하늘에서 추락하였다는 이야기이다. 벼랑 끝 위기에 몰릴 때 필요한 것은 지혜의 신(神)께, 즉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여 날개를 얻는 것이지만, 날개를 얻어 하늘을 날게 된 다음에도 날개를 구하던 “처음처럼” 경건한 믿음을 변치 말아야 한다는 그리스-로마식 교훈이다.

아무튼 우리는 몸에 날개를 달아야 벼랑 끝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사야 선지자와 마태 사도는 그 날개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선포하였다. 하나님이 임재

(파루시아)하여 머무시는 땅(여호와삼마)이 새천년왕국이요, 하나님(임재(파루시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임마누엘) 시대가 새천년시대이다. 임마누엘의 날개를 우리가 몸에 달고 날아가야 할 곳이 바로 이 새천년왕국시대이다.

유대인들은 이 새천년왕국시대를 “올람 하바”라고 부르는데,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믿는다. 그들이 원하는 제2의 모세, 즉 모쉬아크(Moshiach)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그가 출현해야만 제2의 가나안 땅의 시대가 개방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시대가 문자적으로 개방된다고 믿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의 재림 직후 전개될 천년왕국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하는 “올람 하바”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믿는다. 그러나 새천년왕국시대가 무엇인지, 그 때인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져 있다. 예수님의 왕국인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의 임시 거처인 낙원이 새천년왕국시대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교회시대인 현시대가 새천년왕국시대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새천년왕국시대가 도래한다고 믿는다. 현실세계에 실망했거나 좌절한 사람들, 그리고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면서 현실세계를 뜯어고치거나 탈바꿈시키기를 원하는 개혁가나 혁명가들은 대개가 이 주장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이미” 도래했다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현실과 이상(理想)사이의 긴장이다. 이 긴장의 조절이 새천년왕국시대를 앞당기는 열쇠이다.

새천년시대를 얻기 위한 SOS

예수님이 태어나신 2천 년 전 지중해 세계는 로마제국이 호령하던 때였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코앞에 있던 때였다. 로마에서는 공화정이 몰락하고, 초대 황제가 나라를 통치하던 때였다.

정치적으로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처럼, 이해득실에 따라 '합종연행'(合縱連橫)과 줄 갈아타기가 성행했고, 속임수와 중상과 모략은 말할 것도 없고, 상대방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유포하는 '네거티브 전략'이 효과를 보던 때였다. 당대에는 신문이나 방송이 없었으므로 벽에 그리는 그림낙서를 통해서 비방선전이 이뤄졌고, 정적을 제거하는 청부암살도 많았다. 성적인 타락 또한 극에 달했다. 근친상간, 동성애, 매춘이 성행했고, 여성들도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라면 남편이나 연인 갈아타기를 서슴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끊임없는 전쟁으로 서민들의 삶이 피폐했다. 민중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쟁으로 인해서 생긴 수많은 노예들이 시중에서 짐승처럼 매매되었으며, 주인들에게 학대를 받았고, 투기장에 끌려 나가 많은 사람들의 오락꺼리가 되기도 하였다.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만도 못하던 때였다. 종교적으로는 신화에 바탕을 두고 3만이 넘는 잡신들을 섬겼다. 사실 이들 신(神)들은 모두가 사물의 이름에 불과한 것들이었다. 액면 그대로 벼랑 끝 삶이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유대 땅은 이미 600년 가까이 강대국들에 유린을 당하고 있었다. 헬라로부터 독립하여 100년간 유대인 하스몬왕가가 통치했었지만, 그마저도 주전 64년에 로마제국의 손에 넘어가 로마가 임명한 왕이나 총독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가난한 유대인들은 성전세와 인두세가 버거운 짐이었고, 세리들의 착취와 부패도 심했다. 예수님께서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마 9:36)고 했듯이 서민들의 삶은 심히 고단하였다. 비록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율법(토라)을 소유한 심히 종교적인 민족이었다 할지라도, 그들 상당수는 율법의 본질에서 벗어나 외식에 치우쳤고, 그들의 지나친 선민의식과 민족주의가 그들의 종말을 재촉하던 때였다. 그 결과가 주후 70년에 현실로 나타났다. 액면 그대로 벼랑 끝 삶이었다.

그러나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고 하듯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이 절박한 시기에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그늘에

얕은 백성에게 날개가 되시기 위해서 또 그들을 벼랑 끝에서 구원하여 새천년시대로 옮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려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오셨다. 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빼앗긴 것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보상을 받게 될 것이며,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뭇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고 하였다(사 61:1-7). 예수님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조난신호 SOS (Save Our Souls)를 보내는 자들은 구원의 날개를 얻고 활짝 열린 새천년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새천년시대의 선구자

구원의 필요성을 아는 자만이 조난신호를 보낼 수 있다. 시대를 읽는 선각자만이 새천년시대의 선구자가 될 수 있다. 마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새천년시대의 선구자였다. 새천년시대를 개방하실 예수님의 등장을 예견하고, 스스로 유대광야에 나아가 외치는 자가 되었다. 새천년시대를 활짝 여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외쳤다. 날개를 얻어 새천년시대에 안착하려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이 오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길을 닦으라고 외쳤다. 회개하라고 외쳤다. 밤을 깨우기 위해서 닭이 울듯이, 통회하는 고통의 시간이 없다면, 환희의 기쁨도, 동녘의 붉은 태양도 없다고 외쳤다. 지금은 결단의 시간이니, 벼랑 끝에서 추락하든지, 날개를 얻어 날든지 한 가지를 택하라고 외쳤다. 심판의 도끼가 이미 손에 들렸고, 쭉정이를 까불 키가 이미 손에 들렸다고 외쳤다. 이 외침이 바로 새천년

시대의 선구자 세레 요한의 외침이었다.

새천년시대의 선구자들은 대개가 세레 요한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개방할 새 시대를 희망하였다. 새 시대와 세계를 희망하는 자들은 대개가 그랬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민주화운동처럼 성공한 운동도 있었고, 태평천국난이나 동학혁명처럼 실패한 운동도 있었다. 19세기 초에 미국 동부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은 성공적인 새천년왕국시대의 운동들 가운데 하나로 역사에 자리매김이 되었다.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과 발톤 스톤(Barton W. Stone)은 임박한 그리스도의 교회 시대의 개방을 바라보면서 새천년시대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 또는 그리스도인 메신저(Christian messenger)를 자처하였다. 그들은 신약성경교회로 온전히 회복된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시대를 새천년시대로 보았으며, 그들의 선교목표는 그리스도의 교회 시대의 개방을 알리고 앞당기는 것이었다. 그들은 새천년왕국시대에는 비성경적인 관행들, 즉 교회를 분열시키는 당파심과 인간을 착취하는 노예제도와 교회에 균립하는 교권제도와 같은 범죄들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발톤 스톤은 “의로운 심판의 날은 가까웠다. -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흠과 점이 없이 발견될 수 있도록, 육체와 영혼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너희 자신들을 깨끗이 씻음으로써 그날을 준비하라.”고 외쳤다.

캠벨과 스톤과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을 펼쳤던 선구자들은 기독교를 그것 본래의 순수함과 능력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새천년왕국시대를 개방하는 것이라고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레 요한처럼 선구자들로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확신하였다. 그들은 이 확신 속에서 개혁운동, 곧 신약성경교회(사도전통)회복운동을 펼쳤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거룩한 운동에서 비롯되었다.

새천년왕국시대는 이미 이 땅에 출범했을 수도 있고, 아직 도래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미 출범했더라도 그것은 영적인 의미일 뿐, 완전하고 문자적인 출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뿐

만 아니라, 이 영적인 출범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완전하고 문자적인 새천년왕국시대의 개방을 위한 선구자적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힘(momentum)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새천년왕국시대를 개방하기 위한 선구자의 삶을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한다.

<선구자는 새끼 새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어 날갯짓을 유도하는 어미 새와 같다. 높은 벼랑 끝에 선 자는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날수만 있다면, 건너편에 펼쳐진 너른 벌판에 안착할 수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런데 높은 벼랑에 서본 자만이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벼랑 끝에서 떨어져 본 자만이 자기가 가진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펼칠 수가 있다. 어미 새가 다 자란 새끼 새를 둥지 밖으로 밀쳐내는 것이나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고 둥지 밖 큰 나뭇가지로 부르는 이유는 제 새끼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를 벼랑 끝으로 부르시는 이유나 심지어 벼랑 끝으로 밀어내시는 까닭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임마누엘의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은 날개를 활짝 펼쳐야 한다. 머뭇거리지 말고 힘차게 날아야 한다.>

5. 새천년시대 입문시험(마 4:1-11)

떠돌이 유대인(the Wandering Jew)

이문열의 소설 중에 <사람의 아들>이 있다. 이 소설에 유대인 아하스 페르츠가 등장한다. 아하스 페르츠에서 ‘아하스’는 17세기경 유럽에서 붙여진 이름이고, 주전 5세기 중후반에 바사제국을 통치했던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어로(Ahasuerus)에서 유래하였다. ‘페르츠’는 야곱의 아들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 베레스(창 38:29)와 동일한 이름이다. 아하스 페르츠에 얽힌 전설은 13세기 유럽에서 처음 나왔으며,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 골고다로 향하던 중에 지쳐 쓰러진 곳이 아하스 페르츠의 집 앞이었는데, 잠시 쉬어가게 해달라는 부탁을 거절함으로써 저주를 받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못하고 세상을 떠돈다는 인물이다. 아하스 페르츠는 떠돌이 유대민족을 의인화한 것으로서, 실제로 영어권에서는 “떠돌이 유대인”(the Wandering Jew)이라 해야 알아듣는다.

마태복음 4장 1-11절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를 이문열은 그의 소설 <사람의 아들>에서 아하스 페르츠로 의인화하였다. 예수님과 문답을 나눈 자는 마귀가 아니라, 독립을 염원하는 유대인들이었다는 암시를 담았다. 따라서 마귀가 시험한 내용도 유대인들의 염원으로 이해하였다.

마태복음 4장 1-11절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세 가지를 요구하였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렇다면,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렇다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전혀 다치지 않는 기적을 보여라.” “천하만국을 갖고 싶은가?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 부분을 이문열은 <사람의 아들>에서 아하스 페르츠

의 입을 빌어 이렇게 바꿨다. “당신이 지금 배가 고프듯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배가 고프다. 당신은 그들에게 빵을 줄 수 있는가?”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면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라. 높은 곳에서 뛰어 내려라. 만일 당신이 다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인 독립이다. 세상을 가지고 싶은가? 나에게만 남과 다른 식견이 있으니,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당신을 보좌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제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 다수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즉 빵문제 해결, 메시아인 것을 입증할 위로부터 내리는 표적, 그리고 이스라엘국가의 회복이었다. 빵문제 해결은 곧바로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위로부터 내리는 표적이었다. 제1 대구원사건의 메시아였던 모세가 광야사막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게 하고, 반석의 샘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게 한 것을 생각하면 된다. 예수님께서 빈들 즉 광야에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만으로 남자만 오천 명을 먹이셨을 때, 유대인들이 흥분하여 예수님을 붙잡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빵문제를 해결해줄 제2 대구원사건의 메시아인 제2의 모세를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바라는 정치경제적인 메시아가 될 것을 거부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은 단호히 그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복음서들은 기독교인들이 희망하는 종교적인 영적인 새천년왕국이 유대인들이 희망하는 정치경제적인 문자적인 새천년왕국과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아하스 페르츠의 환멸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에 나오는 문답내용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다.

아하스 페르츠가 발 앞에 있는 돌덩이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다. "지금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빵이요. 당신은 돌덩이를 빵으로 만들 수 있겠소? 다시는 저들이 빵이 모자라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으시오?"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소. 흠으로 돌아갈 육신은 빵으로 죽하겠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소.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의 가치로 평가하려 하지 마시오."

"저들이 겪어 온 그 오랜 배고픔과 목마름이 아직도 부족하던 말이요? 결핍과 갈구만이 저들 육신의 숙명이란 뜻이요?"

"영혼의 삶이 더 크기 때문이요. 당신이 아무리 그 귀중함을 과장한들 바람 앞의 겨와 같고 풀잎 위의 이슬 같은 육신의 삶이 저 영원한 참 생명에 비교될 수 있겠소? 게다가 약속하신 날이 가까이 왔소. 머지않아 주린 자는 채우게 될 것이고 목마른 자는 적시게 될 것이요."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경이 당신의 권능을 두고 한 말씀을 믿고 여기서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소. 당신이 내게 요구한 것은 곡예사나 술사(術士)들이 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얕은 안목으로 저울질하지 마시오."

아하스 페르츠가 다시 탄식처럼 말했다. "그렇지만 증거 없이는 믿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고, 백번의 거룩한 말씀보다 단 한번의 어쭙잖은 기적에 더 쏠리는 것이 인간이며, 미망과 방황의 세월을 울고 신음하며 더듬어 가는 것이 인간이 아니겠소?"

"물질과 기적에 의한 믿음과 순종은 참이 아니요. 오직 말씀과 사랑 속에서 불신과 회의를 이겨낸 사람만이 하늘나라로 인도될 것이요."

"하늘에 계신 그 분의 뜻을 이제 알 만하오. 그렇지만 지금 이 땅의 민중이 가장 고대하는 것은 정신적인 메시야가 아니라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야요. 가서 저들을 조직하고 무장시켜 옛 다윗의 영광을 재현토록 합시다. 나의 지혜와 당신의 권능을 합치면 못 이룰 일이 없을 것이요. 먼저 저들을 로마의 압

제에서 구해내고, 이 땅의 권세부터 손에 넣읍시다. 말씀은 전하는 일은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소. 아니 그래야만 당신은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보다 쉽고 힘 있게 하늘에 계신 그분의 뜻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고 또 보다 확실하게 그 실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오."

"그분에게서 비롯되지 않으면 땅 위의 권세는 헛되지 않음이 없고, 그분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그 영화 또한 죄 되지 않음이 없소. 나는 이 세상을 구하러 온 것이지 다스리고 억누르러 온 것이 아니며, 저들의 죄와 고통을 덜어 주러 온 것이지 나 스스로 즐거움을 누리려고 온 것이 아니요. 지상의 권세와 쾌락은 순간이지만, 천상의 권능과 복락은 영원하오. 결국 당신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 그리고 땅 위의 어리석은 위세와 자랑으로 나를 유혹하지만 다 부질없는 것이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 듯하오. 더는 나를 방해하지 말고 이만 물러나시오. 지금 당신을 부추기고 있는 그 악마의 가르침을 따라 사특한 지혜의 길이나 가시오. 이 순간도 진노의 철장(鐵杖)이 당신을 내려쳐 질 그릇처럼 부수어 놓을까 두렵소."

가롯 유다의 환멸

예수님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거부한 것은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부르기 때문이었다. 피를 흘리고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다 해도 일시적일 뿐이지, 궁극적이고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끝없는 욕심을 채워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사랑의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은 강력한 통치자가 아니라 민중의 영원한 반려자가 되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민중은 처음부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갖고 싶은 것만 갖고자 했다. 그런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현실문제에 어두운 무력하고 무능한 인간으로 비춰졌다. 예수님께 걸었던 기대가 컸던 만큼 배신감도 컸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설픈 혁명가였을 바라바를 놓으라고 외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제자들 가운데는 가롯 유다만이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민중의 기대를 저버린 채 분노의 불길 속에 몸을 던지려한다는 것을 알고 고뇌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마음은 정을 쫓던 여인에게 환멸을 느껴 헤어지려 해도 쉽게 헤어질 수 없는 사내의 마음과도 같았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배신은 예수님께 환멸을 느낀 자들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그는 아하스 페르츠처럼 말했을 것이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가혹한 현실에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랍비여, 당신은 사랑보다 큰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랑보다 지금 당장 효과가 있는 것을 원합니다. 현실에 쓸모 있는 것밖에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고통을 아셨다. 그분은 불의와 절망에 깊은 상처를 입은 민중과 함께 계셨고, 영원한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욕망의 신을 섬겼던 민중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이해하셨고, 용서하셨으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 부디 사랑의 하나님이 좌정하시게 되기를 기도한다. 세속적인 메시아를 고대했던 민중이나 스승을 배신했던 제자들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얻기를 원하는 것이 세속적인 욕망의 채움인지, 아니면 그분의 모성적인 사랑인지를 깊이 생각해봤으면 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인지를 생각해 보면 한다.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현실에 필요한 표적만을 구하지만, 정작 그들이 겪는 가장 큰 불행은 표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을 베풀자가 없는 것이다. 톨스토이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밝힌 것처럼 인간

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지 표적이 아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당하셨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셨으며, 최후에는 그들의 대속(代贖)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기를 원하시는 나라는 일시적이고 허망하며 요동치고 흔들리는 세상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과 평화의 나라 곧 하나님의 새천년왕국이다.

<사랑이 베풀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기적이 일어난다. 사람이 정말로 허기를 느끼는 것은 배고픔이 아니라, 사랑의 굶주림이다. 사랑이 베풀어지는 곳에 배고픔은 사라진다. 사랑은 빈말과 빈손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자기희생으로 베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6. 새천년시대의 개방운동(마 4:12-25)

새천년왕국운동

유대인들이 새천년왕국시대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출범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를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방식의 혁명가가 되기를 거부했고, 또 혁명가로서 정치군사적인 업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문열의 소설, <사람의 아들>의 내용에 공감하면서 기독교를 폄하하려는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과 동일한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종교적인 회심만을 유일하게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기독교인들 중에는 현실세계에 실망했거나 좌절한 나머지 새천년시대를 이 땅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현실세계를 뜯어고치거나 탈바꿈시키기를 원했던 개혁가나 혁명가들이 역사 속에 항상 있었다. 그들이 추구한 개혁이나 혁명의 힘(momentum)도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왔다. 세상을 바꾸려했던 수많은 사람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장 칼뱅, 울리히 츠빙글리, 알렉산더 캠벨, 발톤 스톤, 정치혁명을 일으켰던 토마스 핀처, 홍수전, 민중 신학자들, 해방 신학자들, 그밖에도 톨스토이, 본회퍼, 도로시 데이,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테레사 등 모두가 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입각하였고, 그분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았다. 심지어 마하트마 간디조차도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교훈을 얻었다.

회심만을 유일하게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잠정적으로 또는 나그네로 사는 세상이라 생각할 뿐 영원한 참 세계가 아니라고 믿는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세속적인

육망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일찍이 플라톤은 보이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당대의 헬라인들은 “너 자신을 알라” 즉 “너 자신이 죽을 운명을 타고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라”는 델포이 신전 상인방에 새겨진 교훈을 마음에 새겼다. 만들어진 것들은 다 유한하다. 그 유한한 세상의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하다보면, 반드시 피를 부르게 된다.

인간이 희망하는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즉 새천년왕국 시대는 이미 도래했을 수도 있고, 아직 도래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일부 기독교인들이 불완전하긴 하지만, 교회시대인 현시대가 새천년왕국시대라고 믿는 것은 현시대에서 새천년왕국시대를 맞보고 실제로 만들어가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새천년왕국시대가 도래한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는 현실세계에 실망했거나 좌절해 버린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앞당겨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혁이나 혁명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기독교인들은 “이미” 도래했다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사이에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현실과 이상(理想)사이의 갈등을 줄이고 긴장을 조절하는 자들이다.

영적인 새천년왕국시대는 이미 이 땅에 출범했지만, 문자적인 새천년왕국시대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적인 새천년왕국시대는 기독교인들이, 마치 독립군들이 해방운동을 펼치듯이, 아직 미래에 있는 문자적인 새천년왕국시대를 현시대로 앞당기는 개방운동의 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새천년왕국운동을 펼쳐야 한다.

새천년왕국, 천국(하나님의 나라), ‘올람 하바’

새천년왕국, 천국, ‘올람 하바’는 영적으로든 문자적으로든 거의 비슷한 개념들이다. 새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에 쓰인 말이고, 천국은 주로 마태복음에 쓰인 용어이다. ‘올람 하바’는 유대

인들이 희망하는 장차올 세상을 말한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로 시작되었다. 유대인들은 천국이란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전혀 어렵지 않게 받아들였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할 뿐 아니라, 그들이 간절히 기대하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문자적인 의미냐, 영적인 의미냐에 따라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극명하게 갈린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문자적인 “올라야 하바” 즉 이스라엘국가의 신정(神政)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것이 영적으로 교회시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란 용어대신에 ‘천국’이란 말을 썼을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유대식 표현이다. 2천 년 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발음하거나 쓰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대신에 다른 이름들, 즉 ‘주님’이란 뜻의 ‘아도나이’(Adonai)와 ‘그 이름’이란 뜻의 ‘하셈’(Ha-Shem)을 쓰는 관행이 있었다. 하나님의 이름 너자 자음에 아도나이의 모음이 붙어서 만들어진 이름이 ‘여호와’(YeHoWaH)로써 불과 5백여 년 전부터 쓰이기 시작하였다. 유대인들은 다른 이름들도 잘 발음하지 않는다. ‘아도나이’(Adonai)에 ‘하셈’(Ha-Shem)을 붙여서 ‘아도셈’(Adoshem)으로 발음하거나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Elohim)을 ‘엘로킴’(Elokim), ‘우리의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하이누’(Elohaynu) 혹은 ‘엘로카이누’(Elokaynu)로 바뀌서 발음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식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를 뜻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메시아가 오시면 세워질 이스라엘 왕국을 뜻한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세워질 이스라엘 왕국이 ‘왜 하나님의 나라인가’라는 물음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것은 주전 432년경까지의 일을 기록한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에 담긴 사상 때문이다. 이 사

상을 ‘역대기 사관’이라고 부르는데, 역대기 사관의 대표적인 이념이 다윗 왕가의 복원과 예루살렘 성전예배 중심의 신정정치였다. 유다왕국을 성전중심의 공동체로 결속시키기 위해서 성전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뿐 아니라, 바벨론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 주전 515년경에 재건한 성전공동체에 모든 희망을 걸었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神政) 통치를 가장 이상적인 세계로 꿈꾸었다.

이때부터 생겨난 것이 다가올 세계를 뜻하는 ‘올람 하바’(Olam Ha-Ba),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회복된 이스라엘 왕국을 말한다. 일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재림직후에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는 새천년왕국과 동일한 개념이다. 그래서 ‘올람 하바’에서는 미움, 살인, 전쟁 등의 죄가 사라지고, 먹이사슬과 약육강식이 사라지며, 소출이 풍성할 것이라고 믿는다. 또 이때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고, 전 세계가 유대교의 하나님을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믿게 되며, 성전예배가 복원될 것이라고 믿는다.

예수님의 천국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

유대인들이 ‘올람 하바’를 간절히 희망했다는 점에서,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강하게 웅변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천국복음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 드린 유대인들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초기의 열광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반전이 있었다. 왜 그랬을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천국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 곧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친히 다스릴 문자적 의미의 이스라엘 왕국으로 이해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이 선포한 천국의 의미가 문자적 의미의 이스라엘 왕국이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 개개인에게 임하신 후에 이뤄질 영적 의미의 이스라엘 나라, 곧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값없이 열려있는 교회시대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대의 유대인들로서는 그 같은 개념의 영적인 나라를 받아드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사건과 오순절 성령강림이 있고나서부터는 적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전파한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받아들였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교회에 가입하였다. 주후 30년에 출범한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교회는 회원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다.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이 여전히 미래의 세계이다. 그래서 유대교에는 현재의 삶속에서 이뤄지는 영적구원이란 것이 없고, 오로지 미래세계에서 이뤄질 육적구원만이 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사건을 이스라엘 민족의 대(大)구원 사건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제2출애굽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제2출애굽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고 믿고 있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까지 말할 정도이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서 이뤄진 현재구원과 예수님 재림 때에 성취될 미래의 축복들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금 여기서 미리 맛보고 누리는데 영적축복이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이미' 이뤄진 현재구원이 없고, 오직 '아직' 이뤄지지 않은 미래구원을 기대할 뿐이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천국이 이미 이뤄진 현세적인 나라일 뿐 아니라, 또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될 미래적인

나라이기도 하다. '이미'란 것은 메시아가 가져오실 천국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삶속에서 이미 이뤄졌다는 뜻이다. '아직'이라는 말은 완성될 천국이 아직 소망 가운데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의 삶은 현세적이면서 내세적이고, 현재적이면서 또한 미래적이다. 이 땅에 살면서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앞으로 주실 축복들을 미리 맛보고 누리는 것이다. 이런 복된 삶이 이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침례 가운데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고, 이 사실을 성령님이 보증하시고 직인을 찍으신 것이다.

7. 새천년시대로서의 천국과 복(마 5:1-3)

새천년시대로서의 천국

마태복음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제2모세, 즉 제2출애굽사건을 이끄실 또는 제2대(大)구원사건을 성취하실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여기서 세레 요한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모세의 형 아론에 비교될 수 있다. 그의 역할은 집회에서 주 강사의 등단을 소개하는 MC와 같다. 주인공의 등장을 알리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매니저와도 같다.

모세는 출애굽 후에 광야사막에서 특히 시내산에서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새천년시대를 위해 토라(Torah) 즉 613개의 계명들(Mitzvot)을 하나님의 뜻으로 전달하였다. 이 계명들의 핵심이 십계명이다. 이 계명들은 모세시대 또는 광야시대를 끝낸 다음에 가나안시대에서 적용될 율법들이었다.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신약교회시대라 일컫는 천국 즉 새천년시대를 위해 복음을 주셨는데, 특히 산상(山上)에서 수훈이라 일컫는 복음의 말씀들을 전하여 주셨다. 이 수훈의 핵심이 팔복이다. 예수님의 천국복음은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즉 예수님 시대를 끝낸 다음에 신약교회시대에서 적용될 복음들이었다.

그러나 신약교회시대를 천국시대, 새천년왕국시대 또는 가나안땅의 시대로 보는 것은 영적이고 선취적인 의미이지, 문자적이고 실질적인 의미가 아니다. 새천년왕국시대 또는 가나안땅의 시대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과 보증과 인침을 받고, 미리 맛보고 누리는데, 그 시대가 아직 문자적으로 실제로 임한 것은 아니다. 문자적인 새천년왕국의 성취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뤄질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시대가 새천년왕국시대라고 믿는 사람들이나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교회시대인 현시대가 새천년왕국시대라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문자적으로는 현시대가 여전히 가나안땅을 희망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광야시대라고 본다.

한편 새천년왕국시대가 영적으로 “이미” 시작되었다는 현재종말이나 시작된 종말개념이 없는 유대인들은 새천년왕국, “올람 하바”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믿는다. 그들이 원하는 제2모세, 모쉬아크(Moshiach)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그가 출현해서 옛 다윗왕국의 영화를 재건시켜야만 제2가나안 땅의 시대가 개방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새천년왕국시대가 문자적으로 개방된다고 믿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의 재림 직후 전개될 천년왕국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하는 “올람 하바,” 즉 유대인들의 문자적 천년왕국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또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바로 그 유대인들의 문자적 천년왕국시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다. 그들의 주장이 옳다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현재의 교회시대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미래의 왕국을 위한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 후에 도래할 새천년왕국은 문자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완전무결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므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시대에서 토라가 온전히 실천되고 성전이 재건되는 등의 일은 불필요하며, 또 유대인들의 왕국회복을 지지하는 일부 기독교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산상수훈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완전무결한 새 왕국에서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것이다. 토라든 산상수훈이든 불완전 현 시대에서나 필요하지, 완전무결한 재림이후의 시대에서까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새천년시대의 상징 숫자 8

마태 사도는 숫자 8을 선호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사용하였다. 5장에 그 유명한 8복이 실려 있고, 13장에는 천국의 본질과 성격을 설명하는 8개의 비유가 나오며, 24-25장에는 천

국이 임할 때의 심판과 보상에 관련된 8개의 비유가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인도-아라비아 숫자, 1부터 9까지와 0이란 기호는 주후 400년경에 인도에서 발명되었다. 신약성경의 기록이 끝난 지 3백년쯤 후의 일이다. 1에서 9까지와 0을 써서 10이 될 때마다 한자리씩 올려가는 십진법은 인류에게 있어서 위대한 발명이었다. 이 십진법이 중동에 알려진 것은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Muhammad, 570-632)와 같은 세기인 주후 670년경이었고, 유럽에 알려진 것은 1202년이였다. 인도-아라비아 숫자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알파벳으로 숫자를 대신하였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의 각 알파벳은 숫자 값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알파(A)는 숫자 값이 1이고, 베타(B)는 2였다. 알파벳의 숫자 값을 적용시키면,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숫자로 환산할 수 있다. 예수님은 '이에슈스'(Ἰησοῦς)이므로, 이를 환산하면, Ἰ(10)+η(8)+ο(200)+ο(70)+υ(400)+ς(200)=888이 된다. 888은 800+80+8이 되고, 8을 세 번 십진법으로 증폭한 것이 된다. 이 증폭을 트리스메기스토스(trismegistos, '세 번 위대한')라 부른다. [조철수, <유대교와 예수>(도서출판 길, 2002), 345-346쪽].

'예수'(Ἰησοῦς)란 이름은 '메시아' 또는 '구원자'란 뜻이다. 따라서 숫자 8은 구원과 관련된 숫자가 되고, 트리스메기스토스 3은 완전을 의미하므로 888은 구원의 완전성을 뜻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대 시빌린 신탁(Sibylline Oracle 1:324)에서는 예수님을 숫자 8로 표기하였다. 숫자 8이 쓰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는 8명이였다.

둘째, 유대인의 할례가 출생 8일째에 시행되었다.

셋째, 메시아의 예표인 다윗 왕이 이새의 8번째 아들이였다.

넷째, 초기교회 교부들, 특히 150년경에 순교자 저스틴은 주일을 '제8일째 날'이라고 불렀다(Justin, *Dialogue with Trypho*, 41:4). '제8일째 날'이란 '주님의 날' 또는 '주께서 부활하신 날'을 뜻한다.

다섯째, 중세교회는 구원의 표지인 침례탕을 팔각형으로 만들었다.

여섯째, 구약성경 미가서 5장 5절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앓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라는 말씀이 있다. 여기서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 즉 숫자 7과 8은 완전한 승리를 뜻한다.

이처럼 숫자 8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또 숫자 8은 천국복음을 상징한다. 8이신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이기 때문이다. 숫자 8은 완전수 7보다 하나가 많다는 뜻을 갖는다. 따라서 숫자 8(7+1)은 '플러스 1'의 의미를 갖는다. 숫자 7은 '완전' 또는 '거룩'을 뜻한다. 따라서 숫자 8은 '넉넉히 이긴다,' '이기고도 남는다,' '넘친다,' '넉넉히 구원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넉넉하고, 넘치며, 살림과 구원이 되실 뿐 아니라, 삶에 플러스를 주신다는 뜻이다.

새천년시대에서 가난한 자들이 받을 복

예수님의 팔복은 유대교의 계명들을 폄하하거나 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문자적이고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한데 반해서 예수님은 본질적이고 영적인 뜻을 강조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들이 갖는 본래적 의미를 끄집어내 완성시켜주셨다. 그것을 깨닫고 수용한 사람들이 초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다.

유대인들은 600여 년간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채 강대국들에 차례로 지배를 받아오다가 주후 70년부터 1948년까지 나라 없이 남의 나라를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인 유대교는 철저하게 현실중심, 팔레스타인중심, 예루살렘과 시온과 지상의 성전중심이다. 그들이 희망('하티크바')하는 하나님의 나라 '올랍하바'(장차올 세상)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땅에서 이뤄질 지상의 나라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현실보다는 이상, 이 땅보다는 저 천국에 목표를 뒀다. 헬레니즘의 영향도 있었지만,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의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삶의 목표를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목표를 뒀다.

유대교인들은 지상의 모든 것을 정한 것(kosher)과 부정한 것(treyf)으로 나뉘었으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일지라도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한 천한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보았다. 이들 부정한 사람들과 교제를 끊고 멀리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룩함 또는 의로움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령을 언급하시는 것은 했지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다.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고 하셨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 물질의 변영과 명예와 권세를 복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유대인들을 고려하여 마음의 가난을 강조했다. 하지만, 가난한 이방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던 누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므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눅 6:20)라고 심령을 빼고 적었다. 게다가 누가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눅 14:13,21)이 장차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들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마 11:5, 눅 7:22)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마 19:21, 눅 18:22)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소개되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가난은 불편한 것일 뿐, 결코 부정하거나 죄가 아니며, 가난한 자들은 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위로의 대상임을 선언한 것이지, 가난을 찬양한 것이 아니다. 가난이 좋을 리가 만무하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이 다가올 새천년왕국시대에서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요 6:35, 계 7:16). 또 부자라도 자신을 비우지 아니한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몸과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차 있으면 영적인 복락을 담을 수 없다. 인간

의 것을 비우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 세상을 버리면 천국이 찾아온다.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크게 가졌어도, 그것들을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들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정신을 갖는 것, 또 그것들은 자기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비로 베푸신 것이며,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라는 명령으로 받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천국을 소유할, 복 있는 자들이다.

8. 새천년시대에서의 팔복(마 5:3-12)

마태복음의 구조적 특징

마태복음의 특징은 암기에 의존했던 1세기말의 신앙인들이 복음서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5개의 설교를 서로 대칭이 되도록 배열한데 있다. 5개의 설교란 5-7장의 8복과 산상수훈, 10장의 파송설교, 13장의 천국비유 8개, 18장의 교회질서에 관한 설교, 24-25장의 종말비유 8개를 말한다.

마태복음이 5개의 설교를 중심으로 기록된 이유는 모세오경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으로 또 성경들 중의 성경이라고 믿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자 메시아이신 것과 기독교복음이 유대교율법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모세의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하려한 때문이다. 모세오경을 책들 중의 책, 성경들 중의 성경으로 믿는 유대인들에게 오경구조는 흔히 있는 문학적 관례였다. 예를 들어, 시편은 5권으로 나뉘져 있고, 각 권이 비슷한 찬양문구로 끝나고 있으며, 에스더, 예레미야애가, 룻, 아가서, 전도서는 메길롯(Megilloth)이라 불린 5개의 두루마리들이었고, 학자들 중에는 잠언과 요한계시록, 외경인 집회서와 에녹서가 오경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마태복음의 5개의 설교는 각각에 심판과 보상에 관한 말씀과 “말씀을 (또는 비유를) 마치시매”란 종결문구를 담고 있다. 5개의 설교들 가운데서 13장에 나오는 8개의 천국비유가 마태복음의 핵심이자 중심축이다. 마태복음은 이 13장을 축으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대칭구조로 되어있어서 전반부의 내용과 후반부의 내용은 서로 대칭되는 짝을 갖고 있다. 중심축인 13장의 8개의 비유들은 천국의 본질과 성격을 설명한 것이고, 앞에 실린 5-7

장의 산상수훈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이것에 대칭을 이룬 24-25장의 8개의 종말비유는 천국이 임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10장의 파송설교는 천국의 시작을, 이것에 대칭을 이룬 18장의 교회질서에 관한 설교는 천국의 발전을 다루고 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비유가 복음서의 중심축이 되도록 구성한 것은 천국이 이 복음서의 화두이기 때문이다. 이미 밝힌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활동하실 당시 6백년간이나 나라를 빼앗긴 채 고단한 떠돌이의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간절히 희망할 뿐만 아니라, 장차올 나라가 신정국가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였으며, 문자적으로 회복된 이스라엘국가였다. 그런 관계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 곧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그 나라의 성격과 본질이 무엇인지, 유대인들이 기대한 것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것인지를 선포하셨고, 마태는 이 예수님의 천국복음을 오경구조로 구성하여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해시키려하였다. 예수님은 문자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임하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인 교회가 지상과 낙원에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다. 또 장차올 문자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회복된 이스라엘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셨다.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뿐만 아니라, 설교들 앞에 도입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도 13장의 천국비유를 중심축으로 하여 전후반부의 내용이 서로 짝을 이뤄 대칭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유대교인들의 윤리의식과 문제점

일상의 행동과 실천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가장 명확하게 구별하여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다. 유대교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윤리의식이 강하고 가장 율법적인 사람들이

다.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의 형체를 갖지 못한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모세오경)를 갖고 있다. 토라에는 613개의 계명들이 있고, 그 계명들을 범하지 못하도록 랍비들이 제정한 별도의 율타리(해석)법들과 관습법들이 있다. 유대교인들은 그것들을 잘 지켜야 다가올 세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 비록 지금은 성전과 성전예배가 회복되지 않아서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다가올 메시아 왕국이 재건되면, 613개의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유대교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왕국이란 문자적인 것으로써 회복된 이스라엘나라를 뜻한다. 따라서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천국 즉 지상의 교회나 천상의 낙원 또는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지 않는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유대교인들에게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토라(Torah)라 불리는 모세오경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하라”와 “하지 말라”고 명하신 613개의 계명들(mitzvot)이 있다. 또 그 계명들을 우발적으로 혹은 실수로 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랍비들이 제정한 수많은 율타리 법들(gezeirah)과 관습법들(takkanah와 minhag)을 갖고 있다. 이 법들 즉 일상의 행동과 실천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모든 규정과 시행세칙들을 통틀어서 유대교인들은 할라카(Halakhah)라 부른다. 할라카는 “사람이 걷는 길”이란 뜻이다. 할라카에는 일상의 모든 것, 그것이 세속적이든, 종교적이든,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행하는 모든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입을 수 있는 것과 입을 수 없는 것, 손 씻기법, 그릇 씻기법, 몸치장법, 업무 보는 법, 결혼법, 이혼법, 농사법, 성결법, 축일들과 안식일법, 하나님과 이웃과 동물과 사물을 취급하는 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규제하는 법들이 포함된다.

예수님은 8복에서 다가올 세상에서 복을 받을 자들, 즉 천국을 소유할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유대교지도자들이 가르쳤던 대로 613개의 계명들과 수많은 율타리 법들을 잘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토라의 계명들을 무시하거나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마 19:17)고 하셨고, 바울도 “율법도 기록하며 계명도 기록하며 의로우며 선하다”(롬 7:12)고 하였다. 예수님이나 바울은 하나님의 계명들에 문제가 있거나 그것들을 준수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계명들을 이해하고 지키는 방법들에 분명히 문제들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들이 왜곡되고 오용되는 것을 바로 잡으려고 힘쓰셨다. 유대교인들의 문제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613개의 계명들에서 비롯되지 않고, 그 계명들이 가진 본래의 뜻과 취지에 어긋난 율타리(해석) 법들을 셀 수 없이 많이 만들어 오랜 관행으로 지키는 데서 비롯되었다. 예수님께서 문제를 삼으셨던 유대교의 문제점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에서 비롯되지 않고 랍비들이 만든 이들 율타리 법들과 관습법들에서 비롯되었다.

새천년시대에서 누릴 8복

하나님이 토라를 통해서 주신 613개의 계명들에 추가된 수많은 율타리 법들과 관습법들은 유대교인들을 율법주의로 만들고 폐쇄적인 족쇄에 묶이게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율법들을 지켜왔지만, 살림의 일보다는 죽임의 일, 질서의 일보다는 혼돈의 일, 빛의 일보다는 어둠의 일, 생산적인 일보다는 소모적인 일을 더 많이 하였다. 따라서 당대의 유대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외식과 자기우상에 빠졌다는 것이 예수님의 판단이었다.

유대교인들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 세리,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들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고 위로하기보다는 교제를 금하고 멸시하고 천대시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40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다. 또 23

장 23절에서는 유대교인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비난하셨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12절의 8복에서 강조하신 것이 바로 유대교인들이 버린 사랑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었다. 이들 8복을 친히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따라서 이들 8복에 언급된 자들 곧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일차적으로 예수님 자신이셨다. 8복에 언급된 복을 누린 자 곧 천국을 소유한 자, 위로를 받은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 배부른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자,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은 자도 역시 일차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이셨다.

예수님은 민중을 사랑하셨다. 가난하고, 애통해 하며, 목자 없는 양떼처럼 방황하는 민중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늘 가난하셨고, 애통하셨으며, 온유하셨고, 긍휼히 여기셨으며, 민중이 희망하는 정의와 평화에 늘 굽주리셨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 박해를 받으셨으며, 기어코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셔서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대가로 하늘 낙원에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못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기록하심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받을 복도 예수님이 이루시고 받으신 8복과 동일하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고 약속하셨다. 또 계시록 3장 21절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8복에서의 복은 종말론적인 것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미'받아 이 땅에서 누리는 영적 축복과 '아직' 받지 못한 내세의 문자적인 축복을 포함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요, 이생과 내생에서 8복을 누릴 자이다.

9. 새천년시대의 윤리기준 1(마 5:13-48)

새천년시대를 위한 산상수훈

복음서 저자들마다 강조하는 예수님의 특징이 조금씩 다르다. 마가는 ‘~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특히 헤라클레스처럼 능력에 권위가 있으신 분으로 소개함으로써 고난에 처한 교회와 성도를 능히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으신 분으로 강조하였다. 누가는 예수님을 성령님이 충만하신 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는 분, 자주 배척을 받으셨지만, 극복하시고 승리의 영광을 쟁취하신 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분으로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을 성도의 모범으로 강조하였다. 요한은 예수님을 창세전부터 존재하셨던 분,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신 분, 하나님의 계시자, 독생하신 하나님, 빛과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였다. 반면에 마태는 예수님을 구약의 모세와 율법보다도 더 권위가 있으신 분, 특히 말씀에 권위가 있으신 분으로 소개함으로써 예수님과 기독교복음이 모세와 유대교율법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산상수훈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뿐만 아니라, 마태는 예수님을 ‘~보다 더 큰 이’로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11:11), “성전보다 더 큰 이”(12:6), “요나보다 더 큰 이”(12:41), “솔로몬보다 더 큰 이”(12:42), 다윗보다 더 크신 분(22:45)으로 강조하였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문자적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교회 즉 지상천국의 성도들이 진리와 불법이 혼재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높은 차원의 윤리적 삶의 기준들이다. 그 내용이 크게 5개 즉 8복(5:1-12), 구약법과 신약법의 차이(5:13-48), 바른 신앙생활(6:1-34), 순전한 삶의 원리(7:1-12), 결론(7:13-27)으로 나뉜다.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순수하고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동시에 이 세상나라와는 담을 쌓고 사는 메노나이트 그룹, 특히 아미쉬와 같은 평화주의자들은 산상수훈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를 원한다. 메노나이트 그룹이 아니더라도, 사랑에 기초한 평화주의자 톨스토이, 비폭력불복종운동을 펼친 간디와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도 산상수훈에 깊은 영향을 받은 자들이다. 산상수훈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일반 평신도가 아닌 종교지도자들과 금욕생활을 하는 수도사들에게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가톨릭주의자들이 있는가 하면,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산상수훈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 은총을 간구해야 한다는 루터주의자들도 있다. 또한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 재림 후에 문자적으로 회복된 '올라야 할 바' 곧 이스라엘나라에서 지켜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시대구분설자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의 교회 즉 지상천국의 성도들이 진리와 불법이 혼재하는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인 삶의 기준들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산상수훈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울이 언급한대로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점진적으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높은 윤리기준에 도달하려는 선의의 노력들을 할 수 있다. 선의(善意)란 구원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고, 성령님으로 도장 찍음과 보증금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에서 비롯된 것을 말한다.

새천년시대의 착한행실

마태복음 4장 16절을 보면, 메시아의 출현은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었다. 마태복음 5장 13-16절에서 예수님은 새천년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

다. 예수님이 큰 빛을 비취시고 위대한 맛을 낸 소금이셨다면, 그분의 제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빛과 소금들이다. 예수님은 소금이 맛을 잃지 않아야 하며, 등불은 사람을 비출 수 있는 곳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권면하셨다. 또 예수님은 16절에서 소금의 맛과 등불의 빛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3-12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지적하셨다.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것, 애통해 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을 청결히 하는 것,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이요, 소금의 맛이며, 빛의 일이다. 이런 일들을 행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약속하신 8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조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예수님께서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낮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좋은 의(義)는, 다름이 아닌 앞에서 열거한 8가지 것들, 즉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것, 애통해 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을 청결히 하는 것,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다. 이 8가지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17절의 말씀처럼,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요, 18절에서처럼, 율법의 일점일획까지 빠짐없이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40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義)는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지상의 모든 것, 동식물은 물론이고, 음식과 물건들까지도 부정한 것(treyf), 정한 것(kosher), 거룩한 것(kodesh)으로 구분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하고, 거룩해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합당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유대교인들은 정한 것만 먹고 정한 것만 사용한다. 이런 이

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유대인들일지라도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한 천한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보았다. 이들 부정한 사람들과 교제를 끊고 멀리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룩함(kodesh)이고 의로움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유대교인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비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12절의 8복에서 강조하신 것이 바로 유대교인들이 버린 사랑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었다. 그러므로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화평케 하는 일을 하며, 이를 위해서 핍박까지 감수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좋은 의로움이다. 또 이 8가지 행실을 제대로 하는 것이, 48절의 말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새천년시대의 신약법(新約法)

마태복음 5장 21-48절까지의 말씀은 구약법(舊約法)과 신약법(新約法)의 차이를 설명한 글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십계명 가운데 제3,6,7계명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그밖에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과 피의 보수법(報酬法)에 대해서 언급하셨다.

21-26절에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확대해석하여 남을 미워하거나 욕하는 것, 남에게 원망을 받을만한 작은 일조차도 지옥에 떨어질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큰 잘못만 잘못이고 작고 소소한 잘못들은 잘못이라고 생각지 않는 도덕불감증을 지적하신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살인죄 못지않은 죄가 된다.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을 이용수단으로 삼거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비도덕적이라고 하였다.

27-32절에서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을 확대해석하여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영혼과 그 영혼을 담는 그릇인 육체의 순

결을 기뻐하신다. 임마누엘 칸트는 간음에 반대하였는데, 간음은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상대방을 성욕충족의 수단으로 삼으며, 인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사람의 몸은 개인재산이 아니므로 자기 멋대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목적으로 삼아야지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33-37절에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는 제3계명을 확대해석하여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 제3계명의 내용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인데, 유대교인들은 이 계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 혹은 경박한 맹세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망령되게’로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 ‘거짓말’을 뜻한다고 한다.

38-42절에서 예수님은 동해보복법과는 반대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다. 정의란 단어의 원뜻만 고려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처럼,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보복정의의 원뜻만 고려한다면,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대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출 21:23-25) 갚는 것이 정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정의로 보시지 않았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의라고 여기셨다.

43-48절에서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피의 보수법에 반대하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다. 아랍인들의 복수의 집념은 대단하다고 한다. 누군가가 살해당하면 그 피살자의 친인척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복수의무를 지니게 되며, 이 복수의무가 주어진 혈연집단을 ‘카므사’라고 부른다. 만약 복수하지 못하면 그 카므사의 명예는 형편없이 추락하여 그 카므사와는 교역도 결혼도 기피한다고 한다. 이런 ‘피 보상’의 개념이 유대인들에게서는 ‘고엘 하담’이란 말로 나타난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를 피로 갚으라.’는

사막의 계율을 바꿔서 '피를 용서로 갚으라.'고 교훈하셨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यो, 그분의 온전하심을 이루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10. 새천년시대의 윤리기준 2(마 6:1-18)

새천년시대의 구제법

구제는 유대교인들의 행위에 관한 율법에 속한다. 613개의 계명들 가운데 51-52번째 계명이 '쩌다카'(Tzedakah) 즉 구제(charity, 자선)에 관한 것이다(신 15:7,11).

유대인들은 가난을 선대의 죄나 자기 죄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죄인취급하거나 멸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구제나 자선을 베풀 때, 끌림 동기에 의해서 즉 마음이 끌렸거나 동정심 때문에 행하지 않고, 의무동기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행하였을 것이다. 의무감에서 행한 그들의 구제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평가를 빌리자면, 마음이 끌려서 혹은 동정심 때문에 행한 것보다 더 높은 도덕을 실천한 것이 된다. 마음에 내키든지 내키지 않든지 구제가 이뤄져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구제를 문제 삼아 말씀하신 이유가 613개의 계명들 가운데 51-52번째인 '쩌다카'(Tzedakah) 즉 구제에 관한 계명들을 의무감에서 마지못해서 실행한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문제를 삼으신 것은 14절에서의 말씀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거리에서 떠벌리고 자랑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회당과 거리란 5절의 말씀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1-12절에서 이런 행위자들을 일컬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하셨다. 그들은 사람이 많은 성전의 뜰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라고 기도하는 자들이었다.

유대인들은 세금을 제외한 수입의 10분의 1을 구제로 사용할 뿐 아니라, 집집마다 ‘푸쉬케’(pushke)라 불리는 상자를 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동전을 수집한다고 한다. 구제(Tzedakah)는 회개(teshuvah)와 기도(tefilah)와 함께 유대인의 3대 의무이기 때문이다. 구제금뿐 아니라, 회당과 교육기관에 내는 기부금도 ‘쩌다카’에 포함된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제행위에는 8가지가 있다. 1)아까와 하면서 주는 것, 2)줄 수 있는 것보다 덜 주지만 즐겁게 주는 것, 3)달라고 해서 주는 것, 4)달라고 하기 전에 주는 것, 5)받는 자는 주는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주는 것, 6)주는 자는 받는 자가 누구인지 알지만 받는 자는 모르게 주는 것, 7)쌍방이 서로 모르면서 주고받는 것, 8)받는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 여덟 가지 가운데 처음 다섯 가지를 예수님께서 외식행위 또는 “상을 이미” 받은 행위로, 나중 세 가지를 상을 받게 될 옳은 행위로 지적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행을 베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구제나 자선을 베풀 때,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이 사람들한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분 것처럼 떠벌리지 말아야 한다. 구제나 자선을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만큼 은밀히 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 사람들에게 상을 받아버리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사라져 버린다.

유대교인들의 기도법

기도는 유대교인들의 행위에 관한 율법에 속한다. 613개의 계명들 가운데 22번째 계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라”이다. 여기서 “기도하라”는 “섬기라”(출 23:25, 신 6:13)는 계명에 대한 해석이

다. 탈무드에 따르면, “섬기다”는 “기도하다”를 뜻한다.

유대인이 암송하는 대부분의 기도문은 “복 받으시옵소서!”로 시작되거나 끝나는 ‘베라카’(berakah)이다. 축복이란 뜻으로써 무릎(Bet-Resh-Kaf)에서 유래한 말이다. 유대인들이 ‘베라카’를 낭송할 때 존경의 표시로 무릎을 굽히면서 절을 하기 때문이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100개 정도의 ‘베라카’를 매일 낭송한다고 한다.

유대인들은 ‘쉐마’(Shema)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되는 성구를 하루에 두 번 아침과 저녁에 낭송하며, 19개의 짧은 기도문이 담긴 ‘쉐모네 에스레이’(Shemoneh Esrei)를 오전 오후 저녁 매일 세 번 기도회를 통해서 낭송한다. 이 기도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치던 희생제물을 대신해서 바친다. 안식일과 특정 축일에는 별도의 기도나 기도회가 추가된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테필라’(tefilah)라 하는데, 성찰한다는 뜻이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기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카마나’(kavanah)라 부른다. 집중이란 뜻이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머리에 ‘키파’(kippa, 빵떡 모양의 모자)를 쓴다. 또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탈리트’(Tallit, 상체를 감쌀 수 있는 크기의 기도용 보자기)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보통 노래로 기도하면서 몸을 전후로 흔든다. 기도용 보자기 네 귀퉁이에 술이 달려있는데, ‘찌찌트’(tzitzit)라 불린다. ‘찌찌트’는 613개의 계명들 가운데 18번째로써 민수기 15장 37-41절에 근거하여 기도용 보자기와 상의 하단에 부착하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일부 유대인들의 행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마태복음 23장 5절을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란 비판적인 말씀이 있다. 여기서 경문의 띠란 613개의 계명들 가운데 19-20번째 계명들로서 이마와 팔에 매대는 ‘쉐마’ 성구를 넣은 작은 상자(Tefillin)를 말하고, 옷술은 ‘찌찌트’를 말

한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들을 크게 만들어 달고 다닌다고 비판하셨다.

예수님 당시, 5절의 말씀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 사람들은 할 일없이 기도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던 자들이었다. 생업에 매달리는 일반인들은 아니었던 것 같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는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와 병역을 거부한 채, 일부다처에 다산(多産)까지 하면서 국가로부터 주급 900세겔(약 27만원)을 받아서 생활하는 정통파 유대교인들이 국민의 3분의 1이나 된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약 60만 명에 이르는 극단적 정통파(ultra-orthodox) ‘하레딴’(Haredim)은 세속국가 이스라엘의 해체까지 주장한다. 진실성이 없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외면하신다. 6절에서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충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이 여기에 있다.

새천년시대의 모범기도

유대교의 613개의 계명들이 248개의 ‘~하라’와 365개의 ‘~하지 말라’로 이뤄진 것처럼,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을 구별해서 가르치셨다.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는 표내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며, 금식기도 때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고 하셨고, 해야 할 것으로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며, 먼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고, 금식기도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당부하셨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우리 아버지여”는 쉼모네 에스레이 5,6,19번에도 있다. 그러나 “아빠”(abba)는 유대교 기도문에 없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빠로 부르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과 바울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막 14:36, 롬 8:15, 갈 4:6).

주기도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서 “이름이 거룩히”는 켈레네 에스레이 3,18번에 비슷한 표현이 있고, 613개의 계명들 가운데 4,5번의 계명으로써 레위기 22장 32절에 근거한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그 이름’이란 뜻의 ‘하셈’을 자주 사용하였다.

주기도문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는 켈레네 에스레이 14,15번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다가올 문자적인 나라만 있을 뿐, 이미 임한 현재의 영적인 나라가 없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식한다.

주기도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켈레네 에스레이 9번에 비슷한 표현이 나온다. 이 표현은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란 뜻이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빵을 구하는 기도이다. 여기서 빵은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 인간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대표한다. 광야에서 히브리인들이 매일 내리는 만나에 의지하며 살았듯이, 매일 매일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서 살고 있다는 겸손한 고백을 담고 있다.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는 켈레네 에스레이 5,6번 기도에서 발견된다. 유대인들은 해마다 우리나라 음력 8월 또는 9월에 달는 신년(로쉬 하샤나)이 되면, 열흘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고, 또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 관행이다. 그러나 동해보복법이란 피의 보복문화에 젖어 살던 2천 년 전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기도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를 가르치셨다.

주기도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켈레네 에스레이의 결론 기도문, “나의 하나님 이시여, 악으로부터 나의 혀와 또 거짓되게 말하는 입술로부터

보호하소서.”에서 발견된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다. 늘 배교의 위협 속에 살고 있었다. 그들에게 신앙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가시밭길이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길고 오랜 유대교의 쉼모네 에스레이보다 내용이 뛰어나면서 간략하여 암기하기 쉬운 모범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유대교의 기도문들을 대신하게 하셨다. 마태복음보다 20년 정도 늦게 같은 지역 시리아에서 기록된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이 주기도문을 하루 세 번 하도록 지시한 것을 보아 주기도문이 하루 세 번하는 유대교의 쉼모네 에스레이의 대응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1. 새천년시대의 윤리기준 3(마 6:19-34)

새천년시대의 보물 쌓기

반복되는 말이지만, 유대교에서 복의 개념은 땅의 것이지, 하늘의 것이 아니다. 그것이 비록 장차울 세상에서의 지복이라 할 지라도 그렇다. 그들에게 있어서 장차울 세상이란 여전히 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복의 개념은 대부분 하늘의 것 혹은 영적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마태복음 6장 19-34절은 가장 중요한 십계명 제1,2계명, 즉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만들지도 말라는 계명에 영적인 의미가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는 재물을 우상시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에리히 프롬은 땅에 보물을 쌓는 삶을 소유 중심의 삶으로 정의하면서, 재물과 명예와 권력의 소유를 숭배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우상숭배라고 주장하였다.

보물은 재물이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일수도 있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우상일수도 있다. 재물은 꼭 필요하고 유익하지만, 사람의 혼을 속 빼놓을 수 있다. 재물을 땅에 쌓는다는 것은 재물을 우상시한다는 뜻이다. 재물을 땅에 쌓으면,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듯이, 아무리 많이 쌓아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 땅에 쌓은 재물과 소유주는 아침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질 뿐 아니라,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에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데려가시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눅 12:20)고 하셨다.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영적인 뜻이 담겨 있다. 보물

은, 1-18절과 연결해서 보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기도의 상급이다. 1-4절의 말씀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기도는 상급을 땅에 쌓아 도둑 즉 마귀에게 빼앗기는 어리석은 행위이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상급을 하늘에 쌓는 지혜로운 행위이다.

예수님은 21절에서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고 하셨다. 나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보물은 무엇인가? 또 그것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마태가 천국 즉 새천년시대의 개방과 관련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공부하고 있다. 천국 즉 새천년시대는 나의 보물 그 자체일 수 있고, 혹은 내가 찾는 보물이 묻힌 곳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내가 얻고자 하는 새천년시대는 무엇이며,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보물이 묻힌 땅을 산다고 예수님은 13장의 천국비유에서 말씀하셨다. 하늘의 것에는 전 재산을 걸어도 좋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내가 얻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땅의 것인가, 하늘의 것인가? 일시적인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 육적인 것인가, 영적인 것인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인가,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인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바리새인들은 땅의 것을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켰다. 이것은 24절의 말씀대로 두 주인을 섬기는 행위였다. 만일 재물과 명예와 권세가 나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면, 그것들은 이미 내게 주인과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질투를 받게 하는 것이다.

새천년시대의 성한 눈 갖기

예수님은 22-23절에서 몸의 등불인 눈이 성하지 못하면, 제 몸을 밝히 볼 수 없듯이, 재물과 명예와 권세에 눈이 흐려지면,

내면의 빛과 영안이 흐려져서 내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다고 하셨다. 심지어는 눈이 성한대도 보지 못한다고 하셨다(막 8:17-25). 보고 싶은 것에만 열리는 병든 눈이기 때문이다. 이런 병든 눈 때문에 혹은 성하지 못한 눈 때문에, 24절의 말씀처럼, 두 주인을 섬기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밝히셨다. 두 주인 모두로부터, 즉 하나님과 마귀 양쪽으로부터 질투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은, 그러나, 재물이 마귀에 속한 악한 것이라는 뜻이 아니다. 우선 순위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또는 상위에 두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보다 먼저 두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상이다.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지, 보물이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할 이유는 그것이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었다. 특히 사람의 의 내면에 정신에 본질에 영혼에 영원한 삶에 유익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란 말로 두 번이나 강조하셨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어리석은 맹인들이라고 질타하시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주하신 적이 있다(마 23:17). 그들의 가치관과 종교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리석은 맹인이 되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것은 신령한 하늘의 것이었다. 눈이 성하다는 뜻은 보이는 세계는 물론이요,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까지 볼 수 있는 영안을 말한다. 영안을 갖고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자만이 천국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을 설명한 글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23절에서 “네게 있는 빛이”(the light within you)란 표현을 쓰셨다. 우리가 육체적인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듯이 내 안에 있는 빛으로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다.

세상에는 영적인 또는 신령한 세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사물 또는 사건에 숨겨진 내면을 파악하여 그림이나 조각 또는 연극과 영화 등으로 걸출하게 빚어내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육신의 눈만으로는 파악이 안 되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들이 널려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신의 눈만으로는 사물을 제대로 본다고 말할 수 없다. 진실은 육신의 눈에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사물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악해낼 때만이 우리는 바로 보았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사건의 이면을 볼 수 있는 눈, 즉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영성의 눈이라고 부른다. 이 영성의 눈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빛이 약하면, 이 빛이 성하지 못하면, 볼 수 있는 것이 세상적인 것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다보면, 중국에는 허무(虛無)와 공무(空無)만 남게 된다.

새천년시대의 목숨보존하기

그러므로 예수님은 25절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면,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목숨”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 또는 영원한 생명을 말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처럼 잠시 살다가 죽게 될 육신을 위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영생을 보장해줄 하나님의 나라 즉 새천년왕국과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힘쓰라고 말씀하셨다. 잠시 살다가 떠나게 될 이 땅에서야 어떻게든 살아가지지 않겠느냐? 뭐 그것이 대수냐?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매일의 양식과 의복을 주시지 않느냐? 비록 당장은 가진 것이 없고 궁핍하지만, 그렇다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있느냐? 뻥

과 재물을 추구하기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목숨에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영원한 생명에 필요한 것까지 공급받게 될 것이다. 육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다. 그들이 구한 표적은 다름이 아닌 해방이었다.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의 노예속박에서 해방시켜 광야사막으로 이끌어내어 매일 40년간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먹게 함으로써 배고픔에서 해방시켜준 것처럼, 그들을 로마의 노예속박에서 해방시켜 다윗의 영광을 되찾게 하여 주며, 하늘로부터 빵을 내려 먹게 함으로써 배고픔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 것은 당신이 과연 메시아인지, 우리를 로마제국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줄 자인지, 지속적으로 빵을 주어 배고픔에서 해방시킬 있는 자인지를 입증하라는 것이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달라고 요구한 것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한 것 사이에 큰 격차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유대인들이 구한 것은 지금 당장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달라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주시고자한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었던 것이다. 유대인들이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은 정치와 경제 문제였지만,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것은 천국과 생명의 양식이었다.

눈이 성한 자들은 예수님이 주시고자한 천국과 영생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눈이 성한 자들은 천국 발에 감춰진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전 재산과 목숨을 바치게 된다. 그러나 어리석은 맹인들은 진가 또는 참 가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땅의 정치문제와 경제문제에만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바울이 기독교의 박해자에서 옹호자로 바뀌게 된 것은 예수님

이 주시고자했던 것의 진가를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표적을 구하던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지혜를 찾던 헬라인들이 어리석게 생각했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깨달음과 성한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

12. 새천년시대의 윤리기준 4(마 7:1-29)

새천년시대에 합당치 못한 자들

마태복음의 이해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대립각을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십계명 제9계명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와 맞물리는 계명이다. 말의 위력으로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계명이다(출 20:16). 유대인들은 제9계명이 말로써 짓는 모든 죄(lashon ha-ra)를 금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점을 분명히 밝혀주는 계명이 레위기 19장 15-18절의 말씀이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비판은 하되, 불의한 비판, 편협한 비판, 거짓된 비판, 남을 해하려는 비판, 자기 유익을 위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잘못이 있다면 진솔하게 책망은 하되 이웃사랑하기를 자신에게 하듯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613개의 계명들과 안식일법, 손 씻기법, 음식법, 그릇 씻기법, 성결법, 기도와 금식과 십일조와 같은 장로들의 유전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세리들, 창기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고압적이었으며, 자만심과 우월감에 차 있었다. 그래

서 그들은 유대교의 종교법대로 살지 못하는 이방인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세리들, 창기들을 죄인 취급하여 그들과의 접촉을 거부하였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셨다. 사람들을 재판하고 비판하는 위치에 선 자들이란 뜻이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정일에 금식하지 않는 것,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 귀신을 내쫓으신 것 등을 비판하였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며 중상을 일삼았고, 어떻게 하면 울 무를 놓아 예수님이 걸려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체포하여 죽일까를 모의하였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는 자, 난채 하는 자, 높은 자리와 섬김 받기를 탐하는 자, 천국 문을 가로막고 선 자, 교인을 오히려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자, 화를 당할 자,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 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 자, 눈은 있지만 소경인 자,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자,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자,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 지옥의 판결을 면치 못할 자라고 마태복음 23장에서 책망하셨다.

새천년시대에 함당한 자들

“외식하는 자”란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주로 쓰였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쓰셨다. 정의와 사랑과 믿음은 없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과 가식으로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런 자들은 세상에서 득세하여 명

예와 권세와 재물을 누리지만, 또 힘없고 배경 없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알보고 죄인 취급하지만, 다가올 새천년시대에는 합당치 않고, 오히려 힘없고 배경 없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대우받게 될 것을 암시한 것이다. 천국에서 대우를 받을 자들은 명예와 권세와 재물이 많은 자들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 긍휼히 여기는 자들, 마음이 청결한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다.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자들, 위로받을 자들,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 배부를 자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들, 하나님을 불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자들, 큰 상을 받을 자들이다.

민중을 재판하는 자리에 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눈에 커다란 들보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눈에 들어간 작은 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해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 긍휼히 여기는 자들, 마음이 청결한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을 판단할 자격을 상실한 자들이다. 새천년왕국에서는 그들이 멸시하고 알보고 비난했던 자들로부터 오히려 비난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마 8:12). 이것이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마 24:51)이라고 말씀하셨다.

들보와 티는 집을 지을 때 쓰이는 큰 나무와 거기서 나온 톱밥 정도의 차이, 즉 하루살이와 낙타(마 23:24) 또는 똥 묻은 개와 겨 묻은 개 정도의 차이로 이해될 수 있다. 진실이 매우 분명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장법이다.

예수님은 종종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어리석은 맹인으로 질타하셨는데, 5절에서처럼, 들보 때문에 영적인 것을 밝히 볼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먼저 눈에 낀 들보부터 빼내야 했다. 그들의 들보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거짓과 외식일 수 있고, 그들을 족쇄에 채워 깊은 동굴에 가둠으로써 진실을 밝히 보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음일 수

있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일 수도 있다. 그 같은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영원하고 신령한 하늘의 가치들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 어리석은 맹인들에게 값진 것을 주지 말라는 말씀이 6절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는, 7-11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다.

새천년시대에 입문할 자격

십계명을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요약하셨던 예수님은 12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하셨다. 이웃들의 사소한 잘못들을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대접하고,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좁은 문 즉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13-14절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씀하셨다.

톨스토이는 <대자>에서 의식주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남의 마음을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청결한 걸레가 되는 사람을 수행자로 보았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않고(마 6:25),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를

(마 6:33)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참 제자로 보셨다. 또 톨스토이는 생사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든든한 버팀목처럼 자신을 단단히 고정하는 자를 수행자로 보았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를(마 16:24) 좁은 문 또는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참 제자로 보셨다. 또 톨스토이는 물에 젖은 생솔가지조차 활활 태워버리는 강한 밀불처럼 뜨거운 사랑을 가진 자를 수행자로 보았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또 “뺨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를(마 5:44)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참 제자로 보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들의 열매를 보라고 당부하셨다. 16절과 20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17절). 그러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쏘시개가 되고 말 것이다(19절). 좋은 옷을 입고 거룩한 채 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겉모습이 화려하고 멋있고 순한 양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노략질하는 이리라고 하셨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당부하셨다(15절).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은 다가올 세상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다. 새천년시대에 입문할 수 있는 자격은,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셨다. 22-23절에서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새천년시대가 임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24절), 마치 노아의 여덟 식구처럼 지혜로워서, 마지막 심판을 견디고 구원을 받지만(25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행

치 아니한 목이 뻗뻗한 자들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26절)고 말씀하셨다. 이런 자들은, 마치 노아의 때에 홍수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멸망한 사람들처럼, 마지막 날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라고 암시하셨다(27절). 우리 모두 새천년시대에 합당한 인물이 되어 그 세계에 입문하도록 하자.

13. 새천년시대를 여는 믿음 1(마 8:1-34)

마태의 복음서 기록방식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복음서 기록에 뜻을 품게 된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겠다는 목적에서보다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동포들에게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겠다는 목적에서였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신뢰하는 믿음은 새천년시대를 개방하는 능력이다.

마태는 주후 30년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되고 난지 15년 정도 지난 주후 45년경에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아람어로 복음서를 기록하였는데, 책을 보았다는 교부들의 증언만 있지, 아람어 복음서는 남아 있지 않다. 일부 학자들은 그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공통으로 들어 있는 예수님의 어록일 것으로 추정한다. 그들은 현재의 헬라어 복음서가 두 가지의 역사적 사건들 즉 주후 64년 로마에서 있었던 네로의 기독교 박해와 주후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한 직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마태복음은, 식민지 속주민의 권리마저 잃고 예루살렘 성지에서조차 추방되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마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처참한 상황에 처한 떠돌이 유대인들에게, 특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고 시내 산기슭에서 확약된 가나안 땅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으로 이뤄졌고, 또 문자적으로 완성될 것인지, 예수님의 말씀선포, 능력 행함, 죽음, 부활, 승천과 선교명령을 모세와 그의 사역들에 비교하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제2차 대구원사건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취되었고, 또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인지를

설명하였다.

제1차 대구원사건의 메시아였던 모세와 그의 사역들은 제2차 대구원사건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예표요, 그림자요, 모형이었다는 것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확고한 인식이었다.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 확고한 인식을 심어주고자 함이었다. 따라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행적들을 회상하고 선별하여 암기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편집하였다. 반복된 내용들과 유사한 내용들을 중심축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교차시키고 대칭이 되게 편집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글쓰기 방식이었다.

마태복음에 20개의 기적이 실려 있다. 그 가운데서 10개가 8장과 9장에 각각 5개씩 모아져 있다. 이 10개의 기적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모세보다 더 뛰어나시다는 것을 암시한다. 예수님의 주옥같은 산상수훈과 10가지 기적 행하심은 모세가 이집트의 노예생활로부터 히브리인들을 구출할 때 바로 왕 앞에서 펼쳐 보인 10가지 재앙과 시내산 율법을 생각나게 하며 비교하게 만든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과 선지자로 믿고 있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신 18:15)고 한 모세의 예언에 근거하여 장차 나타날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나와 같은 선지자” 즉 제2의 모세였다고 증언하는 것은 당연한 사명이었다.

믿음이 만든 기적들 1

2-4절은 나병환자를 고치신 기적이다. 레위기 13장에 제사장이 나병의 발병여부를 진단하고 처치하는 규례가 적혀있다. 제사장은 환부를 세밀하게 진찰하여 정(淨)한 지, 부정(不淨)한 지를 판단하였다. 만일 나병으로 판명되면, 환자는 부정한 자가

되며, 제사장 앞에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외쳐야 했다. 그 후 사람이 없는 외딴 곳에 떨어져 살아야 했다(레 13:45-46). 또 레위기 14장에 완치여부를 진찰하고 처치하는 규례가 적혀있다. 제사장은 나환자가 거처하는 곳으로 직접 가서 완치여부를 결정하였다. 만일 완치로 판명되면,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 규례에 따라 정결예식을 치렀다. 그 후 완치판결을 받은 자 또한 규례에 따라 속건 제물을 바쳐야 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말씀만으로 나병환자를 고치셨다. 그리고 레위기 14장의 규례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여부를 판정받고 속건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율법의 규례를 인정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나병을 고침 받은 사람이 정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조치를 취하신 것이다. 여기서 나병환자는 영적으로 부정한 죄로 인해서 버림받았던 사람이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백성이 되었음을 암시한다.

5-13절은 백부장의 집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신 기적이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었다. 그에게는 중풍으로 쓰러진 하인을 긍휼히 여기는 착한 마음과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에 놀라시며, 유대인들한테서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셨다. 새천년시대에는 백부장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 없이 천국백성이 되지만, 목이 뻣뻣한 바리새인 같은 불신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중풍병을 고친 능력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14-17절은 베드로의 장모가 앓던 열병과 귀신들린 자들을 고치신 기적이다. 마태는 모세오경을 최고의 경전으로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더 월등함을 강조하였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각종 질병과 귀신을 몰아내는 능력이다. 예수님께서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깊어지셨기 때문이다.”

18-27절은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진압하신 기적이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일지라도 광풍을 맞아 요동칠 때가 있다 그때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부르짖는 것이다. 예수님이 위기에 몰린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뿐이었다. 우리가 인생의 항해에서 광풍을 만나 자초위기에 놓인다할지라도, 믿음만 있다면, 광풍은 제압될 것이고, 기회로 바뀔 것이다.

28-34절은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들린 자 두 명을 고치신 기적이다. 귀신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온 것은 그 무덤들이 동굴이기 때문이었다. 귀신에 붙잡혀 무덤에서 거주했던 것이다. 이 처참한 무덤에 갇힌 상황, 그것이 종종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일일 수 있다. 예수님은 돼지 떼의 물적 가치보다 귀신에 붙잡힌 영혼들을 더욱 붙잡히 여기셨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약속받고 새천년왕국에 입문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

마태복음 8장의 다섯 개의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중요성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18-27절에 소개된 갈릴리 호수에 불어 닥친 광풍을 진압하신 예수님의 기적은 제자의 길이 고난과 죽음을 각오해야하는 험난한 길임을 강조한 것이다. 제자의 길을 걷다보면, 험난한 사막 길이 나타날 때가 있고, 위험한 바닷길이 나타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다면, 전혀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광풍진압의 기적은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포기할 각오와 가난해질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 둘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선순위를 알고 즉시 결단해야 한다는 것, 셋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

다. 광풍진압의 기적을 제자의 길에 관한 교훈으로 이해하려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건너편으로 가자는 말씀 때문이다. 갈릴리 호수는 늘 요동치는 험난한 세상의 대표이며 흑암과 죽음의 상징이다. 고대 그리스-로마세계는 큰물 즉 바다와 호수와 강을 죽음의 세계로 이해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로마신화에서는 사람이 죽어 음부의 세계로 가려면 비통의 강, 시름의 강, 불의 강, 망각의 강을 차례대로 건너야 했다. 망각의 강을 건너 후에는 낙원인 엘뤼시온(Elusion)으로 갈 사람과 지옥인 탈타로스(Tartaros)로 가야할 사람이 나뉘졌다. 그러므로 복음서에서 갈릴리 호수의 이편은 언제나 현세요, 저편은 내세 또는 새천년세계의 상징이다.

둘째,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자는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따르라”와 “따랐다”와 같은 말들은 제자의 길을 암시한 것이다.

셋째,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결단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각오도 없이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본회퍼는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는 제자의 부탁을 결단을 미루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를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즉시 결단하는 참 제자가 되라는 명령으로 이해하였다.

넷째, 20절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과 24절의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고” 그래서 25절의 죽게 되었다는 말씀에서 보듯이, 제자의 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다섯째,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며, 또 예수님께 도움을 간청할 의사가 있다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실 능력의 주님께서 저편 새천년시대로 무사히 인도하여 들이실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복음서에

서 교회를 상징하는 배는 종종 바람과 폭풍을 만나 고초를 많이 겪지만, 결코 좌초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6:33)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14. 새천년시대를 여는 믿음 2(마 9:1-8, 18-34)

믿음이 만든 기적들 2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란 말이 있다. 상승효과(相乘效果)란 뜻이다. '1+1'은 2이지만, 2보다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믿음이 만드는 기적이란 예수님의 능력에다가 병 고침을 원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기적을 말한다. 마태복음 8-9장에 소개된 10개의 기적이 모두 낮고자한 이들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이다. 새천년시대를 개방하는 원동력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들이다.

1-8절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이다.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이었는지, 침상까지 떠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둘 다 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고침을 받을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안심하라.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셨다. 유대인들은 병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은 아니지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즉 당신께서 오실 자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서기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다고 생각하였지만,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곧 그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실 자 메시아이신 것을 입증해 보이셨다고 볼 수 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육신의 병을 고쳤고, 영혼의 죄를 사함 받게 하였으며, 서기관들이 포함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란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시너지효과이다.

18-26절은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병을 고치고 또 어떤 공무원의 죽은 딸을 살리신 기적이다. 여인의 고질병을 고쳐내고 죽은 소녀를 살려낸 능력은 믿음이었다. 그 공무원은, 비록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딸의 몸에 손만 얹어주어도 살아날 것이라는 큰 믿음을 보였다. 죽은 아이가 ‘자고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예수님이 죽은 소녀의 손을 붙잡자, 그 소녀가 부친의 믿음대로 살아났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고통을 겪던 여인도 “제 마음에 그 겹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큰 믿음을 보였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인은 믿음대로 고질병으로부터 놓임을 받았다.

27-31절은 두 맹인을 고치신 기적이다.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이다. 메시아는 다윗왕국과 예루살렘성전을 회복시킬 왕이므로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오도록 예언되어 있었다. 두 맹인들은 예수님을 오실 자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것이다. 두 맹인이 “우리를 붙잡히 여기소서.”하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은 물으셨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자 그들은 “주여, 믿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였고, 그들은 시력을 회복했다.

32-34절은 귀신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기적이다. 귀신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것은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이다. 그가 예수님께로 오자 귀신이 쫓겨나고 혀가 풀렸다.

믿음과 죄 사함

믿음은 몸을 쓰지 못하고, 고질병에 신음하며,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다.

마태복음 9장의 기적들은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담고 있다. 예수님은 활동하실 당시 연령이 삼십대에 불과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성 환자에게는 “아들아,” 여성 환자에게는 “딸아”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 추측컨대 이 표현 속에는 예수님이 그들의 주님이시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아들과 딸의 개념은 노예를 소유한 자로서의 주인개념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의 주인개념이다.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아들아” 혹은 “딸아”라고 부르신 것은 36절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시달리며 허덕이는 군중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와 35절의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는 말씀에서 읽을 수 있듯이 예수님의 따뜻하고 온유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네 병이 나왔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전혀 예상치 못한 표현, 즉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셨다.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첫째, 인간의 모든 불행과 죽음의 원인이 아담의 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죄는 분명히 만병의 근원이다. 그렇다고 모든 불행이 죄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병을 갖고 태어난 갓난아기들처럼 죄가 없이도 불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 때문에 걸리는 질병도 많다. 그러므로 원죄든, 자기 죄든, 죄가 질병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예수님만 아시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병자가 예수님을 뵈었을 때 마음으로든 구술로든 “선생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는지도 모른다.

둘째,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영적이고 내면적이며 근원적인 것보다 피상적이고 형식적이며, 문자적인 것에 치중하였고, 육체구원 못지않게 영혼구원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이미지는 정치적 군사적이었기 때문에 그가 병을 고치거나 죄를 사한다는 개념이 없었다. 그런 그들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다.”는 새천년시대의 메

시아 상(像)을 새롭게 각인시키는 의미가 있었다.

셋째,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즉 사람의 아들로만 인식했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지를 못하였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란 따름과 실천의 대상일 뿐이었지, 예배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었다. 정치적 군사적 혁명가일 뿐이었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한분만을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신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란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게 해줄 모세와 다윗과 같은 영웅이었지, 그들의 죄를 사해줄 구세주이거나 성육신하신 독생자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와 “네 죄 사함을 얻었다.”는 예수님이 따름과 실천의 대상만이 아니라, 예배와 섬김의 대상도 되시고, 또 사람의 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도 되시며,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으시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은 말씀이다. 유대인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메시아 상(像)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있었던 비밀이었다.

믿음의 권능

믿음은 변화의 힘이다.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키는 근원이시고, 예수님은 그 변화를 우리의 삶속에 가져오는 통로이다. 예수님께 채널을 맞추면 하나님과 연결된다. 북두칠성에 눈을 맞추면 북극성을 찾을 수 있고, 북극성을 찾으면 동서남북을 알 수 있는 것과 같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연결된다. 하나님께 연결되면 긍정의 변화, 곧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믿음은 변화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힘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히 11:6).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인간 메시아로 믿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란 신성까지 믿는 것을 말한다.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

주란 사실은 물론이고, 메시아란 사실조차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들에는 두 가지 상반된 면이 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즉 신성을 입증하는 표적이었다는 점과 그분에게 병을 고치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고, 다른 것은 사람의 아들 메시아란 것을 입증할만한 표적을 보여 달라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마 12:39,16:4) 고한 것이다. 이 상반된 의견은 예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영육의 질병을 고칠 수 있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메시아인 사실조차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시험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불신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도올 김용옥은 <기독교성서의 이해>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예수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난 후에 사람들이 믿음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로 기적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다. 기적은 구경이나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한 마술을 본들, 마술은 마술일 뿐이다. 그것이 마술이 아니라 진짜 기적이라 해도, 그러한 마술 같은 기적들은 그냥 기적으로써 아무 의미 없이 우리의 의식세계를 지나간다. 그것은 단지 ‘희한한 구경거리’였을 뿐이다.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없다면 기적은 그냥 ‘놀라운 사건’(astonishing events)일 뿐이다. 기적의 광경은 반드시 믿음과 함께 일어나야 한다.”

도올의 이 말은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기적을 보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기적을 볼 수 있다. 도올은 이런 말도 했다.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꼬나보는 자들은 결코 기적을 볼 수 없다. 오히려 나의 한계를 절망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

에게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을 때만이 기적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이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은 믿는 자를 도우신다는 것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메시지는 구원하는 힘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다는 점을 밝혀준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들의 삶속에 끌어들이는 권능이 믿음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15. 새천년시대를 위한 새 패러다임(마 9:9-17)

패러다임의 전환

예수님보다 100여년 후에 태어난 이집트인 천문학자 프톨레미(Ptolemy)는 150년경에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을 주장하였다. 이 천동설이 1,500년대 종교개혁 당시까지 1,400여 년간 지배적인 우주관이였다. 유럽에서 개신교 운동이 한창이던 때에 폴란드인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Copernicus)는 우주의 중심이 태양이며,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하여 근대 자연과학에 대전환을 가져왔다. 이것을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라고 부른다. 기존의 사고의 틀, 가치관, 세계관을 확 바꾼 것이었다. 당시에는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를 포함해서 다수였다. 옳은 소수가 그릇된 다수에 의해서 이단자로 매도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코페르니쿠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도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이처럼 틀이 바뀌는 것을 일컬어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이라고 부른다.

예수님은 기존의 패러다임(paradigm)에 도전하셨다. 패러다임이란 사람, 사물, 사건을 보고, 문제 삼고, 해결하는 틀, 특히 오랜 전통, 고정관념, 가치관, 세계관 등을 말한다. 예수님은 새천년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강조하셨다. 지구 본래의 지층에 오랜 세월 빗물과 바람 등에 쓸려 퇴적물이 쌓이면, 그 위에 다른 지층이 생기고, 그 지층을 또 다른 지층이 덮고, 또 덮고 하면서 물결 모양의 겹겹의 지층이 생긴다. 따라서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는 본래의 지층이 흙속 수 미터 아래에 묻히게 된다. 그래서 발로 밟고 선, 눈에 보이는 표층밖에 모르는 사람은 표층을 본래의 지층으로 믿는 오류를 범할 것이다. 마찬

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민족에게 주신 본래적인 토라 613개의 계명들 위에, 예수님 당시 이미 천년이 넘는 오랜 세월 속에서, 랍비들이 첨가한 퇴적물들이 쌓여 만들어진 유대교 전통이 마치 본래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곡해한 잘못된 전통이 유대교에 깊게 뿌리를 내렸던 것이다.

16-17절에서 예수님은 천년이 넘는 묵은 누룩, 장로들의 유전, 유대교의 전통, 곰팡이 균이 핀 묵은 포도주, 기존의 낡고 폐쇄적인 사고방식, 가치관, 세계관이 예수님께서 개방코자하시는 새천년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새로운 사상은 새 그릇에 담아야 한다는 뜻으로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담아야 한다거나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새 포도주는 숙성과정에서 가스를 발생시켜 부대를 팽창시킨다. 이때 낡고 약해진 부대는 터지고 만다. 낡은 옷에다 새 천을 대고 길이면 새 천이 낡은 천을 잡아당겨서 찢어지게 된다.

이처럼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거나 낡은 옷에 새 천을 대고 길이면 문제가 생기듯이, 시대에 뒤진 폐쇄적 율법주의로는 혁신적인 복음주의를 수용할 수 없다. 예수님의 사고(思考)는 복음적이었다. 복음적이란 신뢰와 믿음위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고, 죽어가는 것을 살려내며, 닫힌 것을 개방하고, 갇힌 것을 풀어주며, 탕자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이 복음적 믿음과 가치를 담기 위해서는 폐쇄적 사고방식, 낡은 형식주의, 죽임의 율법주의, 낡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버려야 한다.

유대교의 금식 전통

유대인들은 새해 첫날인 '로쉬 하샤나'에 시작하여 대속제일인 '욘 키프르'까지 10일 동안 지난해에 지은 죄와 허물들을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기간에 본인의 죄와 허물을 반드시 용서받아야 하지만, 남의 죄와 허물도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 그리고 대속제일은 지난해에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받느

나 마느냐와 생명책에 본인의 이름이 기록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심판의 날이며, 책이 인봉되는 날이기 때문에 또 이로써 신년 한 해 동안 복을 받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24시간 금식하며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다. 참고로 유대인들의 새해는 우리나라의 음력 8월 1일 또는 음력 9월 1일에 시작된다.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국가나 개인에게 중대한 일이 생겼을 때 금식했다. 국가적으로는 전쟁이나 기근과 같은 위기에 닦혔을 때 금식을 선포하였다.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뿐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부분 금식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매주 이틀씩 금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대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모세오경인 토라를 낭독한다. 이 전통을 '타카나'(takkanah)라 부르는데, 613개의 계명에는 없지만, 랍비들이 정한 관습법을 말한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토라를 읽도록 결정한 사람은 에스라였다고 한다. 둘째, 모세가 40일간 금식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었고, 금식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었다고 한다. 셋째, 월요일과 목요일은 예루살렘에 장이 서는 날이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서 영광을 얻으려고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을 흉하게(마 6:16) 했던 것 같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유대교 전통에 따라 바리새인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적잖게 놀라며 예수님께 물었다. 예수님은, 15절에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때에는 금식할 것이다.”고 답변하셨다. 성경시대의 혼인잔치는 상당히 여러 날 즉 일주일 내내 지속되었던 것 같다(창 29:27, 삿 14:12). 따라서 혼인잔치 기간인 7일간은 금식하는 일과 경문(유대인 남자들이 기도할 때 이마와 팔뚝에 붙들어 매던 쉼마 성

구를 담은 트필린 상자)을 차는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한다.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깨지 않기 위한 배려였던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셨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은 금식할 필요가 없고 신랑을 빼앗길 날에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신랑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다고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암시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은 금식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짧은 생애 기간에 천국복음을 선포하셔야 했으므로 금식할 시간이 없다는 뜻이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처럼 규칙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선교사를 파송할 때, 장로를 택하여 불박이 목회자로 세울 때 금식 기도하였다(행 13:2-3, 14:23). 예수님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고, 때로는 금식도 하셨다.

유대교의 음식 전통

예수님 당시 세리들과 이방인들은 죄인들로 취급되었다. 10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리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먹었던 “세리와 죄인들”은 다름 아닌 세무공무원들과 이방인들이었다. 당시 세무공무원들은 정복자 로마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당연히 세리들은 이방인들을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었다.

기존의 낡은 생각과 관습은 세리들과 이방인들을 멀리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었다. 유대교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不淨)한 것, 정(淨)한 것, 거룩한 것으로 나눴고, 부정한 것(treyf)을 멀리하고, 정한 것(kosher)을 가까이 하는 것이 거룩한(kodesh) 삶이었다. 하물며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교제를 나눴으니, 바리새인들이 볼 때 어떻게 보였겠는가? 그것은 부정한 행위요, 힐난을 받아 마땅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비난했을까?

그것은 유대교의 잘못된 전통인 ‘카샤룻’ 음식법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은 유대교의 '카샤룻' 음식법을 깨는 범법행위였던 것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식탁교제를 꺼려했다(행 10:9-16, 11:2-3, 갈 2:11-14). '카샤룻'(Kashrut) 음식법 때문이었다. '카샤룻'은 무슨 음식은 먹을 수 있고, 무슨 음식은 먹을 수 없는지, 그 같은 음식들을 어떻게 조리해서 먹어야 하는지를 다룬 유대교인의 율법이다. 그릇 씻기 법에 따라 구별된 정한 조리기구들만을 사용하여 정한 식품만으로 정한 요리법에 따라 요리할 뿐 아니라, 정한 그릇에 담아 정한 방법으로 먹어야 하며,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 씻기 법에 따라 손에 물을 붓고 기도문(berachot)을 암송한 후에 먹고, 기도문의 암송으로 마쳐야 한다. 그러나 세리들과 이방인들은 이상의 것들을 도저히 지킬 수 없고 또 지키지도 않기 때문에 부정한 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엄격히 말하면, 세리들과 이방인들은 기존의 낡고 율법적인 유대교 전통의 희생자들이었다.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멸시를 받았다. 그들은 전도와 구원의 대상이기보다는 멸시와 저주의 대상이었으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친구처럼 교제하셨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과 차별 없이 동등하고 인격적인 대접을 하셨을 때, 마태와 삭개오에서 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12-13절에서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다.”고 하시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것은 참으로 적절한 말씀이었다. 자칭 건강한 자라고 믿는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겠는가? 자칭 거룩한 자라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당연히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건강한 자다, 의로운 자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필요가 없으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문제

점을 깨닫고 자청하여 병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청한다면, 예수님은 지체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16. 새천년시대의 선포(마 9:35-10:33)

천국복음운동의 지속성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에 대한 민중의 반응은 뜨거웠다. 놀라기도 했고(9:33절), 두려워하기도 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9:8절), 그 소문을 전국에 퍼뜨렸다(9:26,31절).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하면서 배척하였다(9:34절). 유대교 지도자들의 배척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곳곳을 다니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민중을 불쌍히 여기셨다(9:35-36절). 예수님은 이 불쌍한 민중을 구원하기에는 일꾼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며(9:37-38), 특별히 12제자들을 택하시어 파송하셨다. 새천년(천국)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천국은 일꾼들을 통해서 시작되고 발전된다. 예수님 한분의 능력이나 몇몇 사람의 능력만으로 되지 않는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수천 명에 달했다. 그중에 70문도와 열두 사도들이 있었다. 일의 진척에는 일꾼들이 필요하고, 그 일꾼들을 부릴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마태복음 10장은 이 지도자들을 뽑아 파송하시는 내용이다. 새천년시대를 알리는 출정식 설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마태가 예수님의 이 설교를, 마가나 누가가 했던 것처럼, 단순히 열두 사도들만의 선교훈련여행에 따른 말씀에 국한시키지 않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될 전 교회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할 지시로 확대시켰다는 데 있다. 따라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모든 그리

스도인들의 대표일 따름이다. 그것은 마치 모세시대의 히브리인들이 자손대대로 모든 유대인들이 지켜야할 언약의 말씀을 후손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은 것과 같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은 단순히 열두 제자들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잠시 파송하시면서 행하신 설교로 제한되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기간에 있었던 천국운동에서 뿐 아니라, 주후 30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출범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켜져야 할 지시들이다. 이점은 누가복음 9장 10절의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하였다”는 말씀과 마가복음 6장 30절의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알이 고하였다”는 것과 차이가 있다. 마태복음에는 “내보내시며”(마 10:5)란 말만 있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했다는 말씀이 없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마태복음 10장의 기록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보다도 40절이나 더 길다. 긴 이유는 마태가 이 사건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의 공생애기간뿐만 아니라, 전 교회시대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없는 예수님의 긴 설교를 추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음서 저자들은 동일한 사건과 말씀일지라도 기록목적과 전하고자 한 메시지에 따라서 사건을 조금씩 다르게 보도하고 있다. 마가와 누가는 제자들의 선교활동을 일시적인 훈련으로써 또 그것을 세례 요한의 죽음과 연관시켜 소개하였지만, 마태는 열두 제자들의 선교활동을 일시적인 훈련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 때까지 지속되어야할 훈련으로 확대시켰다.

구약성경과 복음서의 차이

구약의 예언서는 예언자 자신과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벌어진 사건들(예: 외세침략과 망국)의 성찰을 통해서 자기시대의 사람들에게 회개와 회복에 관해 설교하였다. 이때 성찰의 표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아 조상들에게 전달한 언약의 말

씀이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십계명의 1-2계명이다. 한편 복음서는 저자 자신과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벌어진 사건들(예: 신약탄압과 이단침투)의 성찰을 통해서 자기시대의 사람들에게 신실한 믿음과 인내를 보상(회복)에 관한 내용으로 설교하였다. 이때 성찰의 표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에 선포하신 말씀과 행적이었다.

만일 모세오경이 계명의 전달자인 모세보다 후대에 기록된 글이라면, 기록의 목적이나 성격이 복음서와 같을 수 있다. 복음서는 저자시대의 상황만 알아도 되는 구약의 예언서들과는 달리, 예수님시대와 저자시대의 상황이 모두 파악돼야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모세오경도 모세시대는 물론이고, 모세오경이 기록됐거나 편집된 시기의 정황이 모두 파악돼야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반면에 구약의 예언서들은 저자시대의 정황만 알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오늘날의 설교자들처럼,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본문에 상관없이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의 내용만 알면 되듯이, 예언서도 예언자가 전하는 내용만 알면 된다. 그렇지만, 모세오경이나 복음서는 모세시대나 예수님시대만 알아서는 충분치 않고, 저자들의 시대까지를 알고 저자들이 모세시대와 예수님시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기시대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를 알아야 충분히 이해한 것이 된다. 그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광개토왕이나 이순신 등에 관한 드라마를 시청할 때, 단순히 재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자나 감독이 수백 또는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시대의 정치 군사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어떤 해답이나 길을 제시하려고 하는지를 잘 살피는 것이 드라마를 잘 시청하는 것이 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저자가 동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심지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려고 했는가를 파악해야만 마태복음을 잘 읽는 것이 된다.

역사에는 순수역사(historie)와 해석의 역사(geschichte)가 있다.

순수역사는 사건그대로의 보도 즉 역사적 사건을 있는 그대로 조사탐구해서 보도한 사실적 기록을 말하고, 해석의 역사는 사건이 주는 교훈과 뜻, 또는 의미와 해석을 가미한 기록을 말한다. 연출의 유혹을 완전히 떨치지 못하는 보도자들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뉴스보도가 순수역사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연구>나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역사>가 해석의 역사에 해당될 수 있다.

함석헌은 해석의 역사를 단순한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여기’와 관련해서 골라진 사실들에 대한 뜻풀이라고 했고, 그 뜻풀이에 역사는 생명을 갖는다고 했으며, 역사가의 능력은 해석하는 힘에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잘된 역사책은 정신을 밝혀주는 글이요, 잘하는 역사독법(歷史讀法)도 정신을 읽어내는 해석에 있다고 하면서 “이 해석하는 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역사를 아는데 깊고 얕은 차이가 생긴다.”고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마태복음은 해석의 역사이다.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

마태복음 10장에 실린 지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선교대상의 우선순위에 관한 지시이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지시하셨다. 이것은 바울 일행이 심지어 이방인들의 거주지인 외국에서조차 선교대상의 제일 순위를 유대인들로 삼은 것과 같다. 마태복음 22장의 임금의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우선적으로 초청을 받은 자들이 유대인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임금의 초청을 거절하였을 뿐 아니라, 임금의 보낸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임으로써 임금의 진노를 샀다. 임금은 준비된 잔치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게 하였는데, 이들이 바로 이방인들이다. 이런 점에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

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을 우선 배려하라는 말씀이었다. 그러나 바울의 언급처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롬 11:12).

둘째는 선교내용에 관한 지시이다. 새천년왕국시대의 도래를 선포하되, 사회복지사역도 행하라고 지시하셨다.

셋째는 섬김의 방법에 관한 지시이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와 새천년왕국을 위해 섬기라고 하셨다. 섬기는 자의 의식주는 섬김을 받는 자들이 공급하고, 섬기는 자는 그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고 지시하셨다.

넷째는 장차 일어날 기독교 박해에 관한 지시이다. 늑대무리 가운데 들어간 양처럼 위태로울 것이므로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고 지시하셨다. 누가 배교자가 될지, 누가 밀고자가 될지 모르니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였고, 체포되어 고문당할 때에 이런 저런 말로 변명하려하거나 배교하지 말고, 믿음위에 굳게 서라고 지시하셨다. 그것이 오히려 박해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다섯째는 박해의 잔악함에 관한 말씀이다. 고문의 잔인함은 “형제가 형제를, 아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만드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할 테지만,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을 포함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이 박해시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성도들에게 신실한 믿음과 인내와 보상(궁극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

여섯째는 기죽지 말고, 복음을 담대히 외치되, 끝까지 인내하면서 박해를 요령껏 잘 피하라는 지시이다. 이것이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의 의미이다.

일곱째는 최후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지시이다. 박해자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일 뿐이고, 최후심판을 면하지 못할 자들이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지시이다. 두려

위해야 할 분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32-33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맥락에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제한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확대된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민중에게 들려주신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된다.>

17. 새천년시대의 당파성(마 10:34-42)

'인자'의 의미

사복음서에 '인자'란 말이 82회 나온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서 중복 사용된 횟수를 제외하면 총 52회가 나온다. 마태복음에서는 8장 20절 이후부터 총 29회 언급되었다.

'인자'란 아람어 '발 에나쉬'(ܐܢܫܐ ܒܪܐ)의 직역이며,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다. 인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실 때 사용하신 말이다. 복음서가 아닌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스테반이 한번 예수님을 가리켜 인자라는 말을 썼을 뿐이다. 제3자가 예수님을 호칭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랍비,'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오실 그이' 또는 '선지자'와 같은 말들이 사용되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춰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호칭하신 반면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권위 있는 말씀들과 베푸신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람들과 마귀와 귀신 같은 영적 존재들이 그분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 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 여기에 예수님의 권위의 진정성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와 사람을 구별하셨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고 하셨는데, 인자와 사람을 구별하여 말씀하셨다. 성경 전체로 보면, 인자호칭이 세 가지 범주에서 사용되었다. 첫째는 이미 언급된 대로 예수님이 자신을 겸손하게 호칭하실 때 사용하셨다. 둘째는 '오실 그이' 곧 메시아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되었다. 셋째는 마가복음에서 수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수난자 인자'로 쓰였다

(막 8:31; 9:9, 12, 31; 10:33, 45; 14:21, 41).

수난자 인자는 마가복음에만 나타나는 마가 특유의 메시아관이다. 유대인들은 인자가 민중의 슬픔과 수고와 고통에 마침표를 찍고, 그들에게 영광의 나라를 안겨줄 메시아이기 때문에 수난자 인자란 개념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유대인들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 인자가 굴욕과 수난과 죽음을 당할 수 없는 것은 오히려 그가 세상을 심판해야할 권능과 영광의 메시아 인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난자 인자 메시아관은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기독교만의 것이다.

수난자 인자 사상에서 나온 것이 영혼구원 사상이다. 이 영혼구원 사상은 현재구원으로써 미래구원을 성령님의 도움을 입어 이 땅의 삶 속에서 약속받고, 인침(직인)받아, 미리 맛보고, 누리는 축복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사상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영광의 인자' 사상만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민족 구원, 이스라엘나라 회복 사상으로써 아직 이뤄진 적이 없는 미래구원이다.

구약에서도 인자란 말이 많이 사용되었다. 예를 보면, 에스겔서에서 저자 자신을 호칭하는 말로써 100회 이상 사용되었고, 시편에서는 단순한 사람으로서(8:4; 80:17) 사용되었으며, 다니엘서에서는 종말론적 왕국의 지배자 또는 이스라엘로서 표현되었고(7:13-14), 위경인 제1에녹서에서는 초인적 존재로 선택된 자로 보았으며, 2세기 초에 랍비 아키바(Akiba)는 다윗 왕국의 메시아로 보았다.

새천년시대의 검(劍)

메시아 인자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우 무거운 선언을 하셨다. 34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하셨다. 누가는 검(劍)이란 말 대신에 분쟁이란 말로 대신하였다(눅 12:51). 그런데 이 분쟁이 사랑하는 가족으로까지 확대된다고 말씀하셨다. 36절에

서 사랑하는 가족이 오히려 자기의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37절에서는 가족을 인자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인자에게 합당치 않다고 선언하셨다.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히 이분법적 편 가르기를 선언하신 것이다. 새천년왕국의 시민권은 혈통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말씀이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에 좌우되지 않고, 메시아 인자를 믿고 따르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좌우된다는 말씀이다.

34절의 화평은 참 평화가 아니라, 거짓 평화를 말씀하신 것이다. 싸움도 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도 않은 채 얻으려는 평화, 침묵하고 있다가 승자 쪽에 대충 묻어가려는 희지도 겁지도 아닌 희색 평화를 말한다.

검(劍)은 당파성을 말한다. 편 가름을 말한다. 진보를 의미한다. 진보세력들은 강한 당파성을 요구한다. 색깔이 빨강지 않으면, 절대로 용납지 않는다. 검(劍)은 결단을 촉구한다. 좌파든지 우파든지 결단하라는 것이다. 희든지 빨강든지 색깔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새천년왕국이란 측면에서 보면 차든지 덩든지 하라는 것이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새천년왕국에 합당치 않다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다.

사회과학의 이념 또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은 당파성이라고 말한다.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편을 나누고, 자기편의 승리를 위해서 강한 당파성을 요구한다. 그래야 혁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혁명가들은 중립을 싫어한다. 불의한 상황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은 억압자를 유리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정치가도 아니고, 혁명가도 아니셨지만, 제자들이 중립에 서기를 원치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당파성을 요구하신 이유는 갈등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갈등이 사회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진 자들과 갖지 못한 자들, 지배자들과 피지배자들, 기존질서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자들과 삶이 고달파서 새천년시대를 갈망하는 자들 사이에서 생긴 갈등이기보다는 신앙

과 불신앙의 갈등 또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이었다. 유대교가 잘못된 전통 때문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멸시한 반면, 기독교는 오히려 그들의 편을 들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편을 들지 않고, 가난하고 죄 많은 자들의 편을 드셨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회적 계급들 사이에 긴장과 대립이 노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복음서들, 특히 마태복음이 당대의 사회적 갈등에 주된 관심을 갖고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천국이나, 지옥이나? 영생이나, 죽음이나? 두 갈래 길인데, 중립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한쪽 길을 택해서 가야만 하는 상황은 평화가 아니라, 갈등이고, 대립이며, 예리한 점이다. 그 칼날이 혈연과 우정을 베어 끊는 한이 있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칼로 베이듯이, 나뉘지지 않으면 공멸한다. 이것이 점의 의미이다.

두 갈래 길

인생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 주후 100년경에 쓰인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 일명 <디다케>란 책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의 길인데, 두 길의 차이가 큼니다.”라고 적고 있다. 성경도 두 갈래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넓고 편한 멸망의 길이 있는가하면 좁고 거친 생명의 길이 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성도들이 걸어야 할 길은 좁은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다.

계시록 14장 1-7절을 보면, 좁고 험하지만, 생명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등장한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이다. 고문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사람들이다. 거짓말하지 않고, 흠이 없는 신앙생활로 예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따랐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해변에 서서 새 노래, 승리의 노래, 모세의 노래, 예수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계 15:2-3).

이들은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더위에 쓰러지지 않고, 햇빛에 화상을 입지 않고,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며, 모든 눈물을 씻기며, 구원의 흰옷을 입으며, 승리의 월계관을 쓰게 될 자들이다(계 7:16-17).

계시록 14장 8-11절을 보면, 넓고 편하지만, 멸망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거짓 신인 우상의 편에 섰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에게 우상숭배를 강압했던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자들이며, 유행이 타는 불 못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 고난의 연기로 인하여 밤낮 쉬를 얻지 못할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은 우리 성도들이 인내로써 신실한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하신 뜻이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일시적이다. 예수님 시대에 로마제국은 황제의 후원아래 ‘로마의 평화’(pax romana)를 이루고 있었다. 이 ‘팍스’(pax), 곧 ‘평화’는 평화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전쟁과 죽임과 착취와 탄압의 대가로 얻어지는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시한 평화는 세상이 주는 팍스(pax)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shalom)이었다. 하비 쿡스는 이 샬롬, 곧 평화를 “황제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강제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써의 평화”라고 하였다. 이 평화는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인자가 십자가에 희생당하심으로써 얻어진 평화였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당파성은 거짓 평화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검(劍)은 당파성이다. 편 가름이다. 검(劍)은 예리한 나뭇이다. 절심함이다. 색깔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좌파든지 우파든지 한 쪽에 서는 것이다. 희든지 빨강든지 색깔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새천년왕국이란 측면에서 보면 차든지 덩든지 하는 것이다. 앞만 보고 쟁기질을 하든지, 쟁기를 놓고 떠나든지 하는 것이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

당치 않다고 했다. 검(劍)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날카로운 결단이다. 이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요, 상을 받는 일이다.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 예수님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다.

18. 새천년시대를 여는 절박함(마 11:1-30)

절박함의 긍정성

여기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도입된 배경은 새천년시대를 고대하는 민중의 절박함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새천년왕국시대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8-9장의 믿음과 10장의 당파성도 중요하지만, 11장의 절박함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음과 절박함, 믿음과 당파성, 당파성과 절박함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이다. 믿음이 절박함을 키우기도 하고, 절박함이 믿음을 키우기도 하며, 당파성이 두 주인이 아닌 한 주인에, 두 장소가 아닌 한 장소에, 두 연인이 아닌 한 연인에, 중도가 아닌 한 집단에 몰입시키듯이, 믿음은 당파성을 키우기도 하고, 당파성이 믿음을 키우기도 하며, 절박함이 클수록 당파성이 커지고, 당파성이 클수록 절박함이 커진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는 하나이다.

5절에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씀은 새천년시대의 개방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6절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는 말씀은 절박함만 있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신뢰하는 믿음도 예수님 편에 서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당파성도 없는 자는 새천년시대를 얻지 못하고 실족하지만, 절박함도 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신뢰하는 믿음과 예수님 편에 서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당파성이 강한 자는 새천년시대를 얻게 된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과 모세를 불신한 히브리인들이 광야사막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과 모세를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과 같다.

7-11절의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은 메시아를 고대하는 민중의 절박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이다. 민중의 절박함은 구원의 시기를 앞당기는 열쇠이다. 그것은 마치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하신 말씀과 같다. 그들의 절박함이 절정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기억하셨다”(출 2:23-25)는 말씀과 같다. 히브리인들의 대 영광의 탈출, 곧 출애굽해방은 그들의 절박함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였다.

국내 최고의 스타제조시스템을 갖춘 기획사들을 대표하는 SM의 보아, YG의 양현석, JYP의 박진영이 K팝 스타를 발굴하는 서바이벌에서 선택의 조건으로 삼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노래 실력보다 무대에서의 절박함이나 간절함이다. 간절한 절박함이 바라는 것을 얻는 열쇠임을 심사위원들은 숨김없이 밝힌다. 정치인들 중에는 보수에 없는 절박함이 진보에 있다고 말한다. 우파에 없는 절박함이 좌파에 있다고 말한다. 그런 절박함과 당파성이 2012년 대선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호언장담한다. 실제로 김대중 후보가 1998년에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전라도민들의 간절한 절박함과 좌파진보들의 당파성 때문이었다. 그들의 절박함이 또한 노무현 후보를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16대 대통령에 당선시켰다. 그러나 지나친 절박함은 화를 부른다.

절박함의 부정성

예수님 시대의 가나안 땅의 상황에 대해서 신약성서는 몇 가지 암시적인 표현들을 쓰고 있다. 마태복음에서 그 땅을 “사망의 땅과 그늘”이라고 했고, 그 땅의 백성을 “흑암에 얹은 백성”(4:16),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백성(9:36)

이라 하였으며, 그 시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 “표적을 구하는”(12:39) 세대라고 표현하였다. 이런 절박함 속에서 유대민중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장차올 더 좋은 세상을 바라보았지만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

고통당하던 유대민중은 새천년시대를 열어줄 메시아를 절박함으로 기다렸다. 그 절박함이 때로는 화를 부른다. 바벨론에 멸망한 주전 586년 이후 유대 땅에서 세 번의 혁명전쟁이 있었다. 주전 167-164년의 마카베오혁명, 주후 66-73년의 제1차 유대전쟁과 132-135년의 제2차 유대전쟁이 그것들이다. 모두가 지배국의 탄압 때문에 일어난 혁명전쟁들이었다.

마카베오혁명은 성공한 혁명이었다. 하스모니안 가문의 유다 마카베오(Judah Maccabee)가 민족주의자 열심당원들과 바리새파의 전신인 경건한 자들(Chasidim)을 규합하여 탄압자인 셀류키드왕조의 안디옥쿠스4세에 대항하였다. 주전 167년에 시작된 혁명은 만 3년만인 주전 164년에 성공리에 끝났고, 유대교 금지령을 해제하는 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예루살렘성전은 하나님께 재봉헌되었다. 이로써 유대인의 주권이 회복되었고, 주전 64년 로마제국에 망할 때까지 약 100년 동안 하스모니안 왕조가 국민을 통치하였는데, 유다왕국이 바벨론에 망하고 1948년에 재건될 때까지 걸린 약 2,600년 동안에 이 100년이 유대인들이 누린 유일한 주권회복 기간이었다.

그러나 이 한 번의 성공에 대한 향수와 절박함이 주후 66-73년의 제1차 유대전쟁과 132-135년의 제2차 유대전쟁을 촉발시켰고, 모두 실패로 끝났으며, 그들이 치른 대가는 지나치게 컸다. 그 후로부터 1948년 5월 14일 국가재건 때까지 무려 1878년간 유대인들은 본토에서 쫓겨나 세계를 떠도는 유민이 되었다. 혁명들이 실패한 다음 유대인들은 혁명가들을 모두 거짓 메시아로 단죄하였다. 그간에 출현한 유대인 거짓 메시아가 30명이 넘는다고 랍비들은 말한다. 예수님도 여기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명성을 떨친 거짓 메시아에는 발 코크바와 샤페타이 제비가 있다.

민중이 광야에 나간 것은 세례 요한을 보려는 것이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그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더욱 요동치게 할뿐이었다. 명품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명품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짐을 더욱 무겁게 할뿐이었다. 위로를 구할 곳이 없던 민중이 보려고 했던 것은 메시아였다. 가진 자들과 통치자들은 메시아시대가 오는 것이 영달갑지 않았겠지만, 유대민중은 이미 600여 년간이나 그들에게 평화와 위로를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예수님이 원했던 방식의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예수님이 메시아 인자로서 민중에게 실현시켜 주고자 했던 ‘장차울 더 좋은 것’은 문자적이고 세속적이며 땅 중심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내세적이며 천국중심의 영원한 안식과 평강이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이 차이가 갈등과 충돌의 원인이었다.

절박함의 보상성(補償性)

예수님은 실재했던 갈등과 충돌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피력하셨다. 이 갈등과 충돌을 잘 이해하려면 광야사막에서 있었던 모세와 히브리민족의 갈등과 충돌을 회상할 필요가 있다. 모세의 리더십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과 저항, 인간적인 욕구들의 분출들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고, 고통의 땅 광야사막에 묻히게 하였다. 피리소리에 춤추지 않는 자들, 슬피 울어도 가슴 치지 않는 자들, 비판을 위한 비판을 일삼는 자들, 이렇게 해도 비판하고, 저렇게 해도 비판하는 자들, 이렇게 말해도 안 믿고, 저렇게 말해도 안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이 광야사막시대에 모세를 불신하고 저항했던 자들과 동일한 궤거리이다. 가나안 땅 정복대열에 끼지도 못하였고, 또 땅을 얻지도 못하였던 자들처럼 예수님을 불신하고 저항하는 자들도 새천년왕국을 얻지 못할 것이다. 18-19절

에서 예수님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뜻이 여기에 있다. 어리석은 그들이 심판 날에 소돔성처럼 무너질 것이란 말씀은 모세를 대항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던 자들의 멸망과 같을 것임을 암시한 말씀이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새천년왕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하셨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만이 안식처인 하늘 가나안 땅에서 새천년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임을 암시하셨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늘 가나안 땅에서 참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러므로 28-30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러면, 12절의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귀 있는 자가 들어야 할 이 말씀의 심오성은 무엇인가? 히브리인들이 광야사막시대를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주인이 없어 비어있는 땅에 조용히 들어가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었다. 목숨 걸고 침노하여 치열하게 싸워서 쟁취하였다. 설상가상으로 가나안 족속들은 정탐꾼들에게 메뚜기 콤플렉스를 갖게 할 만큼 강성하였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열두 명의 족장들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 열 명의 족장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들에 비교해서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과 자신들을 비교하지 않았고 현실의 높은 벽에 짓눌리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다. 그 결과 갈렙과 여호수아는 소망하던 가나안 땅을 손에 넣을

수 있었고, 한 시대를 풍미한 진정한 영웅의 대접을 받고 있지만, 나머지 족장들은 그들을 추종했던 어리석은 자들과 함께 죽어 사막에 묻히고 말았다. 믿음과 절박함으로 무장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했다. 새천년시대의 정복자들은 총칼로 무장하지 않고, 예수님 편에 서는 신실한 믿음과 당파성과 절박함으로 무장한다.

19. 새천년시대에서의 새 질서(마 12:1-50)

새 질서에서의 안식일 법

복음서에는 안식일 논쟁에 관한 기사가 많다. 예수님과 유대교인들 사이에 안식일 논쟁이 뜨거웠고, 기독교 안에서조차 이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안식일준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써 제4계명에 근거한다(출 20:8-11).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계명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첫째,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구별하여 안식일로 지키는 것을 말한다. 둘째, 이 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출 20:10절). 셋째, 이 날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창조행위(Melacha)를 말한다.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다(창 2:2).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멈추셨던 것처럼 인간들도 안식일에는 모든 창조행위를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창조행위의 범주를 39가지로 이해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기 때문에 랍비들이 출애굽기 31-35장에 언급된 성막(Mishkan)건축에 필요한 39가지 공정에 착안하여 만들었다. 성막구조는 우주의 축소판이고, 성막제조는 창조행위를 상징하므로 그 같은 창조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으로 본다.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식일 법이 39개가 아니라, 39가지 범주라는 점이다. 따라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수백 수천 가지가 될 수 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문제된 이유는 '자르기'나 '꺾기'가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자르기'(Kotzair) 금지법은 안식일에는 땅에서 나서 자라는 것을 가 지나 잎 하나도 뽑거나 잘라서는 안 된다는 법이다. 예수님께서서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성소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언급하신 것은 새천년시대의 새 질서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 랍비들이 만든 안식일 법보다 우선된다는 새로운 사상을 선포하신 것이다. 또 “성전보다 더 큰 이”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씀은 메시아 인자가 새천년왕국에 필요한 새 질서를 선포하시는 분이란 뜻이다. 메시아 시대에는 성전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비롯해서 새로운 질서가 도입될 것을 믿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또 9-13절에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것이 문제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매듭풀기’(Matir) 금지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3장 10-17절을 보면, “십 팔년 동안을 귀신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고치시고 나서, 분을 내며 책망하는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십 팔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안식일에 묶인 것을 푸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메시아 인자가 통치하시는 새천년왕국의 새 질서에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 되며, 질병에 시달리며 사단에게 매여 살아온 사람들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합법적인 일이 된다.

새 질서의 배척자와 수용자

새천년시대의 새 질서에서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게 된다. 안식일 법보다 사람이 우선되고, 살림의 일이 우선된다. 그러나 새 세상이 도래하고 새 질서가 선포되면,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거세진다. 잃

게 될 것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득권 세력은 새 세상을 원치 않는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한 이유는 그들이 메시아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칼 한 자루 몸에 지니지 아니한 예수님을 반란자로 죽이려한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높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아니란 것을 아신 예수님은 너무 성급히 당신의 신분이 노출되시는 것을 경계하셨다. 때가 무르익기도 전에 혁명을 원하는 자들로부터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에 시달릴 염려 때문이었다. 중국에는 유대인들의 배척으로 새천년시대가 이방인들의 것이 될 것을 예견하셨다. 또 새 질서에서의 새 안식일 법은 새천년왕국의 시민들이 될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였다.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았던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자비가 미쳤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구원의 은총을 수용하여 새천년왕국의 선민들이 될 것을 암시하신 것이다. 22절의 “그 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니라.”에서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은 이방인들의 대표이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천년시대를 보고 말하게 될 것을 암시하신 것이다. 또 23절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이름을 드높일 자들도 이방인됨을 암시하신 것이다.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새천년시대의 새 질서를 철저히 거부하고 배척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의 치유능력과 축마능력마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서 비롯됐다고 깎아내렸다. 이에 예수님은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므로 가당치 아니한 일이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예수님의 선교활동이 새천년시대의 개방을 재촉하고 있다는 뜻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편에 설 것을 완강히 거부한 자들이고, 악한 자들이며,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이기 때문에 금생과 내생에서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고 또 새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임을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다.

복음서에서 안식일 논쟁은 유대교와 기독교, 옛 언약시대와 새 언약시대, 옛 질서와 새 질서,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천년시대에는 새 질서가 필요하다. 그것이 복음이요, 살림의 일이며, 빛의 일이고, 질서의 일이며, 생명의 일이다.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바치는 일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살림의 일을 본받고, 빛과 생명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새 질서의 성격

새 질서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며, 일곱 귀신으로 인하여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 세대이다. 예수님께서 “요나보다 더 큰 이”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라고 언급하신 이유는 메시아 인자가 새천년왕국에 필요한 새 질서를 선포하시는 분이란 뜻이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구원받고 니느웨 성민을 회개시킨 선지자이며,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자이다. 유대교인들은 다가올 새천년왕국이 예루살렘성전중심의 신정국가가 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성전을 지은 솔로몬을 위대한 인물로 본다. 그들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새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성전에서 드러지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또 새천년시대의 새 질서에서는 혈통이나 혈연에 좌우되지 않고, 믿음에 좌우된다. 따라서 예수님은 48-50절에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이다.”고 말씀하셨다. 새 질서를 수용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식구가 되지만, 새 질서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은 종족이나 피부색깔에 상관없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자녀들이 된다.

예수님은 39절에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하셨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하였다. 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는가?

유대민중이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던 것은 그가 메시아인가를 보려는 것이었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표적을 보려는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누가 참 메시아인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 곧 메시아의 조건을 갖고 있었다. 그 잣대 또는 조건이 바로 ‘하늘로써 내리는 표적’이었다. 일찍이 이 ‘하늘로써 내리는 표적’을 보였던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모세는 하늘로써 만나를 내려 먹게 했고, 엘리야는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나 엘리야가 행했던 것처럼 하늘로써 내리는 표적을 보일 자를 기다렸다. 그 같은 표적을 행하는 자라야 비로소 메시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유대인들의 정서가 복음서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러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새천년시대에서의 새 질서의 성격을 밝히는 말씀이다. 새천년시대를 개방시킬 메시아가 세우실 새 질서는 빵의 일이나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복음의 일이다.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이유는 사람들이 빵문제 해결이 아니면, 도무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빵문제에 집착하는 자들은 천국보물의 가치를 모르는 눈먼 소경과 같아서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다. 빵문제에만 집착하는 자들은 값진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돼지와 같아서 땅에 버리고 짓밟게 된다. 하나님의 일과 복음의 일의 가치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세우신 새 질서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20. 새천년시대의 특징과 성격 1(마 13:1-43)

새천년시대에 합당한 자들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8개의 천국비유는 복음서의 핵심이자 중심축이다. 이들 비유들은 천국의 특징과 성격을 설명한다. 먼저 나오는 4개는 배 위에서 군중에게 하신 말씀이고, 뒤에 나오는 4개는 집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1-2절에서 갈릴리 호수는 세상을, 배는 교회를 상징한다. “온 무리는 해변에서 있더니”는 아직 교회라는 구원의 방주에 오르지 아니한 상태, 즉 천국복음을 이제 겨우 듣는 단계를 말한다. 그들이 교회라는 배에 승선하려면, 먼저 천국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현 상황은 천국복음을 듣는 단계이다. 승선을 결정하기까지는 아직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 번째 비유, 마태복음 13장 3-23절의 ‘씨앗을 받는 네 종류의 밭’은 어쩌면 승선 전(前) 4단계를 설명하려고 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는 예수님이 교회의 창설자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말씀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배는 천국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를 통해 배표를 받고 승선한 자들을 호수 건너편 새천년왕국 새 가나안 땅의 해변으로 실어 나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결단의 시간이다.

천국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배에 오르지 못하는 사람들에는 세 종류가 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영성의 눈이 멀고, 말씀의 귀가 먹어서 천국비밀에 관한 지식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비유(παραβολή, 옆에 놓은 것)란 비밀 또는 신비를 상징한다. 천국비밀을 깨닫는 자만이 구원의 가치를 알고 배에 승선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런데 4분의 3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길 가”요, “돌밭”이며, “가시떨기”이기 때문이다.

“길 가” 마음을 가진 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 범주의 사람들은 천국복음의 씨앗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에 낙엽이 날리듯,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치우듯, 악한 자들에게 빼앗기듯, 천국을 빼앗기는 자들이다.

“돌밭” 마음을 가진 자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 범주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들이다.

“가시떨기” 마음을 가진 자들은 천국복음을 듣고서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 범주의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좋은 땅” 마음을 가진 자들도 있다. 이들은 영의 눈이 열려 만물을 밝히 보는 자들이요, 귀먹고 어눌한 혀가 풀려 말이 분명한 자들이다. 이 범주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 아니라,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를 맺는 자”들이다. 이들은 또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 자들이다. 무엇보다도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여 백 배, 육십 배 혹은 삼십 배의 결실을 거두는 자들이다. 이들은 듣는데서 그치지 않고, 믿고,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할 뿐 아니라, 침례(배표)를 받고 승선하기까지 믿음을 발전시키는 자들이다. 이들이 바로 새천년왕국에 적합한 인물들이다.

새천년시대에 부당한 자들

두 번째로 나온 ‘가라지 비유’는 새천년시대의 성격을 설명한

말씀이다.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고 하였다. 여기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였다. “천국의 아들들”에서 “천국”은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뜻하고, “아들들”은 구성원들인 그리스도인들을 뜻한다.

유대인들은 남성 13세, 여성 12세 때에 종교적 성인이 된다. 이때부터 각각 ‘계명의 아들’(Bar Mitzvah)과 ‘계명의 딸’(Bat Mitzvah)로 불리며, 계명들의 준수는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된다. 특히 남성들에게 그렇다. 이스라엘은 엄격한 의미에서 13세 이상의 유대인 남성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남성인 경우 13세부터 모세오경의 낭독자가 될 수 있고, 기도회를 열 수 있는 ‘민안’의 최소인원에 포함되며, 종교법정에서의 증언이나 결혼의 권리도 갖는다. 특히 13번째 생일을 보낸 남자아이는 그 주간에 회당에 배 때 토라읽기를 수행한다. 동시에 아버지는 더 이상 아들의 죄를 책임질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문을 낭송한다. 그러나 자녀들의 법적인 성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18세가 돼야 가능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아들들”은, 옛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3세 이상의 유대인 남성들에서 나온 말이므로,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남녀 그리스도인들을 뜻한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은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리고 “제 밭”에서 “제”는 소유권을, “밭”은 세상을 뜻한다. 인자는 세상의 주인이란 뜻이다. 그런데 밭에서 주인이 뿌리지 아니한 가라지가 보인다. 여기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란 말은 인자가 주인이신 세상 밭에 원수인 마귀가 제 자식들을 뿌려놓았다는 뜻이다.

교회와 낙원을 새천년왕국으로 믿는 사람들과 교회와 낙원에 다 현 세상까지를 덧붙여서 새천년왕국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나라가 완전무결하다고 믿지 않는다. 오히려 완전무결한 영원한 세계를 향해 가는 과도기라고 본다. 그것은 마치, 히브리인들이 노예와 속박의 사슬을 끊고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는데 성공하지만,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사막을 횡단하는 과정을 남

긴 것과 같다. 광야사막시대는 과도기이긴 하지만, 분명 새 시대로, 완전무결한 세상을 기대하며 행진하는 순례과정이다.

여기서 새천년시대인 교회시대가 완전무결하지 않다는 것은 교회가 세상이란 밭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고, 세상의 많은 부분을 마귀의 아들이들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추수 때까지,” 즉 “세상 끝”까지, 재림 때까지, 대 심판 때까지 혹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혼재하는 이 상황이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셨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와 낙원만이 아닌, 현 세상까지를 포함시켜 새천년왕국시대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세상 밭에 천사들을 보내어, 마치 추수하는 일꾼들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고, 알곡은 모아 주인의 곡간에 들이듯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지옥 불에 던져 넣어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할 것이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자기 아버지 나라”는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한다.

새천년시대의 성장 능력

겨자씨와 누룩에 관한 비유는 교회의 능력을 설명한 말씀이다. 겨자씨비유가 천국복음의 외적 성장을 말했다면, 누룩비유는 천국복음의 내적 성장을 말한 것이다. 비록 교회가 원수 마귀의 자식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 작은 겨자씨나 작은 덩어리의 누룩처럼 시작이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번성할 것을 말씀한 비유이다.

교회가 그리스-로마세계에 전파된 초기 300년간은 불법종교였고, 로마의 신들에게 충실하고자 했던 제국의 황제들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서 전국적인 박해를 받았으며,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겨자씨나무처럼 외적으로 쑥쑥 성장하였고, 내

적으로는 누룩과 같은 힘을 가지고 민중들 사이를 파고들었다. 그 결과 선교 300여년 만에 합법종교로 인정받기에 이르렀고, 주후 392년에는 로마제국의 국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교회라는 겨자씨나무를 잘라내고, 교회라는 누룩을 제거하여 새천년시대를 로마의 신들에게 바치려했던 로마황제들의 노력은 모두 허사로 돌아갔다. 로마황제 데키우스는 로마건국 일천주년이 2년 지난 250년에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명기한 '리벨루스'라 불리는 증명서를 누구나 소지하고 다니도록 명령하였지만, 일 년 후인 251년에 고트족과의 전투에서 습지대에 갇혀 혼전을 벌이다가 아들과 함께 전사하였고, 시신은 수렁에 가라앉아 찾지도 못하였다. 둘째 아들도 동년에 전염병으로 병사하였다.

교회라는 겨자씨와 누룩이 로마제국의 새천년시대를 장악하는 것을 그 누구도 막지 못하였다. 251년 데키우스와 그의 두 아들이 다 죽자, 252년 한 해 동안에 황제가 세 사람이나 출몰하였으나 253년에 발레리아누스가 황제의 자리를 꿰찼다. 이 사람 역시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리벨루스'를 발부받아 항상 소지하게 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하였다. 그러나 이 사람은 260년에 7만 대군을 이끌고 페르시아 왕 샤푸르1세와 맞붙어 싸우다가 포로로 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303년에 또 한명의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교회탄압을 위한 칙령을 공포하고 사악한 박해자의 칼을 치켜들지만, 밤이 깊으면 여명이 멀지 않듯이, 그의 박해를 끝으로 313년 6월에 드디어 종교의 자유를 선포한 '밀라노 칙령'이 공포되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그의 아들 황제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인해서 교회는 명실상부한 제국의 종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교회를 로마제국의 국교로 선언하였다.

이처럼 교회는 박해자들의 마수에서 벗어나 겨자씨와 누룩처럼 번져가게 되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

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한 360여 년 전의 한 유대인 무명의 떠돌이 교사와 그의 제자들의 천국복음이 그를 십자가에 처형했던 거대한 로마제국을 송두리째 접수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천국복음의 영향력이자 전과력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비록 겨자씨와 누룩처럼 미약한 존재들일지라도, 엄청난 성장능력을 지닌 천국의 아들과 딸들이다.

21. 새천년시대의 특징과 성격 2(마 13:44-46)

구도자의 가치매입

마태복음 13장 44-46절에서 말하는 보화나 진주는 감춰졌던 보기 드문 값진 것으로써 천국과 그 복음을 말한다. 또 천국은 죽은 성도들의 낙원과 2천 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와 '아직' 기대와 희망 속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모두를 말한다. 그러나 천국은 유대인들이 희망(Ha-Tikvah)하는 다가올 세상 '올람하바'(Olam Ha-Ba)와는 다르다. 유대인들은 다가올 세상이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들에 의한, 유대인들의 문자적인 세상이 될 것과 그 세상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천국은 유대민족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위한, 모든 민족에 의한, 모든 민족의 영적인 세상이 될 것과 그 세상이 '이미' 2천 년 전에 시작된 교회를 포함한다.

천국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감춰져 있었다. 그들은 유대민족주의와 가나안영토주의에 깊이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선포하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고 기뻐하며 재산을 팔아 그 밭을 매입하듯이 천국이 찾는 자에게 발견된다고 말한다.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재산을 팔아 그것을 구입하듯이, 천국이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한다. 예수님은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고 말씀하셨고,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말씀하셨다.

보화와 진주를 매입한 자들은 구도자들을 상징하며, 적어도

두 가지 덕목을 갖춘 자들이다. 한 가지는 가치과악이 가능한 눈을 가진 자들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것을 매입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자들이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손에 넣겠다는 필사의 노력은 다름 아닌 목숨을 건 믿음, 순교를 각오한 믿음을 말한다. 천국의 가치는 목숨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고, 값진 진주를 땅에 짓밟는 돼지처럼 마음이 둔한 자들이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천국의 보화와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그들 가운데 정약용 선생의 조카사위였던 황사영이란 젊은이가 있었다. 16세 때 진사시에 장원급제한 그를 대견하고 기특히 여긴 정조가 친히 불러 손목을 잡고 “네가 20세가 되거든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네게 벼슬을 주고 나라의 큰 소임을 맡기겠다.”고 약속하였다. 부와 권세를 약속받은 이 천재소년은 정약종 선생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내가 이제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심판하실 제일 높은 임금을 알았으니 그분의 신하가 되는 것이 군자의 마땅한 도리이다”라며,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였다. 그리고 27세 때 의금부에 끌려가 능지처참 형을 받았다. 황사영이 무슨 값진 것을 기독교에서 발견했기에 목숨을 걸었는가? 무엇이 그에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로 다가왔는가? 황사영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어 지키려했던 가치는 무엇이었는가?

무지로 인해 감춰졌던 가치

13장에 소개된 8개의 비유들 가운데 네 개에서 “밭”이란 말이 쓰였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천국복음의 씨앗을 받는 네 종류의 마음 밭이 언급되었고, 두 번째 가라지 비유와 세 번째 겨자씨 비유에서는 “제 밭”과 “자기 밭”이란 말이 언급되었다. 이 “제 밭”과 “자기 밭”에 대해서 예수님은 38절에서 “밭은 세상이요”

라고 설명하셨다. 따라서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거
자씨 한 알을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사람은 세상이란 밭을 소유
하신 하나님을 뜻한다. 같은 맥락에서 44절의 “밭에 감추인 보
화”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세상에 감춰놓으신 새천년시대 즉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한다.

그런데 그것이 왜 감춰진 것인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추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옛 선민인 유대인들이 유대민족
주의와 가나안영토주의에 너무 깊숙이 매몰되어 있어서 예수님
이 그것을 선포하시기 전까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
문이다. 따라서 “감추인”이란 ‘무지’ 또는 “예상치 못한”이란 뜻
으로 쓰인 것이다.

주전 400여 년 전 그리스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가 글라우콘
에게 들려준 우화로써 플라톤이 <국가론> 7권에서 밝힌 동굴의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란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이 비유의 핵심은 지하 동굴 속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요
람에서 무덤까지 ‘무지’라는 족쇄에 묶인 채 벽면에 비추는 그
림자들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들 배후에 있는 햇불이나 동굴밖
에 존재하는 빛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한다. 따라서 햇불이나
빛의 세계는 그들에게 감춰진 것이었다. 누가 감추려고 해서 감
춰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들의 존재를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햇불이나 빛의 세계의 존재를 잘 알고 있는
지혜자가 와서 그들에게 빛과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말해준다.
그러나 그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듣지도 못
했기 때문에 지혜자의 말을 믿기가 쉽지 않다. 예수님은 이 땅
에 빛과 지혜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와 9-10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
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
였다.”란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유대인들이 예
수님을 배척한 이유도 바로 이 무지, 즉 그들이 희망하던 메시
야가 다른 모습으로 오실 수 있다는 것, 또 그들이 고대하던

‘올라하바’가 기대하지 못했던 다른 형태로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마태복음 13장 44-46절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무지의 족쇄를 풀고 동굴 밖으로 나와 빛의 세계를 발견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발견한 그리스도인이다. 플라톤이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진리와 빛의 세계를 의식하지 못한 채 그림자와 어둠의 세계에 갇혀서 살았다는 것을 밝혔고, 사람들이 무지해서 알지 못했던 세계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더 좋은 빛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듯이, 또 예수님께서 35절에서 친히 밝히셨듯이, 예수님은 천국비유를 통해서 “창세부터 감춰진 것들을” 밝히 드러내어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힘쓰셨다. 예수님의 천국복음을 듣고 감춰진 비밀이었던 빛의 세계를 발견하고 소유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계시로 밝혀진 가치

그리스도인들은 무지의 상징인 흑암의 세계에서 죄의 노예로 족쇄에 매어 살다가 무지의 족쇄를 벗고 빛의 세계로 탈출에 성공한 자들이다. 그것은 마치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족쇄에 매어 살다가 억압의 족쇄를 벗어버리고 영광스럽게 탈출에 성공한 것과 같다.

바울만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이란 세상에 감춰진 보물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찾아낸 값진 진주가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이 없었다. 바울은 그것들이 빛의 세계로써 또는 예수님께서 직접 출범시킨 교회라는 새천년시대으로써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무지 특히 하나님의 옛 선민인 유대인들의 무지로 인해서 “만제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골 1:26),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며”(엡 3:9),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하신 것

이고(엡 1:9, 3:3-4),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롬 16:25)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 된 것이라”(롬 16:26)고 하였다. 바울 자신은 이 비밀을 예수님 다음으로 먼저 발견한 사람이고, 소유한 자이며, 목숨을 걸고 이 비밀의 가치를 전한 선교사였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비밀의 일꾼으로 삼으셨다(엡 3:7)는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갖고 있었다. 바울은 골로새서 4장 3-4절에서 자신이 이 일을 위해서 매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며 중보기도를 요청하였다. 그렇게 하면,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고 하였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자신을 이 비밀 곧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것과 이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곧 신실함이라고 하였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가 얼마나 높은 가치를 지녔기에 바울은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가? 바울은 보장된 장래를 헌신짝처럼 버렸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다. 평생을 복음전도를 위해서 해외선교에 바쳤다. 이로 인해서 감옥에도 많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유대인들에게 39대의 곤장을 다섯 번 이상 맞았고, 태장을 세 번 이상 맞고, 세 번 이상 파선 당하여 물귀신이 될 뻔했으며, 주리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으며 결국엔 사형을 언도받고 처형되었다(고후 11:23-27). 그러나 그는 그의 생애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딤후 4:7) 승리자의 삶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은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렬한 빛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일생을 어둠 속 깊은 동굴에서 족쇄에 매어 살다가 족쇄를 벗어버리고 빛의 세계로 빠져나오는 자는 동굴입구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강렬한 빛에 강한 통증과 일시적이거나 시력을 잃을 수가 있다. 그러나 바울의 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시력을 되찾게 되었을 때 그는 분명 새

로운 믿음의 세계를 맛보았다. 이전까지는 기독교를 이단으로 간주하여 믿는 자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지만, 이제부터는 자신이 그 믿음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가야하는, 그렇지만, 가장 행복한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다.

22. 새천년시대의 특징과 성격 3(마 13:47-58)

새천년시대이후의 운명

마태복음 13장의 천국비유들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과 부당한 사람, 천국의 대내외 성장능력, 천국의 가치발견과 매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물 비유에서 가라지 비유에서처럼 재림 때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세상 끝”까지, 재림 때까지, 대 심판 때까지 혹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 때까지 의인과 악인이, 마치 바다 속에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혼재하듯이, 선악의 혼재상황이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셨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재차 확인시켜 주셨다.

마태복음 13장 47-50절에서 “바다”는 세상을, “각종 물고기”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그물”은 구금을 상징한다. 또 “세상 끝”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풀무 불”은 지옥을 상징한다.

고대 그리스-로마세계에서 큰물, 즉 바다나 호수 또는 강은 세상 또는 죽음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그리스-로마신화에서는 사람이 죽어 음부의 세계로 가려면 비통의 강, 시름의 강, 불의 강, 망각의 강을 차례로 건너야하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망각의 강을 건너 후에는 낙원인 엘뤼시온(Elusion)으로 갈 사람과 지옥인 탈타로스(Tartaros)로 가야할 사람으로 나뉘었다. 예수님은, 마치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듯이, 그물정리 때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분류되듯이, 사람의 마지막 길도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로 나뉘질 것을 말씀하셨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여 매입한 사람의 길은 생명의 길이 되지만, ‘이생뿐이다.’ ‘죽으면 그만이다’는 식으로 세상을 산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길이 될 것이다. 비록 지금은 선악이 혼재된 상황이지만,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선악이 분리될 것이다.

물고기는 신자들의 상징이며, '좋은 신자'와 '못된 신자'로 나뉜다. '좋은 신자'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는 자들을 말한다. 반면에 '못된 신자'란 적(敵)그리스도를 신봉하는 자들을 뜻한다.

헬라어로 물고기는 '이크투스'(ichthus/ΙΧΘΥΣ)이다. 물고기는 십자가(十)가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자리를 잡기이전부터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사용됐던 상징이다. 물고기를 뜻하는 '이크투스'(ichthus) 다섯 글자는 각각 '예수'(i), '그리스도'(ch), '하나님의'(th), '아들'(u), '구세주'(s)의 첫 글자에 해당된다. '좋은 신자'는 '좋은 물고기'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적힌 엠블럼을 사용한다[ΙΧΘΥΣ = I: Iesus(예수스/예수), X: Christus(크리스토스/그리스도), Θ: Theos(떼오스/하나님), U: Huios(휘오스/아들), Σ: Sojomete(소조메테/구세주)]. 반면에 이에 반발하는 적그리스도인들, 특히 진화론을 신봉하는 자들은 '못된 물고기' 상징들을 사용한다. 기독교를 모독하는 진화론자들이 사용하는 못된 물고기는 몸통에 다리나 등에 지느러미를 지니고 있고, 몸통에는 '이크투스'(ichthus)대신에 '다윈'(darwin), '이교'(Pagan), '사단'(Satan), '마귀'(Devil), '죄인'(sinner) 등의 글자를 넣고 있으며, 기독교의 물고기를 잡아먹거나 제압하는 상징을 사용한다. 같은 맥락에서 상어(shark)를 상징으로 삼기도 한다. 등에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상어를 표현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을 삼켜버리겠다는 무서운 뜻을 담고 있는 표현들이다.

새천년시대는 새 것으로

마태복음 13장 51-52절에서 예수님은 7개의 천국비유를 통해서 새천년시대의 특징과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고 물으셨다. “깨달았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오자 마지막 8번째 서기관비유를 말씀하셨다. 여기서 '서기관'

은 천국복음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새천년시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또는 교육받은 것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를 뜻한다. 마치 집주인이 옛 시대에는 옛 시대에 맞게 자기 창고에서 옛 것들을 꺼내어 사용하였고, 새 시대에는 새 시대에 맞게 창고에서 새 것을 꺼내어 사용하듯이, 새천년시대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모든 교사들은 새천년시대에 맞게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창고에서 새 것들을 끄집어내어 가르칠 것을 강조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은 옛 시대에는 옛 시대에 맞는 율법체계와 유대교공동체를 세우셨다. 그러나 새천년시대가 이미 출범하였고, 새 시대에 맞는 천국복음을 주셨으므로,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교사들은 새천년시대에 맞는 새 것들을 꺼내어 가르쳐야 한다.

예수님은 이미 9장 16-17절에서 새천년시대에 필요한 새 패러다임에 관해 말씀하셨다. 여기서 예수님은 천년이 넘는 묵은 누룩, 장로들의 유전, 유대교의 전통, 곰팡이 균이 핀 묵은 포도주, 기존의 낡고 폐쇄적인 사고방식, 가치관, 세계관이 예수님께서 개방코자하시는 새천년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새로운 사상은 새 그릇에 담아야 한다는 뜻으로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담아야한다거나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새 포도주는 숙성과정에서 가스를 발생시켜 부대를 팽창시킨다. 이때 낡고 약해진 부대는 터지고 만다. 낡은 옷에다 새 천을 대고 김이면 새 천이 낡은 천을 잡아당겨서 찢어지게 된다. 이처럼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거나 낡은 옷에 새 천을 대고 김이면 문제가 생기듯이, 시대에 뒤진 폐쇄적 율법주의로는 혁신적인 복음주의를 수용할 수가 없다.

율법시대는 이미 구시대가 되어버렸다. 율법시대에는 그 시대에 걸맞은 사상과 전통들이 있었는지 모르나 새천년시대는 복음시대이므로 거기에 걸맞은 새로운 사상과 전통이 요구되었다. 복음이란 믿음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고, 혼돈을 질서로 만들며, 죽어가는 것을 살려내고, 닫힌 것을 개방하며, 갇힌 것을 풀어주고, 탕자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것이므로 새천년시대란

그릇에 이 복음적 가치를 담기 위해서는 폐쇄적 사고방식, 낡은 형식주의, 죽임의 율법주의, 낡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버려야 한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의 안식일 논쟁에서 새천년시대에 필요한 새 질서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복음서에서 안식일 논쟁은 유대교와 기독교, 옛 언약시대와 새 언약시대, 옛 질서와 새 질서,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담아야하듯이, 새천년시대에는 새 질서가 필요하다. 그것이 복음이요, 살림의 일이며, 빛의 일이고, 질서의 일이며, 생명의 일이다. 새 질서의 성격은 전통과 혈통에 좌우되지 않고 믿음에 좌우된다. 빵의 일과 세상의 일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과 복음의 일에 좌우된다. 어둠과 무질서와 죽음에 좌우되지 않고 빛과 질서와 생명에 좌우된다.

새천년시대의 산통(産痛)

새천년시대의 개방을 희망했던 세례 요한은 물론이고 새천년시대의 도래를 선포하신 예수님조차도 박해의 대상이셨다. 새천년시대의 개방을 희망하는 한 구시대와의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새천년시대를 개방할 메시아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은 집권세력의 견제와 감시를 받다가 끝내는 체포되어 목 베임을 당하였다. 그런데 복음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시점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중에게 제2의 모세 메시아로 노출시킨 결정적인 시점으로 소개한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오실 자 메시아로 노출시킨 결정적인 사건은 오병이어의 표적이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13세 이상의 남성만 오천명이상 먹이신 표적이다. 이 표적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먹게 한 사건과 동일한 예수님이 제2의 모세였음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그런데 복음서 저자들은 이 사건을 세례 요한의 죽음 직후에 배치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을 절정으로 치닫게 한다.

이 사건이 중대한 만큼 유일하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었다.

또 복음서는 예수님이 당하신 배척들을 주저 없이 의도적으로 소개한다. 심지어 그 출발을 고향에서부터 시작한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배척사건이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이 대단한 것임을 알고 난 다음에 발생한다는 점이다. 더더욱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천국에 관한 비유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배치하고 있다. 사실 복음서에 소개된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신 사건들은 적어도 두 가지 정도의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는 새천년시대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구자들이 당하는 시련에 대한 예방주사의 성격이요,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하신 후에 받으실 영광에 대한 예시(豫示)적 성격이다. 박해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박해를 견딘 후에는 하늘에서의 상이 클 것임을 암시한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누가는 이 사건을 아예 예수님 공생애 출발 시점에 배치하였다. 갈릴리에서 배척당하심, 사마리아에서 배척당하심, 예루살렘에서 배척당하여 죽으심 그리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영광 받으심을 강조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순교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견도록 권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의 때를 영광 받으실 때로 설정하여 복음서 구성을 영광 받으실 때 이전과 이후로 나눴다.

세상천지 어디에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함과 사형 당함을 이처럼 미화시켜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것은 결코 사(死)의 찬미가 아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거쳐야할 통과(渡)의란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새천년시대를 위한 배척당함은 옥동자를 얻기 위한 산통(産痛)과 같은 것임을 말한 것이다.

다른 한편 새천년시대의 산통으로써의 배척당함은 불신(不信) 세력과의 갈등의 결과이다. 예수님께서 10장에서 당파성을 강조하신 것은 바로 이런 갈등 때문이었다. 불신 세력과의 갈등이 없이는 또 강한 당파성이 없이는 새천년시대를 개방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님과 고향 나사렛 사람들과의 갈등은

신앙과 불신앙의 갈등 또는 기독교와 유대교와의 갈등을 암시한 것이다. 천국이나 지옥이나 혹은 영생이나 죽음이나 사이에서 벗어진 갈등이고 대립이다.

<민주화운동에 투신한 기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복음서의 이런 사상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것을 정치개혁, 사회개혁, 민주화와 인권신장 등의 운동에 접목시켰다고 보면 된다. 깨어 있는 기독교인들은 오늘날에도 현실과 이상, 현재와 내세, 오늘과 내일 앞에서 무엇이 '옳음'(진리)인가를 놓고 갈등하고 고뇌하며 산다. 그렇다고 보수는 무조건 나쁘고, 개혁과 혁명을 추구하는 진보는 무조건 좋다거나 또는 그 반대이거나가 아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고뇌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옳음을 따르다보면, 때로는 보수가 되고, 때로는 진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수도 진보도 아닌 '옳음'의 추종자들이어야 한다.>

23. 새천년시대를 앞당기는 신분노출 1(마 14:1-36)

새천년시대를 앞당기는 신분노출의 위험

마태복음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제2모세, 즉 제2출애굽사건을 성취하실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11-12장에서 예수님이 유대지도자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셨다면, 그것에 대칭이 되는 14-16장에서는 메시아신분을 노출시키셨고 제자들로부터 메시아로 인정도 받으셨다. 그러나 신분노출은 죽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그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신분노출에서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고백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공개적인 신앙고백은 배척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교자들이 흘린 피는 교회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1-12절에서 세례 요한은 모세의 형 아론에 비교될 수 있다. 아론이 모세의 형이었던 것과 같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친척이었다. 아론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으로서 제비뽑기에서 영예롭게도 성전에 들어가 분향했던 레위 가문의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 족속의 여인이었다(눅 1:5). 또 아론이 모세를 히브리인들의 메시아로 안내한 것처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인류의 메시아로 안내하였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집회에서 주 강사의 등단을 소개하는 MC와 같았다. 주인공의 등장을 알리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매니저와도 같았다. 따라서 그의 등장은 예수님사역의 출범을 알리는 시점이었고, 그의 퇴장, 즉 죽음은 예수님의 메시아신분노출의 시점이었다.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

을 민중에게 노출시킨 결정적인 시점이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 사역의 성공적인 정점이었으며, 골고다의 죽음을 향한 내리막길의 시점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메시아신분노출은 그분의 죽음의 때를 노출하는 시점이었다. 여기에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숨어있었다. 모세가 느보산 정상에서 죽고 나서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의 새천년시대를 개방시킨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시온산 골고다 정상에서 죽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새천년시대를 개방시킨 것과 같다. 이뿐 아니라,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가 오실 자 메시아가 아니라, 선구자였을 뿐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시점이었다. 그가 죽기 전에는 누가 메시아인지가 확실치 않았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 전에는 그 사실이 아직 감춰져 있었다. 따라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는 꼭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막 8:30, 눅 8:56).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그분이 오실 자 메시아인지 혹은 아닌지를 묻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 사실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는, 그가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이 파견한 정보원들에게 자신은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듯이, 세례 요한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란 점을 명확히 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세례 요한 자신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확신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일부의 추측을 차단하는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예수님의 메시아신분노출의 시점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의 표적과 함께 시작되었고, 이때이후로는 예수님의 본래적인 사명 즉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순례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새천년시대를 앞당긴 세례 요한의 순교

선지자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이미지는 선포한 내용의 성격, 단순하고 소박한 삶 그리고 외모와 복장(왕하 1:8)에서 비슷한 면들을 갖고 있었다. 예수님도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이라”(마 11:14)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말 4:5)는 말씀의 성취를 세례 요한으로 보셨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사는 두 군데서 발견된다. 한 곳은 복음서이고, 다른 곳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고대사>이다. 사복음서들과 <고대사>는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되었다. 요세푸스는 유대전쟁당시에 군인으로 참전하였다. 그는 갈릴리 전투에서 로마군에 포위를 당하자, 로마군에 항복한 후 협력하여 그 공로로 궁중역사가가 되었다. 요세푸스는 짧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그에 따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요주의 인물로 지목하여 관찰하고 있었다. 만일 그가 메시아라면, 폭동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감금하였다가 살해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예언자적 언행 때문으로 보았다.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둘째 부인으로 취했는데, 세례 요한이 안티파스의 이런 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였다. 복음서는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의 증오 때문에 참수된 것으로 기록하였다.

세례 요한이 압송되어 갇혀있던 참수된 곳은 ‘마케루스’라 불린 사해바다 동편 해발 700미터 산위에 세워진 헤롯의 여름 궁전이자 요새였다. 이 요새는 주후 70년 유대전쟁의 패배로 로마군에 의해서 폐허가 되었다. 세례 요한의 목은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우마이야 모스크에 안치되어있다. 그 이유는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의 시리아총독지배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형집행권이 없었고, 흑세무민(惑世誣民)을 이유로 세례 요한을 참수했다는 보고서와 함께 그의 목을 시리아총독 앞으로 보냈기 때문이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가장 훌륭한 인물들이었다. 난세에 이스라엘을 구출한 선지자들이었을 뿐 아

나라, 그들이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들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엘리야를 세례 요한에, 모세를 예수님에 예표와 모형으로 설정하고 있다. 원래는 엘리야를 모세와 다윗과 마찬가지로 메시아의 표상으로 취급하려하였을 것이다. 그 증거가 말라기 4장 5절의 예언이고, 헤롯 안티파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다. 지금도 이라크 남부와 이란 남서부에는 수천 명에 이르는 만다교(Mandaeism)를 믿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믿고 있다. 만다(manda)란 고대 아람어로 영지(靈知)란 뜻으로 그들의 뿌리가 영지주의 유대교에 있음을 짐작케 하는 이름이다. 교리는 지극히 절충적 혼합적이지만 침례와 성만찬을 엄격히 시행한다. 특히 침례는 흐르는 물에서만 행한다고 한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다. 요한의 침례는 사람들을 회개시켜 오실 자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기독교의 침례와는 그 목적부터 달랐다.

새천년시대의 메시아신분을 노출시킨 표적들 1

오병이어의 표적은 광야사막에서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게 한 사건을, 바다 위를 걸으신 표적은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사건에 비교가 된다.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와 모형이므로, 예수님은 모세가 행한 표적들에 비견될만한 이들 표적들을 행하여 보이심으로써 자신이 오실 자 메시아임을 입증해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으므로 자신의 메시아신분을 노출시키신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끊임없이 위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요구해왔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임박했으므로 위로부터 내리는 표적들을 보일 때가 왔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 그것도 처참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경전인 구약성경에서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계획이었다.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메시아인 것을 입증하면 곧바로 로마제국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한 군사작전에 돌입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물론 가진 자들과 지배자들은 원치 않았겠지만 말이다.

13, 15절의 “빈들”은 히브리인들의 광야사막을 생각나게 하는 장소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모세가 광야사막에서 히브리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게 한 것처럼, 빈들에서 빵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로 큰 무리를 먹이셨다.

19절의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는 말씀은 교회에서 행하는 주의 만찬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다. 더욱이 이것이 저녁식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대인들의 저녁식은 보통의 식사보다는 더욱 종교적이므로, 더더욱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저녁식사 때 기쁨을 부탁하셨던 주의 만찬과 연결된다.

17절에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란 말씀과 20-21절의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는 말씀은 13장의 천국비유들, 즉 한 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불어나는 현상,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고, 작은 누룩이 온 가루를 부풀리는 현상처럼, 비록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진 것은 작고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이다.

22절에서처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행위는 세상이란 바다를 교회라는 방주를 타고 새천년왕국을 향해서 순례하는 행위를 연상시킨다. 이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를 건너 것과는 같고, 광야사막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향한 순례와도 같다.

어떠한 항해도, 비록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항해라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위태롭다. 설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항해라도 거친 파도와 강한 폭풍과 같은 시련은 여지없이 찾아온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다. 믿음만 있다면, 물위도 걸을 수 있고, 강풍과 거친 파도도 잠잠케 할 수 있으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 병을 고치겠다는 믿음만 있으면, 믿음대로 병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24. 새천년시대를 앞당기는 신분노출 2(마 15:1-28)

새천년시대에서의 빵문제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고, 16절에서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18절에서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다. 인간의 오랜 희망을 실현시켜줄 메시아탄생의 선포로 시작된 마태복음의 이야기들은 16장 13-28절에서 예수님이 오실 자 메시아시오, 그분이 출범시킬 새천년시대와 하나님의 나라(천국)가 교회라는 것을 밝히는 데까지 진전되고 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8개의 비유로 천국의 특징과 성격을 밝힌 직후 14장 1절부터 16장 12절까지에서 전개된 이야기들, 즉 예수님이 오실 자 메시아시오, 그분이 세우실 나라가 교회란 사실이 완전히 노출될 때까지의 짧은 이야기들의 주제는 ‘빵’이다.

마가복음에서도 8장 29절의 신앙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답변이 도출되기 전까지 7-8장의 이야기들의 주제는 빵이다. 빵의 문제 또는 빵의 부족을 걱정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과 복음의 일에 상반되는 세상의 일과 사람의 일로써, 마치 소경의 눈이 열려 만물을 밝히 보듯이, 귀먹고 어눌한 자의 귀와 혀가 풀려 말하는 것이 분명해지듯이, 영성이 열려 하늘 가나안 땅을 보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다.

한편 마태복음은 16장 16절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나올 때까지

14장부터 계속해서 빵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14장에서 빈들에서 빵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로 13세 이상의 남자만 오천명 이상을 먹이신 표적과 바다 위를 걸으신 표적을 소개한 다음 15장에서도 빵 먹기 전에 손 씻는 문제, 생명의 빵을 이방인들과 나누는 문제, 그리고 빵 일곱 개와 생선 두 마리로 13세 이상 남자만 사천명 이상을 먹이신 표적을 소개하였고, 빵문제를 16장 1-12절 베드로의 신앙고백직전까지 이어가고 있다. 마태복음에서 빵은 예수님의 메시아신분의 노출과 관련되었을 뿐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서 밝히신 것처럼, 육신의 빵이 아니라 생명의 빵이다.

마태복음에 “빵”(bread)이란 말이 20여 차례 나온다. 제일 먼저 쓰인 곳이 마귀의 시험 때였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4:3)는 마귀의 시험은 다름 아닌 민중의 요구였다. 이때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4:4)고 하셨다. 마태복음 15장 17-20절에서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셨다. 같은 맥락에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즉 생명의 양식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6:33)는 말씀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새천년시대에는 육신을 살리는 빵보다 영혼을 살리는 빵을 더 귀하게 여긴다.

새천년시대에서의 손 씻기 문제

마태복음 15장 1-20절에서 갈등의 원인이 된 ‘빵 먹기 전에 손 씻기’ 전통은 위생을 위해서 손을 씻는 행위가 아니라, 양손 안팎에 물을 흠뻑 붓고 기도문 베라코트를 낭송하는 종교적 행위이다. 이때 지켜야할 사항이 21가지나 된다. 이 전통은 제사장이 성전예배 때 손을 씻는 성별의 행위에서 비롯되었다. 유대

인들은 제사장의 행위를 본받아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에서 손을 씻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전통을 포함해서 다른 ‘게자이라’(gezeirah)법들을 성실히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문제를 삼았다. 613개의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키려는 뜻에서 만들어진 율타리 법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들을 폐하게 만들고, 외식하는 자들이 되게 하였으며,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6-9절).

예수님은 외적인 허례허식에 매달리는 유대인들의 문제가 신앙심의 자만과 우월감에 있다는 것을 간파하셨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적인취급하고 멸시하였다. 그들은 겉껍데기 사슬에 묶인 자신들의 현실을 눈이 있어도 직시하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으며, 머리가 있어도 깨닫지 못했고, 가슴이 있어도 느끼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지적하셨듯이 그들은 사람이 만든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옴음과 자비와 신실함을 버렸다.

예수님은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의 문제이지 성결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셨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먹기 전 손 씻기는 더러움을 씻는 행위가 아니라, 양손 안팎에 물을 흠뻑 부어서 물에 온전히 적시게 하는 종교적 행위이어서 위생과는 무관하다.

예수님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육신의 문제이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보셨다. 유대인들의 먹기 전 손 씻기는 영적인 청결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지, 실제로 영적인 청결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을 영적으로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써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19절)이라고 하였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20절)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사람

의 유전을 지키는 것이 그다지 중요치 않다고 보셨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보셨다. 그러므로 헛된 경배라고 하셨다(6-9절).

“장로들의 전통”이란 말로 신약성경에 소개된 ‘게자이라’법들은 외형상으로 볼 때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명과 동일한 수준에 놓으려했다는 점과 율법의 목적과 정신은 외면한 채, 법규를 지나치게 상세히 규정해 놓음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옴음과 자비와 신실함은 버리고, 자만과 우월감만을 자극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먹기 전에 손을 씻는 행위는 위생상 필요한 것이지만, 손을 씻는다고 해서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아니며, 더더욱 영혼이 성결해지는 것도 아니다. 새천년시대에는 손을 씻는 청결보다 마음을 씻는 성결을 더 귀하게 여긴다.

새천년시대에서의 이방인문제 1

아놀드 토인비 교수는 <역사의 연구> ‘제4편 문명의 쇠퇴’에서 유대인들의 신앙체험을 “정신적 보물,” “정신적 탁월성,” “천부의 재능” 등의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칭송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유대인들의 신앙체험은 모든 민족의 것보다 월등히 뛰어났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감동적이고 서사적(敍事的)이며 드라마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중대한 과오를 범하였는데, 이 과오를 토인비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일시적인 자아를 이상화하는 가장 유명한 역사적 사례는 신약성경에 폭로된 유대인의 과오이다... 이스라엘과 유대의 백성은 일신교의 종교사상에 도달함으로써, 그 주위에 사는 시리아 사회의 다른 민족들보다 단연 뛰어나게 되었다. 그들이 자기들의 정신적 보물을 강하게 의식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은 당연하였으나, 그 정신적 성장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단계이기는 하였지만, 하나의 과도적인 단계에 불과한 것을 이상화하는 과오에 빠지게 되었다. 그들은 확실히 무상(無上)의 정신적

통찰력을 타고난 민족이었지만, 절대적이고 영속적인 진리를 발견한 후에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절반진리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들은 '유일한 참신'을 이스라엘이 발견한 것은 이스라엘 자체가 신의 선민임을 계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절반진리는, 그들이 가까스로 도달한 일시적인 정신적 탁월성을 신이 자기들에게 영원한 성스런 약속으로써 부여한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치명적인 과오에 빠지게 하였던 것이다. 그 천부의 재능을 어리석게도 땅에 숨겨둠으로써 그것을 활용할 줄 몰랐던 그들은 신이 나사렛 예수의 강림을 통하여 자기들에게 제공한 한층 더 큰 보물을 거절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탁월한 발견과 신앙체험들을 타민족들과 공유하려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것으로 독점하였다. 선민사상은 그들에게 양약도 되었지만, 독약도 되었다.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독점하여 성전 지성소에 가뒀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여 멸시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민족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을 주셨으며, 그 언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토라(율법)를 주신 분으로 믿으면서 하나님과 자기 민족과의 관계를 가나안 땅과 토라와의 관계로 엮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로써 지나친 배타적 민족주의와 지나친 땅 지상주의가 발생하였고, 613개의 계명들과 그 계명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많은 율타리 법들이 만들어졌으며, “장로들의 전통”이라 불린 율타리 법들은 그들을 타민족과 격리시키는 난공불락의 율타리가 되었다. 그들의 그런 독선의 율타리를 헐고 모든 민족이 공감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음으로 지평을 넓힌 것이 바로 기독교였다.

21-28절에서 가나안 여인과 귀신들린 그녀의 딸의 형편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26절)는 말씀은 당대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는 시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27절)는 이방인의 절실한 믿음을 귀히 여기셨다. 토인비 교수가 지적하였듯이, 나중 된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형편

이 먼저 된 유대인들의 것보다 월등히 뛰어났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새천년시대에는 사람의 일과 세상의 일에 매몰되고, 종교적인 자만과 우월감에 사로잡힌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의 일과 복음의 일에 헌신하는 겸손한 이방인들을 더 귀히 여긴다.

25. 새천년시대를 앞당기는 신본노출 3(마 15:29-16:28)

새천년시대에서의 이방인문제 2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들 가운데 한 가지는 막힌 담을 열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유대교의 담을 열지 않고서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담보할 수가 없었다. 유대인들의 배타적 선민사상과 영토 지상주의로 인해서 생긴 이방인들의 구원을 가로막는 담을 제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한 가지 이유였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하였다. 또 히브리서 10장 19-20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하였다. 공관복음서 저자들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마 27:51, 막 15:38, 눅 23:45)고 전하였다. 여기서 성소의 휘장은 막힌 담의 상징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고 하였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네 개의 뜰과 두 개의 성소가 다섯 개의 담으로 구별되어 있었다. 남녀노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크고 넓은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담 안쪽에 ‘유대인 여성의 뜰,’ 담 안쪽에 ‘유대인 남성의 뜰,’ 담 안쪽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놓인 ‘제사장의 뜰’ 또 성소로 들어가는 문 안쪽에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놓인 ‘성소,’ 다시 휘장 안쪽에 법궤가 놓인

‘지성소’가 있었다. 이 유대교 성전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인종의 담’이 있었고, 유대인 여성들과 남성들 사이에 ‘남녀의 담’이 있었으며, 유대인 남성들과 제사장들 사이에 ‘신분의 담’이 있었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사이에 ‘계급의 담’이 있었다. 그런데 원래 담은 하나님의 영역인 성막 안에만 존재했던 것이다. 뜰의 담들은 다 유대교가 만들어낸 인위적이고 권위적인 담들이다. 이 모든 담, 심지어 신성의 상징인 성막회장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육신을 깨뜨리심으로 다 허물어졌다. 따라서 이제는 민족, 남녀, 신분, 계급의 차별 없이 누구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 법궤 앞 시은소 앞으로 나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방인들인 우리조차도 아무런 거리낌이나 방해물 없이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궁홀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유대교에서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의 법궤 즉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었고, 그것도 일 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 때뿐이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고전 4:1, 엡 1:9, 3:1-12, 5:32, 6:19, 골 1:26-27, 2:2) 또는 “그리스도의 비밀”(골 4:3-4)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비밀이란 로마서에서 밝힌 대로, 아집과 독선에 사로잡힌 배타적 유대인들이 그들의 담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진실, 즉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과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데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것을 말한다.

새천년시대의 메시아신분을 노출시킨 표적들 2

마가복음 4장부터 8장까지를 보면, 두 개의 바다기적과 두 개의 급식기적 그리고 두 개의 장애자 치유기적이 나온다. 그리고 난 다음 8장 29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나온다. 두 개의 바다 기적들 가운데,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야기(4:35-41)는 5천 명을 먹이신 기적(6:35-44)을 향해서 진행이 되고, 그 사이에 귀먹고 어눌한 병어리(7:31-37)가 고침을 받고 말이 분명해진다. 풍랑만난 제자들을 향해서 물위를 걸으셨던 이야기(6:45-51)는 4천 명을 먹이신 기적(8:1-10)을 향해서 진행이 되고, 그 사이에 벧새다 장님(8:22-26)이 고침을 받고 만물을 밝히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두 개의 바다기적과 두 개의 급식기적은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향해서 진행이 된다. 여기서 두 개의 급식기적과 두 개의 바다기적은 모세와 함께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넌 것과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빵문제, 즉 세상의 일 또는 사람의 일과 관련이 있고, 두 개의 장애자 치유는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와 혀가 풀려 빵문제를 뛰어넘어 예수님이 제2모세이신 것과 그분이 세우실 제2가나안 땅이 하늘 가나안 땅 또는 교회천국임을 볼 수 있게 해준다.

한편 마태는 마가복음의 기록들과 대체로 비슷하게 기술하면서도 마가처럼 두 개씩 짝을 맞춰 소개하지 않고 두 개의 급식기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수님의 빵문제 해결을 반복해서 보여준다. 빵문제해결을 반복해서 강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오시기로 예언된 제2모세 즉 메시아이신 것을 노출시킨다. 따라서 빵 일곱 개와 생선 두어 마리로 4천 명을 먹이신 표적도 빵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표적과 동일한 형식으로 기술하였다. 이들 두 개의 급식기적은 유대인들이 주전 586년 바벨론에 유배된 이후 6백여 년간 보기를 원했던 메시아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표적들이었다.

33절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란 물음에서 “광야”와 “빵”은 예수님께서 13세 이상의 남성 4천명 이상을 먹이신 표적이 모세가 광야에서 베포 만나와 메추라기의 표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36절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는 교회에서 행하는 주

의 만찬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대로 “떡을 가지사(봉헌), 축사하시고(성만찬 기도), 떼어(분별례), 주시며(성찬배수/聖餐拜受), 가라사대(교훈)”는 2천년의 전통을 지닌 성만찬 예배예전 그대로다.

34절의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는 말씀과 37-38절의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사천 명이 었더라”는 13장의 천국비유들, 즉 한 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불어나는 현상,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고, 작은 누룩이 온 가루를 부풀리는 현상처럼, 교회의 나중이 창대하게 발전할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39절에서처럼 배를 타고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는 행위는 세상이란 바다를 교회라는 방주를 타고 새천년왕국을 향해서 순례하는 행위를 연상시킨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를 건넌 것과 같고, 광야사막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넌 것과도 같다.

예수님의 신분과 새 왕국 교회의 노출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고, 16절에서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18절에서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다. 인간의 오랜 희망을 실현시켜줄 메시아탄생의 선포로 시작된 마태복음의 이야기들은 16장 13-28절에서 예수님이 오실 자 메시아시오, 그분이 출범시킬 새천년시대인 천국이 교회라는 것을 밝히는 데까지 진전되고 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였다”는 말씀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

는 보여 줄 표적이 없다”는 말씀은 16장과 대칭의 짝을 이루는 12장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것이다(38-39절). 추가된 것은 “시험 하여”란 말과 “하늘로부터 오는”이란 말이다. 이 두 말은 4장에 나온 마귀의 세 가지 시험내용과도 관련이 있다. 이는 유대인들의 요구가 세속적이고 마귀적인 욕망에 의한 것임을 웅변하는 것이다. 이 요구에 대한 거절은 “요나의 표적”이란 말이 암시하듯이, 예수님의 목숨을 요구하는 데까지 이어진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6절에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다.

제자들이 빵 챙겨가는 것을 잊은 채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갔고, 빵이 없음을 걱정하였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제자들의 무지를 책망하셨다. 이 부분에서 마가는 빵문제를 초월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고 헌신하게 된다고 하였다. 마태는 마가와 달리 적대 세력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경고하였다. 여기서 누룩은 죽음의 그물을 쳐놓고 예수님을 끌고다 언덕에로 몰아가는 여론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메시아신분노출은 절정에 달하였다. 21절의 예수님의 수난예고에서 보듯이 아이러니하게도 메시아신분노출은 곧바로 죽음으로 이어진다.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한 가지는 민중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희망했던 메시아와 다른 형태의 메시아였기 때문이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메시아출현을 전혀 달가워하지 않는 가진 자들의 음모 때문이었다. 20절에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신 것은 죽음의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남았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고백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신앙고백이 신약(新約) 즉 새 언약의 압축내용이다. 이 내용의 확대가 신약성경 즉 사도들의 가르침과 실천내용이다. 히브리인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갖고 언약의 내용인

구약(舊約) 즉 옛 언약인 토라를 받아 지켰다. 사도전통이 실린 신약성경은 18절의 말씀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가 세워진 반석이며, 19절처럼 천국의 문을 여닫는 열쇠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스승의 사명에 대해서 충분히 깨닫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타의 유대인들의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말린 이유가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도 24절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자들이었다.

26. 새천년시대를 앞당기는 신분노출 4(마 17:1-27)

메시아의 자취: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삼국시대이후 우리민족에게 거짓 미륵의 출현이 종종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유배이후 유대민족에도 거짓 메시아의 출현이 종종 있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누가 참 메시아인가를 판가름하는 잣대 혹은 메시아가 되는 조건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었다(마 16:1). 여기서 “하늘로부터”는 거짓에의 반대, 곧 ‘참’이나 ‘옳음’을 뜻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마 21:25)는 물음이 있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 또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란 표현이 있다(요 3:31), 이들 표현들에서 보듯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면, 참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고,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면, 참 하나님의 사람이 일으킨 표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 하늘로부터 온 침례, 하늘로부터 온 표적들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능력 행하심을 뜻하는 ‘기적’이란 말 대신에 그 큰 능력이 일어난 목적을 뜻하는 ‘표적’이란 말이 사용되었다.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와 같은 큰 능력 행하심은 그것들을 행하신 예수님이 오실 자 메시아인 사실을 노출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에게 “하늘로부터”란 표현이 생긴 이유는 주전 586년에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에 유배된 이후 제2모세와 제2가나안땅을 희망한데서 비롯되었다. 제2모세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다. 가나안땅이전시대에 히브리인들은 짧게는 215년 길게는 430년간이나 이집트에서 떠돌이노예로 살았다. 설상가상으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가나안땅을 빼앗기고 노예로 끌려감으로써 다시금 예전의 그 땅 없던 떠돌이노예의 신세로 돌아갔다. 이

떠돌이노예의 유대인들에게 제2가나안땅의 시대를 열어줄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일 것이라고 믿어졌다(신 18:15). 모세는 광야에서 표적을 일으켜 매일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먹게 하였으므로 오실 자 메시아는 당연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자라야 했다(요 6:30-31).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예수님이전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행한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였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모세는 광야사막생활 40년 동안 매일 “하늘에서 양식을 비 같이 내리게”하여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게”하였다. 또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3년 동안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하였다. 그렇지만 했수나 양이나 수혜자의 숫자로 볼 때 두 사람사이에는 분명히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모세는 그토록 소중하여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가나안땅을 갖게 해준 해방자였지만, 엘리야는 그 땅에서 빼앗긴 야훼신앙을 되찾게 해준 해방자였으므로 경중에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모세를 예수님의 예표로, 엘리야를 세례 요한의 예표로 보았고, 마태복음 17장에서 거듭 강조되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자격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에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유대인들은 놀라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였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다”(요 6:14-15).

메시아의 자격: “하늘로부터 소리”

마태복음 14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메시아신분노출은 17장에 서 최고점에 도달한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문자적이고 세속적인 메시아 곧 정치군사적인 해방자가 되기를 거부하셨다. 예수님께서 민중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양식은 육신의 배를 불

리는 물질적인 빵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하늘생명의 양식이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단지 예수님이 오실 자 메시아란 사실과 영생을 위한 하늘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뿐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배를 불리는 물질적인 빵과 영생을 위한 하늘생명의 양식의 질적인 차이를 언급하셨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다음 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찾아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했을 때에 그들에게 메시아로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셨다. 새천년시대를 개방할 메시아는 “썩는 양식”을 주는 자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는 자라고 하셨다. 유대인들이 모세의 표적을 언급하면서 만일 당신이 오실 자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으로 빵을 먹게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빵을 준 자는 모세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부터 참 빵을 주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이시다”고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자기 자신이라고 밝히셨다. 그리고 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요 6:35,58).

예수님의 이 주장을 인정한 것이 “하늘로부터 소리”였다. 이 “하늘로부터 소리”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보다 질적인 우위를 보였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소리를 두 번 들으셨는데, 한번은 칩레를 받으실 때였고, 또 한 번은 높은 산에서 체험하신 신령한 변형 때였다. 칩레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신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로부터 소리를 들으셨다(마 3:16-17). 또 높은 산에 올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

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늘로부터 소리를 들으셨다(마 17:5). 누가는 이런 신령한 체험들이 모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뤄졌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 “하늘로부터 소리” 때문에 마태복음 17장은 세례 요한이 등장한 3장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침례와 높은 산에서 체험하신 신령한 변형은 모두가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상징한다. 침수는 죽음을 침례의 물은 무덤을 상징하며, 물에서 올라오는 행위는 부활과 승천을 의미한다. 이 침례가 높은 산에서 체험하신 신령한 변형과 관련된 것은 “하늘로부터 소리” 때문이기도 하지만, 높은 산에서 체험하신 신령한 변형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장사된 지 삼일 만에 부활하시어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상징한다.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시점을 “내 때”(마 26:18, 요 2:4, 7:6,8) 또는 “영광을 얻을 때”(요 12:23)로 적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메시아의 자격: 하늘로부터 증인(證人)

메시아의 자격 가운데 한 가지는 승천이다. 모세와 엘리야가 모두 하늘로 승천하신 분들이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지만, 그 시신이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는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퍼져 있었다. 이를 모세의 몽소승천이라고 일컫는다. 또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였다.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시어 승천하셨다. 모세처럼 죽어서 시신으로 승천한 것이나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산체로 승천한 것보다는 죽었지만, 부활하여 승천한 것은 모세와 엘리야의 표적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것으로써 새천년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다.

17장에는 높은 산에서의 신령한 변형체험,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상관성, 귀신들린 간질환자치유와 믿음의 상관성, 세상나

라와 하늘나라의 상관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선지자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이미지는 선포한 내용의 성격, 단순하고 소박한 삶 그리고 외모와 복장(왕하 1:8)에서 비슷한 면들을 갖고 있었다. 예수님도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마 11:14)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말 4:5)는 말씀의 성취를 세례 요한으로 보셨다. 이 부분을 17장 10-13절에서 재차 강조함으로써 세례 요한의 역할을 메시아선구자의 역할로 제한시키고 있고, 메시아가 등장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사상이 이미 유대교에 퍼져있었던 사상이었음을 환기시켰다.

출애굽기 19장 이후, 특히 24장은 마태복음 17장의 예표와 모형적 사건이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시내산에서 엿새 동안 구름에 쌓여 있었다(출 24:1, 9, 15-16; 34:29-35). 또 34장 29-35절을 보면, 하나님을 뵈는 모세의 얼굴에는 수건으로 가려야 할 만큼 광채가 있었다. 예수님께서서 엿새 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른 것이나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던” 것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던 사건은 예수님과 그분이 개방하실 나라가, 모세와 그의 실패한 왕국처럼 유한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것임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리고 17장에서 귀신들려 간질을 앓았던 자를 고치신 사건은 8-9장에서처럼 이 영원한 하늘의 것을 개방하는 열쇠가 믿음이란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귀신들려 간질병을 앓고 있는 세상 곧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에 마침표를 찍고, 새천년시대를 개방할 능력이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 시대가 밝았음을 밝힌 것이다. 그리고 그 시점이 “죽음을 당하고 제삼 일에 살아난” 직후가 될 것을 예고하셨다. 이 예고를 듣고서 제자들이 근심한 이유는 그들이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며, 죽음을 당하는 때가 곧 영광을 얻는 때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의 나라는 유한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굳이 노동자의 이틀 치 품삯에 해당되는 성전세(출 30:13)나 로마가 걷는 인두세를 내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셨다. 그러나 육신의 몸을 의탁하고 있는 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땅의 법도 지킬 것을 친히 모범으로 가르치셨다. 성도들은 비록 몸을 세상에 의탁하고 있으나 영혼과 정신만큼은 저 영원한 나라에 두고 사는 자들이다.

27. 새천년시대에서의 실천윤리 1(마 18:1-35)

새천년시대: 바보들이 대접받는

마태복음 18장 1-10절은 천국에서는 누가 위대한 자인가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은 4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고 하셨다. 또 5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다”고 하셨다. 그리고 10절에서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셨다.

천국은 예수님처럼 위로 향하지 않고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바보들이 사는 곳이다. 천국의 군주이신 예수님은 천상의 영광보좌를 버리고, 죽기 위해 낮은 이 땅으로 임하셨던 바보요, 왕의 신분자로서 마구간의 말구유에 임하셨던 바보요, 잘나고, 지체 높고, 부유한 자들과의 교제를 마다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로 임하셨던 바보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왕으로 임하기를 바랐는데도 죽음을 향해 음부로 내려갔던 바보였다. 어떤 사람이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말했다면, 그렇게 말한 사람이 바보로 취급당하지 않고 배기겠는가? 또 그 사람이 “너희를 욕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했다면, 그렇게 말한 사람이 바보가 아니면 무엇이 라고 생각되겠는가? 또 그 사람이 “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고 말했다면, 또 “겉옷을 뺀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고 말했다면, 또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고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새천년시대를 활짝 연 초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특별한 민족임을 자부하면서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이방

인들을 죄인 취급한 유대인들한테서 동일성을 찾지 않고, 탕자처럼 죄가 크지만, 회개한 자들 또 그런 이방인들한테서 정체성을 찾았다. 또 유대인들의 조상 야곱이 형으로부터 적통(嫡統)을 빼앗고, 신앙의 뿌리를 이어간 것처럼, 초기 기독교인들은 장자인 유대교로부터 적통을 빼앗고, 참 하늘에 속한 백성, 천국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선민공동체로 정체성을 설정하였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적자(嫡子)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새천년왕국의 시민이 되는 것은 민족으로도 혈통으로도 색깔로도 문화로도 종교로도 성씨로도 계급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돈으로도 결정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잘못을 뉘우치며 아버지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고 애통하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바보 같은 행동에서 결정된다.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이 탕자의 비유이다.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도 예서와 야곱처럼, 만아들과 탕자처럼 전혀 상반된 길을 걷게 될 수 있다. 야곱도 탕자처럼 압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자신의 잘못과 부족을 회개하였다. 그 일이 있고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셨다. 야곱은, 많이 부족했지만, 신앙 하나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약속의 자녀로서의 적통을 이어갈 수 있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을 것인가? 혈통과 학벌과 명예와 권세를 통해서인가, 가슴을 치며 회개한 세리처럼 겸손한 태도를 통해서인가 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무구(無垢)한 깨끗한 마음을 통해서인가?

새천년시대: 소외된 자들이 관심을 받는

마태복음 18장 11-14절에서 예수님은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더 깊은 관심을 받는 곳이 천국임을 교훈하셨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작

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고 하셨다. 그리고 15-20절에서 죄 범한 형제를 방치하지 말고, 진심으로 권고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을 권고하셨다. 이런 선한 일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면 영킨 실타래도 풀 수 있다고 하셨다. 그 이유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방법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노력에 가세하여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말씀의 핵심은 소외된 자들, 잘못된 길로 간 자들에게 사랑과 기도로 관심을 갖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런 자들이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곳이 다름 아닌 천국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시대에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다. 비록 유대인들이 13세 이하의 아이들을 말씀으로 훈육하였을지라도, 그들은 어디까지나 가정의 소유물에 불과하였다. 또 원칙적으로 유대인들은 13세 이상의 남성만을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계명의 자녀들로 보았다. 그 좋은 사례가 복음서에 실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마 14:21)와 빵 일곱 개와 생선 두어 마리로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사천 명이었더라”(마 15:38)가 될 것이다. 여기서 어린이는 13세 이하의 아이들을 말한다. 여자와 어린이는 계수에서 빠진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성전 뜰의 구성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여성들과 어린이를 위한 뜰이 이방인들의 뜰 안쪽에 별도로 있었다. 13세 이상의 유대인 남성을 위한 뜰은 여성의 뜰 안쪽에 별도로 있었고, 더 안쪽은 제사장의 뜰이었다. 내실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져 있었다.

이스라엘의 여성들과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이스라엘의 뜰 너머로 들어갈 수 없었다. 이처럼 민족들을 갈로 놓는 담, 남녀를 갈라놓는 담, 신분의 담과 계급의 담을 헐어버린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 이 담들이 제거된 시대, 분열과 차별의 담들이 사라진 시대가 바로 새천년시대이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순수하고 때 묻지 아니한 어린이들, 겸손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들이 오히려 더 관심을 받고 돌봄을 받는다. 약하고 겸손한 자가 용납되고 더 우대를 받는다.

유대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나안땅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성심을 다하여 지켜야 했고 또 자발적으로 지켰던 이유도 가나안땅에서 지속적으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계명을 지켜 받을 하나님의 축복은 가나안땅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었다. 그렇다보니까 종교생활은 잘했지만,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과 긍휼과 사랑은 부족했다. 예수님은 그것이 허례허식과 신앙심의 자만과 우월감 때문이라고 보셨다. 유대인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하여 일체의 접촉을 꺼렸고,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자들을 죄인으로 취급하였다. 예수님은 병들고 가난한 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자기들이 누리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하셨다(마 23:23). 자기 뭇의 손익을 따지며 돌아온 형제를 기뻐하지 않는 말아들 같은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새천년시대: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는

마태복음 18장 21-35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죄지은 형제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다. <울고도 아름다운 당신>에서 박완서는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의 의미를 무진장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무진장 용서해주라는 뜻으로 받아드렸다. 톨스토이는 “악마의 일은 아름답고 신의 일은 까다롭다”란 글에서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는 것은 사단의 계락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믿었다. 사단의 계락이 무너뜨려진 곳이 있다면, 그곳은 필경 천국일 것이다.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마 6:12)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과 같이 당신은 우리의 죄들을

우리에게 용서하옵소서.”란 뜻이다. 여기서 ‘죄’는 경제적인 채무를 뜻한다. 죄를 하나님께 진 빚으로 이해한 것이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18장에 실린 불의한 종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일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갚을 길이 없는 것을 알고, 임금이 그 많은 빚을 무상으로 탕감해주었다.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일백 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붙잡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뒀다. 임금에게 탕감 받은 것의 60만분의 일밖에 되지 않는 작은 빚이었다. 그래서 임금은 그를 불러다가 말하기를,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나?”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마 18:21-35)고 하셨다. 자기 목숨에 해당되는 큰 죄를 사함 받고서도 형제의 작은 죄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았다고 말할 수 없다.

마태복음 18장 21-35절에서 ‘용서하다’는 의미는 무언가를 떠나보내는 개념으로써 ‘죄나 징계로부터 풀어주다’는 뜻이다. 따라서 ‘용서’란 것은 형제가 저지른 죄나 잘못을 ‘떠나보내 주는’ 혹은 ‘없애 주는’ 태도를 말한다. 당대의 랍비들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용서하고, 네 번째는 용서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제시한 용서의 횟수 일곱 번은 매우 관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용서해 주는 횟수에만 관심했지, 형제를 잃어버린 양처럼 찾아야 할 소중한 가치란 것을 생각지 못하였다. 잃어버린 형제를 찾기 위한 것이라면 횟수가 문제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신념이었다. 용서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형제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잘못을 거듭해서 용서한다.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잘못된 형제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라는 뜻이

다. 관심과 사랑이 빠진 용서는 어찌면 잘못을 용인하고 방임하는 것일는지 모른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야 할 이유는 내 죄를 용서받거나 내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큰 죄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표시로 형제들의 잘못들을 용서하는 것이다. 사랑과 용서와 감사가 풍성한 곳이 바로 천국이다.

28. 새천년시대에서의 실천윤리 2(마 19:1-30)

새천년시대: 여성들이 보호받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성공을 거뒀던 장소였다. 그러나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예루살렘에는 몇 번이나 올라갔었는지 요한복음을 뺀 나머지 복음서들로써는 알 수 없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메시아신분을 드러내신 후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고, 그 곳에 도착해서 일주일 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셨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9장은 이 죽음의 여행 막바지인 유대지경에서 생긴 사건들의 기록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로부터 받은 세 가지 시험은, 배고픈 민중에게 빵을 공급할 수 있겠는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겠는가, 빼앗긴 약속의 땅을 되찾아 줄 수 있겠는가 이었다. 그런데 동일하고 비슷한 시험들이 메시아신분을 드러내신 다음에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에 의해서 되풀이되었다. 16장에서는 빵 문제와 관련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했고, 19장에서는 율법문제를 그리고 22장에서는 정치와 종교문제를 시험하였다.

19장에서 제기된 율법문제는 이혼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는 간음과 관련하여 5장 31-32절에서 이미 한 차례 언급된바가 있다. 시험은 두 가지 물음이었다. 이유가 있다면 아내를 버려도 좋겠느냐는 것과 모세가 이혼증서를 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했는데, 이혼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모세가 명한 이혼증서는 가부장사회에서 남편들이 아내들을 함부로 내쫓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유대사회에서 이혼은 대부분 아내가 남편한테서 버림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전적으로 여성들의 몫이었다. 특히 그것이 간음

으로 인한 것일 때는 여성이 돌에 맞았을 수도 있고, 사회에서 매장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만일 이혼녀가 이혼증서를 지참하고 있다면, 그녀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재혼도 가능했다. 이런 점에서 모세가 이혼증서를 주도 록 한 것은 이혼의 자유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신명기 24장은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열거된 곳인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이혼법이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여성들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있지만, 아직도 근동의 아랍권에서는 여성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2,400여 년 전에는 어떠했겠는가? 이혼증서도 없이 버림당하는 여성들이 다반사였을 당시에 이혼증서를 주라는 모세의 율법은 여성들에게 최소한의 기본권을 인정한 법이었다. 그런데 이 법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마치 이혼을 허용하는 것처럼 악용되었다.

예수님은 율법의 참뜻과 정신이 사랑에 있음을 간파하셨다. “우상숭배하지 말라”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들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영적이든, 육적이든 사랑의 언약이 깨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허락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죄를 허락하셨다고 해서 죄의 값을 면해준 것이 아닌 것처럼, 이혼을 허용하셨어도 우상숭배만큼이나 이혼을 싫어하신다.

새천년시대: 어린이들이 보호받는

2절에서 육신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은 3-15절에서 사회적인 병폐를 문제 삼으셨다. 약자들인 여성과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할 자들임을 교훈하셨다.

새천년시대는 남편으로부터 부당하게 버림당하여 상처를 입는 여성들이 없는 곳이다. “사람을 지으신 이”(4절)의 뜻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것이다.”고 하셨습니다(참고 5:31-32). 타고났거나 타의나 자의에 의해서 고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독신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남녀가 짝을 이뤄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맺어진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신다. 우상숭배와 간음을 몹시 싫어하시는 만큼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끝까지 이어가신다. 하나님의 사전에 이혼이란 말은 없다. 운명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편을 드시며,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 우리와 같은 약자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당신의 외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은 동일한 맥락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신다. 인간은 한평생 죽을 때까지 배우자만 사랑하고 헌신하겠다고 결혼서약을 해놓고서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마음을 줄 수가 있다. 심지어 결혼서약을 파기하고 이혼도 불사한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전능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가 알고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그가 원했던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잘못 알았을 수도 있다. 혹은 뭔가가 탐나서 거짓으로 서약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시면, 한번 마음을 주시면, 한번 선택하시면, 한번 서약하시면, 결코 번복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본받아 사는 곳이 새천년시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약자들인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사랑해야 한다.

앞장인 18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3세 이하의 어린이들과 여성들은 가부장이 사고팔거나 버릴 수 있는 소유물에 불과하였다. 또 원칙적으로 유대인들은 13세 이상의 남성만을 이스라엘로 보았다. 그런 이유로 13세 이하의 어린이들과 여성들은 그들의 계수에서도 빠졌다. 그들에게는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뜰에 출입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회당에서는 본당에 출입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회당에서 이뤄지는 기도모임의 최소인원인 ‘민얀’(minyan)에도 들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개방하신 새천년시대는 이런 차별의 담들이 모두 허물어진 곳이다. 남녀의 차별과 연소의 차별뿐만 아니라, 민족의 차별, 신분의 차별, 계급의 차별까지 모두 헐어버린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었다. 이 모든 차별들이 제거된 시대가 바로 새천년시대이다. 천국은 순진무구한 어린이들 여성들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더 많은 관심과 돌봄과 사랑을 받는 곳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주셨다.

새천년시대: 가난한 자들이 복을 받는

16-30절에 등장하는 청년은 율법을 잘 지키는 정형적인 유대인들의 대표이다.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착실한 맏아들의 범주에 속한 유대인이다. 이 청년의 물음이 앞서 나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시험하는 물음과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성을 가진 물음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십계명과 토라계명들을 모두 지킨 나에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라고 묻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같이 보이지만, “영생”이란 말이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매우 낯선 개념이었다는 점, 16절에서 이 청년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다는 점, 또 이 청년이 호기심을 품고 영생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왔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순수한 물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영생”이란 말이 마태복음에서 처음 등장한 곳은 18장 8-9절이다. 예수님은 어린이나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거나 죄를 범하는 손과 발과 두 눈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혹은 한 눈만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하셨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을법한 청년은 평소 십계명과 토라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혹 자신만큼은 영생을 얻을 자에 속하지 않겠느냐는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 더 높い 도약해야할 단계들이 남아 있었다.

부자 청년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키는 신본주의자였다. 그러나 진정한 신본주의(하나님사랑)는 인본주의(사람사랑)란 사실을 망각한 자였다. “온전해 지는” 일 즉 사랑의 실천을 요구받았을 때, 가진 재물 때문에 결단에 실패하였고, 더 높은 실존단계에로 도약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래서 최상의 실존단계에 올랐던 제자들과 비교대상이 되고 말았다. 결국 그가 가진 재물은 그로 하여금 윤리-종교적 단계를 뛰어넘어 바늘귀로 비유된 기독교적 헌신단계에로 들어설 수 없게 하는 덩치 큰 낙타였다. 움켜 쥔 것을 놓지 않고서는 좁은 구멍에 손을 넣을 수 없는 것과 같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표현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마 23:24)는 표현과 함께 랍비문학에 속한 비유법이다. 고대의 랍비문학에 “코끼리를 이끌어 바늘귀로 통과시킬 수 있는 사람” 또는 “바늘귀로 통과하는 코끼리”란 표현이 있다고 한다.

재물은 분명 인간의 우상이다. 결코 부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재물을 소유한 자가 그것을 우상시할 가능성은 더 높다. 하나님은 재물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싫어하신다. 부자를 혐오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혐오하신다. “부자”는 제1복에서 강조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반대개념이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와 대

조가 되는 표현이다. 이들 말씀은 재물이 많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난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구약 시대의 율의 경우를 보아도 그렇고, 삭개오(눅 19:1-10)와 아리마데 요셉(마 27:57)을 비롯한 수많은 부자들을 봐서도 그렇다.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소유할 복이 있는 자들이다.

29. 새천년시대에서의 실천윤리 3(마 20:1-16)

새천년시대: 노동자들이 보호받는

예수님께서 천국비유로 말씀하신 포도원의 일꾼과 품삯에 관한 마태복음 20장 1-16절의 비유는 가정을 가진 아들을 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하나님의 측은지심을 보여준다.

날품을 팔아 그날그날 근근이 먹고 사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다. 일거리가 많지 않을 때일수록 아버지는 늘 아들이 걱정이 다. 결혼한 아들에게 처자식이 있어서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새벽 일찍 일어나 아들과 함께 일력시장에 나가면 다행히 아들과 함께 뽑혀 같은 일터에서 일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들이 먼저 뽑혀 일터에 불려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아버지가 먼저 뽑혀 일터에 불려나갈 때도 있다. 아들이 먼저 뽑혀서 일터로 향할 때면 아버지는 긴 안도의 숨을 쉰다. 그러나 아버지가 먼저 뽑혀 일터에 나갈 때면 하루 종일 아들 걱정에 마음을 편히 가질 수가 없다. 오늘은 일터에 불려나갔을까, 꼭 불려나 가야 할 텐데. 아직도 뽑혀 나가지 못한 것은 아닐까? 만일 일거리를 얻지 못했다면, 오늘의 끼니는 또 어떻게 해결할건가? 이런 아버지의 측은지심을 가진 인물이 품꾼을 찾는 포도원의 주인이고, 그토록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어서 노동자들이 보호받는 곳이 바로 새천년시대의 천국이다.

3절의 '장터'는 일력시장이다. 일거리를 찾거나 구경나온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다. 일력시장은 날품을 사려는 사람과 날품을 팔려는 사람들이 이른 새벽부터 움직이는 곳이다. 여기에 나오는 삼시는 아침 9시, 육시는 정오, 구시는 오후 3시, 11시는 오후 5시를 말한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시간이 하루가 바뀌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후 5시라면 하루가 끝나기 대략 한 시간

전이다. 하루가 다 마칠 무렵인데도 일감을 기다리는 품꾼들의 절박한 현실을 읽어낸 포도원의 주인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다. 품꾼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본받아 실천해야 할 자들이다. 또 마지막 남은 한 시간까지도 그 미미한 것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한 품꾼들의 희망을 품어야 할 자들이다. “장터에 놓고 서 있는 사람들”은 놓고먹기를 원하는 한량들이거나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라, 기회를 기다리는 희망을 품은 일꾼들이요, 하루하루를 절박하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해가질 무렵까지도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희망을 품고 있는 한 반드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 살만한 곳이 바로 새천년시대의 천국이다.

세상 살아가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안다. 얼마나 눈물겹고 고된 일인가를 알고 있다. 일이 없다는 것만큼 서글픈 일이 없다. 별이가 없다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다. 하루 종일 일감을 기다리며 서성이는 사람들의 아픈 심정을 누구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신다. 문제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심정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라는 것이다.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착한 맏아들의 냉혹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침 6시부터 뿔뿔히 남들보다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혜택과 행운을 누린 자들의 남보다 더 많이 가질려는 이기심에 차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새천년시대: 차등원칙이 적용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하루살이 날뿔들이들이 넘쳐나는 불평등한 사회이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날뿔들이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 그러나 경기에 따라 일거리가 줄어들면 하루 사분의 일 데나리온까지 품삯이 내려가기도 했다고 한다. 바벨론 탈무드에 의하면, 대학자 힐렐이 랍비수업을

받는 학생 때 하루 절반 데나리온을 받고 일했던 날뽕팔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영안을 뜨면 하루 가운데 마지막 남은 한 시간만을 일한 품꾼들에게조차도 하루 품삯 전부를 쳐서 주는 한없이 은혜로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의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새천년시대의 천국의 품삯은 무한경쟁을 통해서 능력과 공로에 따라 매겨지는 세속적인 인센티브 방식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매겨진다.

둘째, 하나님은 오후 5시까지도 할 일 없이 장터를 서성이는 날뽕팔이의 절망을 읽어내고 그들을 찾아 나신다. 그러므로 그들의 절망을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새천년시대의 천국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늦게까지 일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기술이 없거나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6절에 보면, 주인이 오후 5시에 장터에 나가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묻는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기서 우리는 일거리가 없는 날뽕팔이들의 비애를 읽고 계신 포도원 주인의 심정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주인의 물음은 게으르고 무능한 부랑아들을 나무라는 말이 아니라, 도리어 하루살이 날뽕팔이와 그의 가족들의 절망을 이해하고 위로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자리에 연대하고 참여하려는 집주인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포도는 고대근동사회에서 부활의 상징이었다. 따라서 포도원은 새천년시대의 천국을 상징하고 주인은 하나님을 말한다. 새천년시대의 천국은 한 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하루 품을 사는 나라이다. 또 필요에 넘치도록 날뽕을 사고 모두에게 절실한 하루품삯을 지불하는 나라이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러나 이 어리석음이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의 특징이다.

품꾼들이 약속받은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었고, 아무도 약속한 품삯을 더 받거나 덜 받지 않았다. 그들이 받은 품삯은 하루살

이에 필요한 만큼의 생활비였다. 포도원의 주인은 그들이 일한 시간에 관계없이 그들과 그들의 가족의 생계에 꼭 필요한 하루살이 품삯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불평이 없어야 할 텐데 그들 가운데 많은 시간을 일한 사람들이 불평을 털어놓았다. 그들이 화를 낸 내용은 “단 한 시간만 일한 사람들이 온전한 하루 품삯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불공평한 일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였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불공평함이 새천년시대의 천국에서는 의로운 것이고 가장 공평한 처사이다. 여기서 주인은 노동자와 그에게 딸린 식구들에게 꼭 필요한 생계비를 생각한 것이다. 일의 양으로 평가하지 않고, 필요의 양으로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엿볼 수 있다. 이 하나님의 공평하심 즉 노동자들에게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주는 차등원칙이 실천되는 곳이 바로 새천년시대의 천국이다.

새천년시대: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온전하기를 바라고 면담을 청한 한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제자가 되라고 권하셨다. 그러자 재물이 많았던 그는 수심에 쌓였고, 결국 제자 되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갔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29절)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30절)는 충고도 잊지 않으셨다. 사실 제자들은 땅의 것 즉 세상에서의 성공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랐다. 여전히 그들의 귀에는 “여러 배를 받고”란 말만 들렸고, “영생을 상속하리라”는 말의 뜻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복이란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니 먼저 되었다 해도 언제라도 뒤쳐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포도원품꾼의 비유를 마치 시면서,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는 말씀을 반복하셨다. 포도원품꾼의 비유는 하루 벌이 노동자들의 고충을 위로하고 돌보는 의미도 있지만, 먼저 된 품꾼들은 유대인들이고, 나중 된 품꾼들은 기독교인들이며, 품삯은 구원을 말할 수 있다. 하루 벌어 입에 풀칠하는 가난한 노동자들로서 자신들을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도록 뽑아준 포도원 주인에게 누가 더 고맙게 생각하겠는가? 아침 6시부터 12시간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은 사람들이겠는가, 아니면 오후 5시부터 단 한 시간만 일하고도 하루 품삯을 다 받은 사람들이겠는가? 주인에 대한 고마움은 단 한 시간만 일하고도 하루품삯을 다 받은 사람들이 가장 클 것이다.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풀타임(full time)으로 일한 사람들은 하루 품삯을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권리가기에 앞서 행운이다. 그들이라고 해서 일감을 구하지 못해 끼니를 걱정하며 일력시장을 서성이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오랜 외로움을 모를 리 없다. 그런 그들이 노동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헤아려준 주인의 너그러운 마음이 오히려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다. 먼저 택함을 받았으나 민족배타주의에 빠져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배려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한편 정상적인 시간에 일군으로 뽑히지 못한 사람들, 특히 온종일 일감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자신들에게 그 짧은 시간이나마 일감을 주는 주인이 너무나 고마울 것이다. 늦은 시간에 일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온전한 품삯을 기대할 수도 없거니와 단 한 시간만이라도 일을 시켜주는 주인에 대한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더 열심히 일할 것이다. 그리고 적은 시간을 일하고도 하루 품삯을 온전하게 받는다면, 받는 이들의 마음이 어떨겠는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겠는가? 몇 번씩이나 고맙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공정한 경쟁을 뚫고 당당하게 뽑혀서 일감을 얻지 못하고,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긴 주인의 자비를 입었

다고 생각한다면 말이다. 먼저 된 자들이 항상 먼저 되고, 나중 된 자들이 항상 나중 되는 숙명의 고리가 끊기고, 나중 된 자들이 먼저 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면 말이다. 그곳이 바로 새 천년시대의 천국이다.

30. 새천년시대에서의 실천윤리 4(마 20:17-34)

새천년시대: 공동선이 추구되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품꾼으로 뽑힌 사람들은 그들보다 늦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와 일하고 동일하게 하루 품삯을 받은 사람들보다 재수가 없거나 운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행운을 타고난 사람들이다. 그들이 제일 먼저 뽑혀 일터에 나간 것은 그들이 선천적이거나 사회적인 환경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포도원에 늦게 뽑혀 온 사람들보다 일터에 뽑혀나갈 확률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었다. 그런 그들이 약속받은 임금을 다 받고도 주인에게 불평을 한 것은 자기들보다 일터에 뽑혀나갈 확률이 훨씬 낮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은 처사였다.

평등을 옹호한 전 하버드대 정치철학교수 존 롤스는 개인의 타고난 재능은, 노력으로 일군 성공임을 인정할지라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공(功)이 아니라 운(運)이 좋았던 것이므로, 그 재능을 개인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행운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과 이익을 나누기 위한 정책, 곧 소외계층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우대정책과 복지정책을 펼쳐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의롭고 선하다는 윤리철학을 제공하였다. 반면에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개인이 타인의 행복이나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능력위주, 무한경쟁, 자유시장, 적자생존, 양육강식, 힘의 논리를 주장한다. 그들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동선을 장려할 수단들과 낙오자를 보호할 안전장치에 반대한다. 만일 국가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드린다면, 약자는 누가 보호할 것인가?

예수님 시절에 유대인들은 부와 건강과 명예와 권세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고, 가난과 질병을 죄 때문으로 여겼다. 따라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 권리요, 가난과 질병은 저주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과 정 반대였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들이 누리는 행운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하셨다(마 23:23).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혼자서 아니다. 혼자서는 부든 명예든 권세든 누릴 수가 없다. 개인이 누리는 부와 명예와 권세는 모두가 사회와 국가가 있음으로,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있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부인 것이다. 개인이 아무리 재능과 능력이 뛰어나도, 그가 속한 공동체가 무너지면, 그도 함께 무너지게 된다. 공동체가 발전하면 개인도 함께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발전은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고, 공동체의 발전은 개인의 발전에 도움을 준다.

이웃을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마 25:40)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한 바와 다름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신 것이다. 우리는 곧잘 하나님께 행하는 것과 사람에게 행하는 것 사이의 관계를 잊고 지낸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요일 4:20)는 말씀을 상기해야 한다.

새천년시대: 눈픈 자들의 1

마태는 마가처럼 예수님의 수난예고를 세 차례, 16장 21절, 17장 23절 그리고 20장 19절에 각각 소개하였다. 20장 17-34절에서 보듯이, 수난예고직후에 제자들의 몰지각한 행동이 나오고,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훈련에 관한 말씀이 나온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마가의 기록의도 때문이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우매함을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의 우매함을 깨우치려한 때문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로 삼은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제자들의 몰지각한 행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매한 행동인 것이다.

예수님의 수난예고들은 세례 요한이 죽고 메시아신분을 밝히신 다음부터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이뤄졌다. 예수님께서 성공을 거둔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할 때가 왔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때에 대한 예수님의 자각은 매우 명확하였다. 이를 마태는 “이때로부터”(마 16:21)라고 소개하였고, 누가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눅 9:51)라고 적었으며, 요한은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요 13:1)고 증언하였다. 요한의 증언처럼, 예수님은 주후 30년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하셨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민중이 원했던 메시아는 불잡혀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 줄 자였다. 이 때문에 갈릴리지역에서 명성을 얻고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데 성공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소식은 제자들은 물론이고 민중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기에 충분하였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머지않아 통치자들이 될 거라는 꿈에 부풀었다. 반면에 예수님은 처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처럼 발걸음이 쇠덩이를 매단 듯이 무거웠고, 머리엔 수심으로 가득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이 여행은 정말 지독히 고독하고 고통스런 것이었다. 제자들이 함께했고, 민중이 노변에서 환호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고 생

각이 되어야할 제자들은 명예와 권세와 재물에 눈이 멀어 상황 파악을 할 수 없게 된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마음은 고무풍선처럼 허풍이 가득하였으며, 머리엔 권모술수만이 난무하였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세 번이나 고난당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몰이해를 깨우치려 하셨다.

그러나 수난예고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첫째로 “주여, 그리마옵소서”라고 말하며 붙들고 말린 것이었다. 둘째는 심히 근심한 것이었고, 셋째는 치맛바람 로비였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말린 것과 근심한 것이 스승을 위해서였는지, 자신들의 꿈의 실현을 위해서였는지는 분명치 않다. 두 가지 모두 다 옳을 수 있다. 그들의 반응이 순수했는지, 불순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치맛바람 로비가 마지막 세 번째에 소개된 것을 보면,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현실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여리고의 두 맹인처럼 눈을 떠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천년시대: 눈쁜 자들의 2

29-34절은 눈을 떠야할 제자들을 위한 기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제자들이 또한 우리들이다. 여리고의 두 맹인이 눈뜨기를 사모하여 소리 질러 예수님을 찾으며, “주여, 우리를 붙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간청한 것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두 맹인은 예수님의 그 오랜 자비를 입고 눈을 뜬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다. 천국은 바로 이런 눈쁜 자들의 나라이다. 눈을 뜬 자들의 세상은, 26-28절처럼, 크고자 하기보다는 섬기는 자들의 세상, 으뜸이 되기보다는 자원하여 섬기는 자들이 되는 세상,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기를 즐기는 자들의 세상이다.

눈쁜 소경을 주제로 쓴 소설로써 노벨문학상을 받은 주제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가 있다. 이 소설은 어느 날 갑자기

기 멀쩡하던 사람이 눈이 멀고, 눈먼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눈이 멀고,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눈이 멀어버리는 상황,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펼쳐지는 참혹함을 그렸다. 눈먼 한 사람이 전체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말하고자 한 것이다.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주제 사라마구는 현대인들을 눈뜬 소경 혹은 볼 수 있으면서도 보지 않는 소경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눈먼 다수가 지배하는 세상은 참혹하기 그지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라마구는 눈먼 다수보다도 눈뜬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한다. 눈먼 대중이나 눈먼 '대'자 붙은 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뜬 모세, 눈뜬 엘리야, 눈뜬 예레미야, 눈뜬 예수님과 같은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린다는 교훈을 준다.

이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유일하게 눈이 멀지 아니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안과의사의 아내'이다. 이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반전이 일어난다.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한다.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인간애가 살아나고, 연대의식이 살아나고, 나눔의 정신이 살아나고, 타인에 대한 책임의식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이 눈에 들어오고, 소외되고 낙오된 자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렇게 또는 그런 식으로 눈먼 죽음의 도시가 눈을 뜨기 시작한다. 눈먼 한 사람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눈먼 죽음의 도시가 되기도 하고, 눈뜬 한 사람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활기찬 도시가 되기도 한다. 눈뜬 한 사람이 전체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말하고자 한 것이다.

다른 유대인들과 다름없이 예수님을 땅의 문제와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고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자 메시아이심을 증명할 하늘로부터 내리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표적들을 잇달아 행하자 머지않아 예루살렘에서 얻게 될 명예와 권세와 재물에 집착 눈이 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예수님의 수난을 말리고 그 때문에 사단이란 소릴 듣는가 하면, 누가 더 높으냐며 서로 다투었

고, 야고보와 요한은 치맛바람 로비를 통하여 예수님께 영광의 자리를 청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눈을 떠 자신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필요가 있었다. 여리고의 두 맹인이 눈을 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듯이 말이다.

31. 새천년시대 개방을 위한 투쟁 1(마 21:1-17)

새천년시대 개방을 위한 거사(擧事)

마태복음 1-20장까지는 예루살렘 밖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기록이고, 나머지 21-28장까지는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기록이다. 특히 21장부터 27장까지는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굴 무덤에 안치되시기까지의 한 주간의 사건들의 기록이다.

13장에 실린 8개의 천국비유를 마태복음의 중심축으로 봤을 때 후반부에 속하는 14-17장에서 메시아신분을 노출하시고 18-20장에서 새천년시대에서의 실천윤리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새천년시대의 출범을 위해서 반드시 접수해야할 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춘분이 막 지난 어느 봄날 금요일 늦은 오후에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셨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엄숙한 안식일이 시작되므로 이 날은 예배와 안식으로 여독을 푸셨다.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이 되자 예수님은 입성을 시작하셨고, 이를 본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고 이때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민중은 해방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환호하기 시작하였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9절)라고 외쳤다. 이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종려주일예배이다.

이 사건은 주후 30년 4월 2일 일요일에 일어났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란 말은 "나를 구원하소서! 메시아시여"란 뜻이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새천년시대의 새 질서를 출범시킬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유감없이 발휘하셨다. 그러나 이런 일은 목숨

을 담보(擔保)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다. 예수님은 그런 위험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지만, 먼 옛날 모세가 지팡이 들고 홍해를 건넌 것처럼 혹은 79년 전인 주전 49년 1월 10일 율리우스 시저가 새 로마시대를 열기위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며 백마를 타고 루비콘(Rubicon) 강을 건넌 것처럼, 예수님은 새천년시대으로써 교회시대를 열기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감람 산 벳바게를 출발하셨다. 여기서 백마는 전쟁의 상징이지만,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다(눅 9:9-10).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은 새천년시대를 열기위한 거사(擧事) 일이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위한 D-Day 이었다. 비록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가 짧은 한 주간에 불과했지만 싸움은 치열하였다. 거사를 일으킨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유감없이 발휘하셨지만, 혈혈단신(孑孑單身)인데다가 비무장에 무저항이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금요일의 시작인 목요일 밤에 최후만찬을 마치신 후 겐세마네동산에서 체포되시어 밤새워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아침 9시경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거사가 처참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새천년왕국은 피의 대가로 얻어지는 유한한 세상나라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받는 영원한 하늘 나라였기 때문에 군사도 무기도 군마도 필요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이다. 입성 후에 행하신 첫 번째 일은 성전 안에서 이뤄지는 부정한 상행위들을 몰아내고 기도하는 집으로 돌려놓으신 것이었고(12절), 두 번째 일은 장애인들을 돌보신 것이었으며(14절), 세 번째 일은 새 시대와 새 질서를 위한 논쟁이었다(15-16절).

새천년시대 개방을 위한 고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에 일어난 주요 사건들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종려주일사건이고, 둘째는 고난주간사건이며, 셋

째는 부활주일사건이다. 이 세 가지 사건들은 출애굽사건들에서 그 모형들을 갖고 있다. 출애굽사건이 가나안땅 입성에서 성취되었지만 투쟁 없이 평화적으로 얻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세례 요한의 죽음직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신 것은 그분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행하시는 자 곧 오실 자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한 것이었다. 이때부터는 메시아이신 사실을 숨기지 않으시고 밝히셨다. 그러나 그것은 메시아를 제거할 목적을 가진 권력층과 자기들이 원하는 빵과 정치경제 군사적인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주려하지 않고, 원치 않는 하늘의 것과 영적인 것들만을 설교하는 예수님에게 배신감을 느낀 민중이 합심하여 예수님을 끌고다언덕으로 토끼몰이 하듯이 몰고 가는 신호탄이 되고 말았다. 매우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현상이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출현하였지만, 그들은 메시아가 자신들을 제2가나안땅으로 인도하여주기를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메시아가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따라와 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자신의 신분을 감춰야했었고 자신이 메시아인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했어야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신분의 노출의 시점을 죽음의 시점으로 설정해 놓고 계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신 후에는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마 9:30) 또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다”(마 12:16, 막 8:30, 눅 8:56). 그러나 매우 역설적으로 복음서는 메시아의 죽음의 시점을 “내 때”(마 26:18, 요 2:4, 7:6,8) 또는 “영광을 얻을 때”(요 12:23)로 적고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오히려 예수님께는 영광을 얻으실 때인 것을 밝혀놓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종려주일사건의 완벽한 이해는 뒤따르는 고난주간을 인식하는데서 이뤄진다. 종려주일의 환호성은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고난주간의 입문을 의미한다. 그리고 십자가죽음에 이르는 고난은 부활에서 완성된다. 고난주간의 예표는 두 가지 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첫째는 광야사막에서 펼쳐

진 40년간의 고난행군이고, 둘째는 가나안땅 입성 후에 펼친 투쟁기간이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고난주간의 바른 예표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고난행군과 투쟁기간이 있고난 다음에야 비로소 가나안땅이란 새천년시대가 열렸다는 점이다.

또 종려주일의 환호성은 일주일 후에 있었던 부활주일의 기쁨과 환희를 위한 전주곡이었고,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사이에 고난주일이 놓인 것과 홍해해변의 환호성이 40년간의 사막생활과 가나안땅 투쟁 후에 있었던 가나안안식을 위한 전주곡이었듯이, 구원을 약속받은 성도들의 교회생활은 장차 누릴 영원한 가나안안식을 위한 전주곡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부활의 축복을 바라보고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또 가나안안식을 바라보고 40년간의 사막생활과 투쟁기간을 극복한 히브리인들처럼, 영원한 가나안안식을 바라보고 현세의 고난들을 믿음과 성령님의 도움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

새천년시대 개방을 위한 무기(武器)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모든 사람들의 흥분과 긴장을 고조시킨 사건이었다. 예수님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제자들은 권세를 탐했기 때문에 흥분의 고조요, “이번 명절에는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반란을 주도할 것인가?”라는 기대 때문에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민중에게는 흥분의 고조요, 권력자들에게는 긴장의 고조였다. 유월절은 해방절이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아래 살던 유대인들로서는 이 시기에 웬지 모를 흥분과 기대에 휩싸이곤 하였다. 이 시기에 사람들의 몸과 마음은 마치 부풀어 오른 풍선처럼 건들기만 해도 터질 것 같았다. 그래서 유월절 명절은 민중봉기의 가능성이 연중 가장 높은 시기였고, 로마총독과 대제사장과 같은 권력자들에게는 결코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숨 가쁜 한 주간이었다.

이런 긴박한 상황 때문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 모습이 나귀를 탄 우스꽝스런 모습이었을지라도, 환호하는 민중의

외침과 규모로 봐서는 권력자들의 의심을 피할 수 없는 일이었고, 바닥에 쏟아진 물처럼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다. 하버드대학교의 하비 콕스 교수는 이 일을 두고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를 질주하다가 가속이 붙어 더 이상은 멈춰 설 수 없게 되는 이른바 '불퇴의 지점'에 이른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쯤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예수님만이 최후의 승리자란 점이다. 권력에 맞서 이긴 것은 예수님의 비폭력저항이었다. 예수님은 군사도 모우지 않았고, 백마도 타지 않았으며, 그 어떤 무기도 가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분이 죽음을 모면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스가라서 9장 9-10절의 예언대로 그분이 펼쳤던 천국운동은 그야말로 그분의 사후에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급기야는 전 세계를 정복하였다.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바보처럼 여겨졌던 예수님이 장엄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신 것이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분명 실패한 메시아였다. 그러나 예수님의 실패는 성공에 중독된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 또 세상적인 성공이란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말해 주기도 한다. 서울대학교 김병중 교수가 즐겨 그랬던 '바보 예수'와 홍종명 화백이 그린 '바보 그리스도'가 이런 의도를 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분들이 그린 '바보 예수' 또는 '바보 그리스도'가 그 잘나빠진 인간의 능력과 지혜란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나귀를 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백마를 탄 개선장군의 입성과 비교했을 때, 분명 우스꽝스런 바보의 행진이었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허망한 세속에 젖어 사는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주는 조소이자 심판일 것이다. 결론론적이지만, 예수님은 결단코 실패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분은 평화스런 새천년왕국운동으로 전 세계를 손에 넣은 위대한 승리자이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다. 비록 예수님은 보좌대신에

십자가에, 왕관대신에 가시관을, 홀대신에 갈대를, 올리브마사지 대신에 채찍 맞음으로 인한 피범벅을, 옥쇄대신에 쇠못을, 금띠 대신에 창찔림을, 왕복대신에 알몸의 수치를 당하셨지만, 그분의 예루살렘 입성과 민중의 환호성은 그분과 성도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거들 대승(大勝)에 대한 예표이다.

32. 새천년시대 개방을 위한 투쟁 2(마 21:18-46)

새천년시대 개방을 위한 바른 지식

마태복음의 이해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대립각을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보낸 생애 마지막 한주간 일들 가운데 위선이 가득하여 진실과 영성이 없던 유대지도자들과 유대교를 고발하고 징계한 상징적 사건들이 성전에서 이뤄진 부정한 상행위들을 몰아내신 것이었고(12절),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것이었다.

18-27절에서 말라죽은 무화과나무는, 계명들(Mitzvot)을 인위적으로 해석하여 만든 장로들의 전통들(Gezeirot)을 열심히 지키지만, 열매가 없고 위선과 허례허식의 잎사귀들만 풍성한 유대지도자들과 그들의 유대교를 상징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셨다”는 뜻은 다분히 상징성을 띤 표현이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의 양식은, 육신의 배를 채우는 빵만이 아니라,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시장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일, 천국의 일, 살림의 일, 생명의 일이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부터 유대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성에서 이런 하늘의 양식이 있는가하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무화과나무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다. 특히 무화과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 이해되었다. 이런 이해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렸다는 것에서 근거한다(창 3:7).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는 토라율법에 관한 지식을 뜻한다. 토라율법은 선과 악

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기 때문이다. <유대지도자들이 계명의 불순종으로 얻은 수치심을 계명들의 울타리 법들로 덮으려 한 것은 마치 아담과 이브가 계명을 불순종하고 얻은 수치심을 무화과나무의 잎사귀로 덮으려했던 것과 같다. 열매가 없었던 유대지도자들이 울타리 법들로 자신들의 삶을 포장하려 했던 것이다. 결국 유대지도자들이 열심을 보였던 울타리 법들은 계명을 상징한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잎사귀였던 것이고,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풍성했던 무화과나무는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한 유대지도자들과 유대교를 상징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식의 권위는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있지 않고,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근거한다. 예수님과 유대지도자들 사이에 권위 논쟁이 벌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식한 민중의 눈들로 보아도 예수님에게 있는 권위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는 없었다. 그들이 쌓아올린 지식 즉 열매는 민중을 억압하는 수단에 불과한 외식과 위선의 잎사귀들으로써 민중을 먹일만한 열매가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마 7:29)는 말씀의 뜻이 여기에 있다.

일찍이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혀 불쏘시개가 되고 만다고 하셨다(마 7:20). 열매가 없던 무화과나무가 죽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본장 31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둘째 아들로 설정된 세리와 창녀들이 저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선포하신 것과 또 4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선포하신 뜻이 여기에 있다.

토라율법에 관한 지식을 한껏 자랑삼았던 자들에게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까닭의 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그 속에서 예수님과 초기기독교인들이 발견한 올바른 메시아 상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과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어떠한 것인가를 확고히 믿고 의심치 않는다면, 무화과나무에게 이뤄진 것처럼,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KO펀치를 날린 것처럼 탄압세력을 보기 좋게 물리칠 수 있음을 밝히셨다.

새천년시대 개방을 위한 바른 순종

예수님께서 시장기를 느끼셔서 무화과열매를 찾으셨던 때는 무화과를 수확하는 철이 아닌 주후 30년 4월 첫 주간의 월요일과 화요일이었다. 무화과의 첫 수확은 6월경에 시작된다. 3월경에 새잎사귀가 나올 때, 새잎사귀 밑에 열매가 생기지만, 체리 정도의 크기로 자란 후 대부분 떨어져 버린다. 이렇게 너무 이른 시기에 열렸다가 떨어지는 무화과를 '겨울무화과'라 부르는데, 이 열매의 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예수님께서 찾고자 했던 열매가 이 '겨울무화과'였을 수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나무를 저주하여 죽이신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시장기는 육신의 배고픔이었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배고픔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포도원을 가진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28-32절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맏아들은 율법과 의를 강조하면서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인한 유대 지도자들을, 둘째 아들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회개한 죄인과 세리와 이방인을 대표한다. 두 아들 가운데 어느 아들이 불순종했는지는 불분명하다. 개역과 개정개역은 맏아들이 불순종한 아들로 되어있지만, 그밖에 번역들과 영어성경들은 둘째 아들이 불순종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에 실린 돌아온 탕자비유로 보거나 신약성경의 내용으로 볼 때, 또 본문 31-32절에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와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고 한 말씀을 종합해볼 때, 맏아들을 순종하는 시늉만 내고 끝내 불순종한 아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러나 둘째 아

들을 순종하는 시농만 내고 끝내 불순종한 아들로 보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둘째 아들로 묘사된 세리와 창녀들이 믿고 회개하여 맏아들로 묘사된 자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과 맏아들로 묘사된 자들은 “끝내 누우쳐 믿지 아니 하였기” 때문이다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의 비유와 돌아온 탕자비유의 핵심은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뜻이다. 핵심은, 31절의 말씀대로, “그들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는가?”이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여 실천하였는가?”이다. 아버지의 뜻은 매우 분명하다. 타락한 죄인이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세리와 창녀들이 믿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여 하나님의 계명들의 정신이 신실한 믿음과 정의와 사랑을 요구하는 것임을 모른 채 인위적으로 수많은 전통법들(Gezeirot)을 만들어 지키면서 외식과 위선과 선민의식에 빠져 하나님의 둘째 아들인 죄인과 세리와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외면하였고, 그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곡해한 것일 뿐 아니라, 바른 순종이 아니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은 세상에 나가 선교하라는 명령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만을 구원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들을 일꾼(제사장 또는 선교사)으로 택한 것이었지, 구원으로 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점을 오해하였다.

새천년시대 개방을 위한 바른 일꾼

33-46절의 악한 농부의 비유는 유대교에 맡겼던 역할을 빼앗아 기독교에 넘기겠다는 뜻이 담긴 말씀이다. 유대종교지도자들과 그들 종교의 실패를 더는 내버려두지 않고 기독교를 통해서 새천년시대를 개방하시겠다는 뜻이다. 41절 “그 악한 자들을 진

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 것이다”한 말씀이 그 증거이다. 여기서 포도원은 세상 혹은 이스라엘이요, 그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농부들은 유대종교지도자들을 말한다. 그 열매를 받아오도록 보냄을 받은 종들은 예언자들이며, 그 주인의 아들은 메시아 예수님이시다.

농부들이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인 후에 “유산을 차지하자”(38절)한 말씀의 뜻은 유대종교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성전을 독점한 채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교제를 거부한 사실에서 드러났다. 유대종교지도자들은 하나님이 타민족들의 신이 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한분밖에 없는 신을 독점해 버렸으니, 타민족들에게 참신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그런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막기 위해서 유대종교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계명들 이외에 안식일법, 정결법, 음식법, 손씻기법과 같은 수많은 율타리법들과 관습법들을 만들어 방어막을 겹겹이 쳤다. 이 신(神)의 독점의식의 절정이 예루살렘 성전이였다.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에는 단 한 개의 성전만 허락되었다. 그나마도 하나님을 지성소에 묶어뒀다. 그 하나님을 대제사장만이 일 년에 단 하루 법궤 앞에서 두서너 차례 독대할 수 있었다. 보통사람들은 성전내부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일신 하나님이 성전지성소에서 해방되신 때는 외침들에 의해서였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능욕당하는 치욕이 있고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성전지성소에서 해방되셨다.

농부들이 포도원을 빼앗아 독차지하려고 했다는 말씀의 또 다른 뜻은 유대종교지도자들이 메시아를 거부한 사실에서 드러났다. 기득권 세력은 새 세상을 원치 않는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한 이유는 그들이 메시아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칼 한 자루 몸에 지니지 아니한 예수님을 반란자로 죽이려한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란 확신이 섰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메시아신분을 드러내신 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일주일 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하고 기다렸던 메시

아는 그 신분이 노출되자마자 아이러니하게도 곧바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 즉 기독교에 넘기셨다는 것이 초기기독교인들의 인식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봉사자로 세워 열방선교의 그릇으로 쓰시려 하였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여 하나님을 그들만의 하나님으로, 그들 조상만의 하나님으로, 그들 민족만의 하나님으로 독점해버렸고, 안식일법과 정결법과 같은 율타리법들을 만들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행동, 즉 선교의 대상인 이방인들과의 접촉과 식탁교제를 차단시켜버렸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신 이유가 이 때문이었다(히 10:9).

33. 새천년시대 개방을 위한 투쟁 3(마 22:1-14)

새천년시대를 거부한 실족

마태복음 22장 1-14절의 비유는 천국잔치초대에 마땅히 응해야 할 유대인들이 그들의 세속적인 관심과 희망 때문에 초대에 응하지 않았음을 밝혀준다. 유대인들은 유한하고 잠정적인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가치에 심하게 꽂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한테도 차별 없이 미친다는 것을 모르고 천국잔치의 무한 가치를 무시해 버렸다.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에서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천국은 교회이며,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혼인잔치는 교회에서 펼치는 복음잔치를 말한다. 따라서 이 비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새천년시대인 교회로의 초청에 관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혼인잔치에 손님 자격이 아니라 신부의 자격으로 참여한다. 비유의 성격상 그리 설명되지 못하였을 뿐이다. 천국의 성격을 좀 더 엄격하게 말하자면, 하늘 가나안땅이 천국이다. 교회는, 가나안땅의 맞은편이 광야인 것처럼, 하늘 가나안땅의 입문을 앞둔 광야와 같은 곳이다. 따라서 천국잔치는 하늘 가나안땅에서의 잔치일수도 있고, 광야에서 미리 맛보는 잔치일수도 있지만, 마태복음 22장의 천국잔치는 광야에서 미리 맛보는 잔치, 즉 교회에서의 복음잔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임금의 종들은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아니라 교회시대의 일꾼들이다. 이 일꾼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원한 하늘 가나안땅을 약정 받고 보증(선수금) 받고 인침(도장) 받아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샘물을 미리 먹고 마시는 복음잔치에로 민족성별 빈부귀천의 차별 없이 누구든지 믿는

자들을 초대하려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천국잔치에 참여해야 할 일순위자들은 유대인들이다. 바울이 선교지에서 힘썼던 전도대상의 일순위도 항상 유대인들이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을 죽이기까지 하였다. 유대인들이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가? 유대교에서 복의 개념은 땅의 것이지, 하늘의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장차 올 세상이란 문자적인 가나안땅이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사업성공(5절)과 같은 세속적인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였고, 열방민족들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깨닫지 못하였다.

본문의 비유에서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유대인들의 실족(거부)이 이방인들의 개종에 유익(기회)이 되었다고 보았다. 그들이 실족한 이유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엡 3:9)과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이방인)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고전 2:7)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유대인들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엡 3:8)이 영적이고 신령한 것임을 깨닫지 못했고 문자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오해하였다. 바울은, 만일 유대인들이 이 비밀한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고전 2:8)고 하였다. 유대인들이 성령님이 계시하신(고전 2:10, 엡 3:3) 이 비밀한 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은 그들이 육에 속했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다”(고전 2:14)고 하였다.

새천년시대를 거부한 물질 대가

7-8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말씀은 주후 66년부터 73년까지 치러진 유대전쟁에 관한 말씀으로 풀이

된다. 따라서 유대전쟁은 천국잔치에의 초대를 거부한 결과 또는 그 응보로 이해되어진다.

유대인들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식민지가 되었고, 주후 70년 로마와의 전쟁에 패하여 656년간 속주민으로 살아온 조국에서조차 쫓겨나 1948년 건국 때까지 1878년간 남의 나라들에 흩어져 살았으며, 그 기간에 1200만 명이 학살당하는 끔찍한 비극을 겪었다.

전쟁의 발단은 주후 66년 유대총독 플로루스가 체납된 속주세 대신에 성전의 보물창고에서 17달란트의 금화를 몰수한 데서 비롯되었다(노동자 20만5천명의 하루 일당에 해당). 이에 분노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기해 반란을 일으켰다. 과격파인 열심당원들의 습격을 받아 로마 수비대원들, 온건파인 대제사장 등이 학살당하였다. 그해 6월에 열심당원들은 로마군 수비대가 주둔해 있던 마사다 요새도 습격하여 장악하였다. 그러나 70년에 예루살렘은 5개월의 격전 끝에 함락되었다. 8월 10일 성전에 불이 붙었고, 9월 20일에 저항이 끝났다. 그리고 철옹성 마사다에서 끝까지 저항하던 936명의 남녀유대인들이 73년 유월절 밤에 자결함으로써 유대전쟁의 막이 내렸다. 전쟁에 참전했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포로로 잡힌 자가 9만 7천명, 사망자가 110만 명이나 되었다. 대부분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5개월 동안 포위되는 바람에 희생된 유대인들이었다.

주후 66-73년의 유대전쟁은 기독교가 유대인들의 탄압에서 벗어나 세계종교로 발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배타적 유대주의 틀에 갇혔던 유대인들의 통제아래 있던 예루살렘교회의 붕괴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기독교는 유대주의로부터 해방을 맞게 되었고, 이방인복음주의교회들이 천국복음잔치의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주후 30년 베드로가 세운 예루살렘교회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수장으로 한 유대주의 기독교였다. 유대주의 기독교란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그대로 지키면서 예수님을 오실 자로 예

언된 메시아로 믿는 유대교적 기독교(Messianic Jews)를 말한다. 이 기독교는 신약성경의 기독교라고 말하기 어려운 유대교에 속한 나사렛파(Notzrim) 정도였다. 그러나 신약성경 기독교로써는 꽤 다행하게도 이 예루살렘교회가 40년 만에 문을 닫게 됨으로써 더 이상의 권위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유대전쟁으로 인해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였기 때문이다. 이 전쟁이 끝나고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세웠던 안디옥교회는 물론이고 로마제국 전역에 세워진 수많은 선교교회들이 더 이상 유대교적 율법주의의 간섭을 받지 않게 되었고, 그들의 폐쇄적 가치관과 세계관의 틀에서 벗어나 복음주의 신약성경기독교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유대인들이 왕국멸망이후부터 6백년간이나 기다려서 만난 진짜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를 거부하는 이유는 그들의 희망이 기독교의 주장처럼 영적이고 내세적이며 천국중심의 안식과 평강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현세적이며 토지중심의 안식과 평강을 구하기 때문이다.

새천년시대를 경홀히 여긴 영적 대가

9-10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 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는 새천년시대의 천국복음이 민족성별 남녀노소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유대인은 물론이요, 죄인과 이방인에게까지 활짝 열려있음을 말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새천년시대가 열렸음을 말한다. 바울은 이 시대를 로마서 10장 12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시대,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시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는” 시대라고 정의하였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떨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고 하였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민족성 별 빈부귀천에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영생이 주어지는 시대를 선포한 것이다.

11-14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게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에서 예복은 하객을 위해 미리 준비된 혼인예복을 말한다(왕하 10:22). 혼인 잔치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히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혼인예복을 갖추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 자들이었다. 따라서 참석자들은, 졸업식 때 받아 입는 가운데처럼, 준비된 예복을 받아서 입기만 하면 되었을 것이다. 만일 본문에서 말한 천국이 교회천국을 의미한 것이라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은 교회입문에 합당치 아니한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짓 교인이거나 사업목적이나 이단사상으로 미혹하기 위해 침투한 자들일 것이다. 초기 교회들에는 거짓 사도, 거짓 교사 또는 거짓 선지자로 언급된 이단자들이 있었으며, 교회 내부에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과 방탕한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침투해 있었다. 이런 이들은 하늘 가나안땅에 합당치 아니한 자들이었다. 마치 광야사막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다가 심판을 받아 죽어 사막에 묻힌 자들과 같다. “바깥 어두운” 곳은 지옥 타르타로스(Tartaros)를 말하는 것일 수 있다. 구원 받지 못한 자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대 속죄일에 흰옷을 입는다. 흰옷은 죄 사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약성경에서 예복은 신실한 믿음을 말한다. 계시록 19장 7-8절은 흰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적고 있는데, 이는 성도들의 행위공덕을 말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의를 지킨 신실한 믿음을 말한다. 흰옷을 받은 순교자들(계 6:10절)과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선 큰 무

리(계 7:9)는 모두가 “이기는 자”(계 3:5) 즉 끝까지 신의를 지킨 신실한 자들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14절의 “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말씀은 초청은 누구나 차별 없이 받지만, 초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뜻이다. 궁극적으로 신실히 믿음을 지킨 자들은 차별 없이 천국백성이 되지만, 목이 뻗뻗한 바리새인 같은 불신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34. 새천년시대 개방을 위한 투쟁 4(마 22:15-46)

유대인들의 인두세 올무

마태복음 22장 15-46절은 12절의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에서처럼 적대자들을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15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였고,” 34-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고 적고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그 결과에 대해서 22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갔고,” 33절에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으며,” 46절에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었다”고 적고 있다.

마태복음 22장 15-46절에 나오는 세 가지 질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아니한 기득권자들이 토끼몰이 하듯이 예수님을 죽음의 언덕 골고다로 몰아가는 정치적 도구였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정치적 신학적 종교적 질문들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이 한통속이 되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펼친 정치마당놀이였다. 그런 그들의 속셈을 꿰뚫어 본 예수님은 명쾌한 대답으로 질문자들의 악한 의도를 부끄럽게 만드셨다.

15-22절에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연합전선을 펴서 예수님을 정치문제로 몰아가는 장면이다. 속주민으로서 로마황제에게 인두세를 바치는 문제는 배타적 민족주의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이슈였다. 그들에게 인두세를 내는 행위

는 이방인들에게 맹종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수치스런 일이었다. 주후 66년에 시작되어 73년에 비극적 패망으로 끝난 유대-로마전쟁도 결국 인두세가 발단이었다. 이 전쟁의 패배로 황제숭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병역을 면제받는 대신에 기존의 성전세(유대인세)를 로마의 유피테르 신전에 바쳐야 했다. 또 전쟁포로가 된 자들은 대부분 노예로 살았거나 검투사와 맹수의 먹이가 되었다.

한편 헤롯 당원들은 헤롯가문을 부흥시키려는 목적으로 로마에 협력하면서 납세도 적극 권장하던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인두세를 반대한 바리새인들과 이를 찬성한 헤롯 당원들이 연합전선을 펴서 17절에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고 묻은 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올무였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바리새인들과 열심당원들과 같은 민족주의자들의 공격을 면치 못할 것이고, 옳지 않다고 하면, 로마당국에 반기를 든 정치범이 되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21절에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으로 인두세와 성전세 모두를 인정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빌라도법정에서 예수님이 황제에게 인두세를 바치지 말라고 선동했다고 모함하였다(눅 23:2).

성도들은 성(聖)과 속(俗), 즉 하나님의 나라(교회)와 세상의 나라 모두에 속한 시민들이다. 이 두 나라가 각각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별되며, 일치될 수 없지만, 각각이 성도들의 영적 육적 삶에 필요한 공간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각각의 영역 속에서 감당해야 할 의무들에 충실해야 한다. 국가와 교회의 의무 모두에 충실해야 한다.

유대인들의 수혼법 올무

23-33절은 신학적 논쟁으로써 이생과 내생에 관한 이슈였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신앙의 모순성을 지적하기 위해 신명기 25장 5-6절에 나타난 수혼(媾婚, Levirate marriage)법을 들고 나왔다.

수혼법은 자식이 없어서 가문이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써 과부가 고인의 형제와 결혼하는 관습을 말한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맏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물려받고 족보에 올라 그의 상속자가 되었다.

사두개인들은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 당시 집권 여당세력으로써 진보 헬라주의를 표방한 유물론자들이었다. 구전전승의 구속력과 권위를 부정하여 토라만을 정경으로 인정하였고, 그것들을 바리새인들보다 더 문자적으로 해석하였다. 레위인의 정결의식과 제사의식,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 반면, 모세오경에 없다는 이유로 내세, 부활, 천사, 마귀 등의 영적 세계를 믿지 않았다. 이 당시 대제사장들, 성전치안 맡은 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사두개인들이었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진 영향력 있는 정치집단이었던 공회원(Sanhedrin)들의 상당수가 사두개인들이었다. 이들이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사도들의 설교를 싫어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보수 유대주의자들로서 주전 2세기경 하시딤에서 유래하였다. 하시딤(Hasidim)은 '경건한 자들'이란 뜻으로써 시리아지역을 통치했던 에피파네스 안디옥쿠스 4세 (Antiochus Epiphanes, 175-164 BC)가 펼친 유대교에 적대적인 헬라화정책에 대항한 그룹이었다. 당시 안디옥쿠스 4세는 유대교 말살정책을 펼쳐 성경을 금하고, 성전에 제우스신상을 세우는 등 유대인들에게 혹심한 종교적 박해를 가했다.

바리새인들은 토라이외도 각종 구전전승을 정경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구전전통의 구속력을 인정하였다. 예정과 자유의지를 주장하였고, 영혼불멸, 몸의 부활, 영혼의 존재, 천사와 마귀의 존재, 사후상벌, 성경의 영감설, 죽은 자의 미래, 인간의 평등을 믿었으며, 주로 원리적인 가르침에 치중하여 민중 속에 깊이 파고들었다. 바울도 바리새인들의 일원이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에서 두 가지 잘못, 즉 그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들의 질문이 부적절하고 타당하지 못한 이유는 이생의 유한한 삶을

영원한 내세의 삶과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30절에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함으로써 현세와 내세의 연속성을 부정하셨다. 부활의 몸의 가장 큰 특징은 육신의 몸에 가장 필요했던 본능이 없다는 점이다. 본능은 영적 삶을 사는 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이다. 바울이 말한 육신의 연약함은 이 본능을 두고 한 말이다.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살아서 현존하신 분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들의 영혼이 잠자거나 죽거나 하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부활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은 31-32절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는 말씀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며, 이는 곧 죽은 자의 부활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유대인들의 큰 계명 율무

바리새인 율법사가 36절에서 예수님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큼니까?”라고 물은 이유는 그들이 613개의 계명들과 그것들의 보호막으로 만든 율타리 법들 가운데 어느 계명이 으뜸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기 때문일 수 있지만, 율법사가 시험하여 물었다는 점과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여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 불렀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고 되묻는 질문으로 보아 메시아의 신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 믿어진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목적은 공소장에 쓸 내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작성된 그들의 공소장에는 성전모독, 인두세거부, 자칭 왕, 자칭 메시아, 신성참칭(僭稱) 등이 포함되었다.

예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답변하셨다. 여기서 마음, 뜻, 힘은 관련 어휘를 모두 열거하여 강조하는 헤브라이즘(Hebraism) 표현으로써 온 정성을 다하라는 뜻이다. 또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두 번째로 큰 계명이라고 답변하셨다. 이 두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613개 계명들(Mitzvot)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다.

만일 율법사가 하나님 사랑을 가장 큰 계명으로 알고 물었다면, (신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하나님 사랑이 없다고 말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유대인들은 계명의 문자적인 적용에 집착한 나머지 계명의 정신과 본질을 놓쳐왔고, 쓸데없는 율타리 법들을 많이 만들어 계명의 내용들을 왜곡시켜왔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사랑을 빙자하여 이웃 사랑 특히 죄인과 이방인 사랑을 카샤룻 음식법과 같은 율타리 법들로 차단시켜왔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하나님 사랑이 없다고 말하려는 율법사에게 정작 있어야 할 이웃 사랑이 없음을 알리기 위해서 묻지 아니한 두 번째 큰 계명까지 말씀해 주셨다.

유대인들의 악한 의도를 아신 예수님은 그들이 문제 삼는 메시아의 신성문제를 들고 나오셨다.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내 주(主)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일컬은 사실을 환기시켰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음”(롬 1:3-4)과 다윗과 만민의 주님이 되심을 알리고자 하셨다. 예수님께서서 45절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主)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물으셨을 때, 46절을 보면,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메시아관(觀) 때문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죄를 사하는 구세주도 아니고, 죄가 없으신 삼위일체의 신(神)도 아니었다. 병을 고치고 죄를 사하는 신성(神性)도 아니었다. 메시아는 가나안

땅을 되찾아줄 정치적 군사적 영웅으로서 따름과 실천의 대상이었지, 예배와 섬김과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명쾌한 답변들은 유대인들의 올무를 피하고 잠시 그들의 입에 빗장을 걸게 할 수는 있었지만, 음모까지 꺾지는 못하였다. 예수님이 그들의 음모에 의해서 골고다언덕에까지 내몰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다.

35. 새천년시대 개방을 위한 투쟁 5(마 23:1-12)

새천년시대 개방을 가로막는 울타리 법

예수님의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절정에 이른다. 이 비난은 대적자들에게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추종자들인 민중과 제자들에게 지도자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며칠 후 빌라도의 공판장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이들조차도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있다.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씀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전한 율법(Torah)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사(Rabbi)들이다. 그들이 회당에서 율법을 강론할 때 앉았던 의자가 ‘모세의 자리’이다. 따라서 ‘모세의 자리’란 모세가 전한 율법을 전수받아 연구하고 가르치는 공적지위를 가진 교사란 뜻이다.

율법은 히브리인들이 유월절 날에 이집트를 탈출하여 오순절 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전수받은 언약법이다. 이 율법을 담았던 상자가 성막 지성소 서편에 놓인 법궤요, 그 뚜껑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이다. 성전을 대신한 회당에서도 율법을 담은 법궤는 서편에 놓였고 커튼을 드리워 회중석(13세 이상의 계명의 아들들의 공간)과 구별하였다. 이 커튼 앞 강단(Bema)에 회중석을 마주보고 앉을 수 있도록 의자가 있었다. 이 의자에 앉아서 율법사들이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모세의 율법(Torah)과 구전법(Mishnah)을 가르쳤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613개의 계명을 풀어 설명할 모세의 권위를 위임받은 교사들인 만큼 3절에서 그들의 가르침은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경계하셨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셨다. 그들은 과연 자기들이 말한 것을 행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율법을 몹시 사랑했고 눈물겹도록 열심히 지켜왔다. 문제는 그들의 행위가 형식과 외식에 치우쳐 계명들의 본질과 핵심에서 많이 벗어난데 있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계명들의, 계명들에 의한, 계명들을 위한 행위들, 즉 죄인과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과 이방인들에게 정의와 사랑과 믿음을 저버린 행위들이 문제였고, 거룩한 척, 의로운 척하며,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잘 보여 존경받으려는 행동들을 본받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는 행동들, 사람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는 행동들을 삼가라는 뜻이다.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에서 ‘무거운 짐’은 613개의 계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랍비들이 만든 율타리 법들(Gezeirot)로 이해될 수 있으며, 보통사람들이 잘 지키지 못하는 법들이다. 또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는 뜻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율타리 법들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보통사람들의 어려움을 배려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빙자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중한 짐을 지우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교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다”(마 11:28-30)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에 상반된다.

새천년시대 개방을 가로막는 랍비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것은 반드시 잡신 혹은 거짓 신들만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생명도 없고, 숨도 쉬지 않는 우상들이 아니라, 인간

의 교만(잠 16:5)이다. 교만의 문제점은 오류와 실수를 피할 수 없고 유한한 피조물인 주제에 남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려 드는 것이고,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은 5-12절에서 이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 칭함을 받지 말라고 충고하셨다.

첫째, 5-8절에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셨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문제점은 하나님을 예배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마와 팔에 붙들어 매는 트펠린(tefilin)이란 말씀상자를 보통사람들보다 크게 만들어 붙이고, 겹옷과 기도보(talit)에 매다는 옷술(tzitzit)도 남들보다 길게 매단다고 지적하셨다. 말씀묵상과 기도에 집중하기보다는 남에게 과시하려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꼬집으셨다. 랍비란 ‘나의 주’ 혹은 ‘큰 자’란 뜻이므로 이에 해당되는 랍비는 오직 한분뿐이라고 하셨다. 그밖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형제자매일 뿐이므로 가르치는 교사라 할지라도 군림하는 자세를 버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할 것을 강조하셨다.

둘째, 9절에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고 하셨다. “땅에 있는 자”란 랍비를 말한다. 가톨릭사제를 신부라 부르듯이 일찍이 유대인들은 훌륭한 인물들을 아버지라 부르곤 하였다.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를 아버지라 불렀고(왕하 2:12), 이스라엘의 왕도 엘리사를 아버지라 불렀다(왕하 6:21, 13:14).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에게 아버지로 불리기를 좋아했고, 대학자 힐렐과 샴마이에게는 ‘세상의 아버지’란 호칭을 부여했다. 그러나 아버지라 칭함을 받을 분은 오직 한분 하나님뿐이라고 하셨다.

셋째, 10절에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셨다. 여기서 지도자란 모든 것을 두루 가르치는 랍비를 말하며 가정교사와 같은 자이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가정교사처럼 국민의 일상을 간섭하고 삶을 통제하려하였다. 예수님은 지도자라 칭함을

받으실 분은 한분 그리스도뿐이라고 말씀하시며 11-12절에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씀으로 위선과 교만의 위험성을 경계하셨다.

예수님께서 5-12절에서 사용금지령을 내린 세 가지 칭호, 랍비, 아버지, 지도자는 거의 동일한 개념의 반복으로써 교사를 지목한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이 교사라 불리는 것을 삼가도록 당부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이 참 교사이시고 참 아버지이시며 참 지도자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빌립보서 2장 5-11절은 예수님이 독생자 하나님 신분을 버리고 자기를 낮춰 사람이 되어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들로부터 예배를 받게 하신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들을 높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새천년시대 개방을 가로막는 외식

마태복음 19-23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강조한 곳이다. 13장에 실린 8개의 천국비유를 마태복음의 중심축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행동의 권위가 강조된 10개의 기적이 실린 8-9장과 대칭을 이루는 곳이다. 후반부 14장부터는 감춰왔던 메시아 신분을 노출하시고 정치종교의 중심지인 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메시아를 거절하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전면전을 펼치신 장면들이다.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외식하는 자들”로 폄하하셨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이 “외식하는 자”란 표현은 대부분 마태복음에서 쓰였다. 613개의 계명들과 수많은 율타리 법들을 사랑하고 또 눈물겹도록 철저하게 지키지만, 형식과 외형에 치우쳐 본질과 정신인 정의와 사랑과 믿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잘 보여 칭송을 받으려고 위선과 가식으로 행동하는 자들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 의하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었다.

“외식하는 자” 또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란 표현은 마가복음에 1회, 누가복음에 3회 사용되었으나, 마태복음에서는 13회나 사용되었다. 외식하는 자들이란 다름 아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지칭한 표현이었다. 3절의 앞부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그들의 위선적인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뜻이고, 3절의 뒷부분,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는 4절의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에서처럼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열심히 행하지만, 위선과 가식이 가득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잘 보여 영광을 받으려한다는 뜻이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자신의 속살을 내보이고 가슴을 치며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아니라, 위선과 가식이 가득한 제 몸을 화려한 의복 속에 숨기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뜻이다.

누가복음 10장 25-37절을 보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려고” 예수님께 자기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장면이 나온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의 족쇄에 묶여 강도당하여 거의 죽게 된 자를 외면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매정한 인간이 되지 말고, 비록 개 취급당하지만, 선행을 베푼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가르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모르거나 율법의 정신보다는 문자적인 의미에 매어서 옳은 일을 실천하지 못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땅의 것인가, 하늘의 것인가? 일시적인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 육적인 것인가, 영적인 것인가?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인가, 하나님께 보이

려는 것인가, 사람을 즐겁게 하려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인가? 새천년시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행동을 중지하고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새천년시대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36. 새천년시대 개방을 위한 투쟁 6(마 23:13-39)

새천년시대를 가로막는 선교 왜곡

예수님은 우월감에 빠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13-36절에서 “화 있을진저!”를 일곱 번이나 반복하셨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13절의 천국 문을 가로막고 휘방하는 것에 쓰였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유대민족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위한, 모든 민족에 의한, 모든 민족의 영적인 세상이 될 것과 그 세상이 ‘이미’ 2천 년 전에 시작된 교회를 포함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천국사상이 없었고 지금도 없다. 천국은 유대인들이 ‘희망’(Ha-Tikvah)하는 ‘다가올 세상’(Olam Ha-Ba)과는 다르다. 유대인들이 희망하는 다가올 세상은 팔레스타인 땅에 성전이 재건되고 제사예배가 회복된 유대교 중심의 신정국가를 말한다. 유대인들은 다가올 세상이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들에 의한, 유대인들의 문자적인 세상이 될 것을 믿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 선교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유대인들은 거주 지역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뉘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아람어를 쓰고,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유대인은 히브리파로 불렸고,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어 성경을 읽는 해외 거주 유대인은 헬라파로 불렸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다. 그들은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고,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카샤룻(Kashrut) 음식법을 엄격히 지켰다. 그들이 이방인 선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독점의식인 ‘조상의 하나님’과 선민사상 때문에 이방인들의 구원에 소극적이었

다.

그리고 만일 본문에서의 천국이 2개월 이내에 예루살렘에 세워질 교회를 의미했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교회를 탄압하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미래의 시점에서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다.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 '제4편 문명의 쇠퇴'에서 유대인들이 뼈아프게 겪었던 역사적 비극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배척한 때문이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강림을 통하여 자기들에게 제공한 한층 더 큰 보물을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피력하였다.

15절,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말씀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연상시킨다. 해외에 거주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인 선교에 적극적이었다. 남의 나라에 얹혀사는 만큼 유대인들과 그들의 종교문화를 보호해주고 지지해 줄 이방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이방인 선교에 적극적이었고, 완전 개종을 꺼리는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개종침례 및 엄격한 율법준수를 면제시켜줌으로써 '하나님 경외 자들'이 되게 하였다. 유대인들은 이들을 '문(門)의 개종자'(Ger Ha-Shaar) 또는 '노아의 자녀들'(B'nai Noah)이라 불렀다. 그들 가운데 일부가 바울의 전도를 받아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이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공모하여 바울을 죽이려하였고, 수없이 감옥에 가두고 39대의 매를 다섯 번 때렸으며, 심지어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방인들을 전도한 후에는 자기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말씀은 이방인들이 기독교어로 개종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뜻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새천년시대를 가로막는 계명 왜곡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제3계명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

혹은 경박한 맹세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이에 준해서 예수님은 5장 33-37절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머리로도 말라고 하셨다. 그러나 랍비들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거짓 맹세할 수 있는 울타리 법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그들은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한다”거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제단의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한다”고 가르쳤다. 이것이 예수님이 16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눈먼 지도자라고 비난하신 이유이다.

본문에서 성전의 금은 성전기물들에 씌워진 금이 아니라 성전에 드러진 ‘고르반’ 즉 예물을 뜻한다. 이 고르반이 점차 하나님의 계명들을 합법적으로 어기는 일에 쓰이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지적하여 ‘고르반’이라고 선포하면 그 물건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간주되어 즉시 성전에 속한 물건이 되지만, 그 물건은 서원한 사람의 소유로 그냥 남게 된다. 그래서 15장 5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는 말씀처럼 부모님께 공양하기 싫은 재물을 고르반으로 지정만하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울타리 법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 5계명을 폐하는 사악한 장치였다.

같은 맥락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맹세의 문제에서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킬 필요가 없지만, 성전의 금 곧 고르반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17절에서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나?”고 물으셨다.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킬 필요가 없지만, 제단의 예물 곧 고르반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19-22절에서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나,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나? 그러

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यो.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यो.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다”고 말씀하셨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들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켰을 뿐 아니라, 그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율타리 법들을 지키는 자들의 눈을 멀게 함으로써 지도자들인 자신들은 물론이고 추종자들까지 함께 수렁에 빠지게 하는 죄를 범하였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전보다는 성전에 바치는 고르반에, 제단보다 제단에 바치는 고르반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은 제사보다는 젖밥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제3계명,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와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를 어기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마 15:3,6).

새천년시대를 가로막는 본질 왜곡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자, 높은 자리와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 자, 천국 문을 가로막고 선 자, 교인을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 자, 화를 당할 자, 외식하는 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자, 맹인 된 인도자,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자, 회칠한 무덤 같은 자,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 지옥의 판결을 면치 못할 뱀과 독사의 새끼라는 독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그들로서는 터무니없는 비난으로 생각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들

과 각종 울타리 법들을 철저히 지키는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기에 이런 엄청난 독설을 들어야했을까?

첫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채”와 같은 하찮은 양념재료까지 십일조 항목에 넣어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켰지만, 정작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기” 때문이다.

둘째, 하루살이와 낙타는 모두 다 먹지 말아야할 부정한 식재료(treyf)였다. 두 가지 다 걸러내야 했지만, 하찮은 하루살이는 애써 걸러내면서도 덩치가 수천 배나 더 큰 낙타는 삼키는 방식의 오류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그릇을 씻을 때 그릇의 겉보다는 속을 더 깨끗하게 씻어야 잘 씻는 것일 텐데, 그들은 겉은 깨끗이 씻고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방치하는 방식의 잘못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손 씻기 법만 보아도 그들의 문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들은 손 씻기 법을 매우 엄격하게 지키지만, 손을 위생적으로 씻지 않고 그냥 손목부터 손뚱 속까지 물을 붓고 기도문(Berachot)을 암송하는 의식으로 지킬 뿐이다.

유대교인들은 그릇 씻기 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그들은 카샤룻(Kashrut) 음식법에 따라 유제품과 고기제품을 함께 먹지 않는다. 유제품을 먹은 다음 고기제품을 먹거나 그 반대의 경우 적어도 3-6시간 이상 지나야 먹는다. 음식을 조리하거나 담는 기구와 그릇들도 유제품에 쓰는 것들과 고기제품에 쓰는 것들을 구별하여 사용한다. 또 그릇 씻기 법에 따라 철저히 구별하여 씻고 말린다. 랍비들이 출애굽기 23장 19절의 “너는 염소새끼를 어미젖으로 삼지 말라”는 계명을 고기제품과 우유제품을 함께 먹지 말라는 계명으로 해석하여 그릇 씻기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넷째, 동굴무덤 외부를 회로 칠하고, 입구를 대리석으로 장식한 것처럼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듯이, “겉으로는 사람에게 좋게 보

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였기” 때문이다.

29-39절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하나님을 독점하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하여 멸시하며, 그들의 선교에 소극적일뿐 아니라, 외식과 자만과 우월감에 빠져,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을 탄압하고 배척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천국복음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장차는 교회를 탄압할 자들이므로 그 응보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신 것이다. 40년이 지난 주후 70년에 예수님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다.

37. 새천년시대의 임박한 개방 1(마 24:1-28)

새천년시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한 주간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로부터 수일간 성내에서 정치종교지도자들과 격하게 논쟁을 펼치셨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 논쟁들을 그것들이 실제 일어난 주후 30년 상황에 국한하여 보도하지 않고 교회가 출범하고 40-50년이 지난 70-80년대의 초기 교회들이 직면한 상황에 연결시켰다. 예수님이 유대교지도자들로부터 받았던 배척을 교회가 그 후로도 반세기 동안 받았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주후 70년 유대-로마전쟁의 패배로 크게 위축당함으로써 더 이상 기독교를 핍박할 수 없게 되었다. 또 예루살렘교회의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이 흩어짐으로써 이방인 교회들을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마태복음이 기록된 주후 70-80년경은 기독교가 유대교와 유대교적 기독교의 핍박과 간섭에서 벗어나 지금의 기독교가 되는 전환기였다. 그러나 이 시기는 기독교가 이후 300년간 로마당국의 박해를 받는 새로운 위기의 시작점이었다.

마태복음 24-25장은 새천년시대의 임박한 임재에 관한 8개의 비유를 비롯해서 종말에 있을 일들 즉 천국이 임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천국의 특성을 설명한 13장을 중심축으로 하여 가장 먼저 실린 5-7장이 천국의 입문에 관한 설교로써 갈릴리호수에서 가까운 산에서 선포한 산상설교였다면, 이것에 대칭을 이룬 24-25장은 천국의 개방에 관한 설교로써 유대교지도자들과 논쟁을 끝내시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산에서 선포한 산상설교이다. 감람산으로 가시려고 성전을 나오실 때 제자들이 성전들과 규모에 놀라자, 예수님께서 “둘 하나도 둘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고 예언하셨다. 이 예언은 40년 후에 유대-로마전쟁 때 성취되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물었다. 3절,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4-25장이다. 여기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은 무엇을 말하는가? 대부분은 이것을 ‘주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로 이해한다. 그러나 제자들의 질문만을 놓고 본다면 그런 뜻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비록 마태가 교회가 출범된 지 반세기가 지난 주후 70-80년경에 이 사건들을 기록하였고 또 초기교회들이 직면한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감람산설교를 주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교훈으로 삼고자했을지라도, 이때는 아직 새천년시대의 개방 즉 교회가 출범되기 이전이고, 재림이란 말조차 없던 때이므로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을 주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질문으로 물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교인들에게 종말은 도래한 메시아가 개방할 ‘올람 하바’(Olam Ha-Ba) 즉 ‘다가올 세상’을 말한다. 그들에게 다가올 세상이란 빼앗긴 가나안땅의 회복과 다윗왕국의 재건을 뜻한다. 스승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무슨 징조를 보면 주께서 왕이 되어 나라를 세우시고 또 우리가 당신의 나라에서 출세하게 될지를 알 수 있습니까?”고 물은 것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상왕국이 아닌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낙원이란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50여일이 지난 오순절 날에 교회시대가 출범되고 난 다음부터이다.

새천년시대: 시작된 종말

이런 점 때문에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이었다. 현재의 것을 물었지만 미래의 것을 답하셨고, 속세의 것을 물었지만 내세의 것을 답하셨으며, 문자적인 것을 물었

지만 영적인 것을 말씀하셨다. 그 이유를 알려면, 공생애 기간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들을 제자들이 거의 깨닫지 못했던 시기와 반세기 후에 복음서에 그 사실들이 기록될 당시에는 충분히 깨닫고 있던 두 다른 시기의 상황들이 복음서에 겹쳐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는 민중과 제자들이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대인들은 제1모세가 갖게 해준 가나안땅을 주전 587년에 완전히 빼앗긴 이후 지금까지도 제2모세가 될 메시아의 사명을 가나안땅을 회복시키고 다윗왕국의 영광을 되찾게 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 그리고 그때의 세상을 '올람 하바'(Olam Ha-Ba) 즉 '다가올 세계'(World to Come), '종말시대' 또는 '마지막 시대'라 부른다. 제자들과 민중의 관심은 온통 여기에 쏠려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교회시대로서의 새천년시대에 쏠려 있었다. 예수님의 살아생전에는 그분의 천국복음이 교회시대를 여는 선포였다는 것을 몰랐지만, 복음서가 기록될 때에는 100퍼센트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복음서에 담았던 것이다. 따라서 복음서 속에는 예수님의 메시아사역에 관한 깨달음의 내용인 시작된 현재종말과 유대인들의 전통적 의미의 미래종말이 함께 담겨 있다.

시작된 현재종말이란 교회시대를 말한다. 유대인들이 희망한 다가올 세상 또는 기독교인들이 희망하는 주의 재림과 동시에 나타날 영원한 세상의 영적인 실현을 말한다. 그래서 실현된 종말이라고도 불린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도래할 미래종말이 이미 시작되어 현재 실현되어 있는 종말이란 뜻이다. 종말이란 세상의 끝을 의미하지만, 우리가 희망하는 지복을 뜻하기도 한다. 신학에서 말하는 구원, 거듭남, 중생, 칭의, 인침, 보증, 선취 등이 모두 미래종말을 약속받았다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들이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종말을 하나님의 확증과 약속으로 또 성령의 보증(보증금)과 인침(도장 찍음)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고, 실현하여 시작하고 있으므로 현재종말이란 말을 사

용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시작되었거나 실현된 현재종말이란 것이 없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조상들이 하나님께 받은 가나안땅의 약속뿐이고, 성령님께 보증 받고, 인침 받고, 그 축복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보호하심과 변호하심과 치료하심 속에서 맛보고 누리며 경험하는 것이 없다. 유대인들에게 시작된 종말의 축복이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말하는 '다가올 세상'이란 그들 민족만의 축복이기 때문이다. '올람 하바'는 유대인의 제2의 출애굽 사건, 곧 유대인의 제2의 대 구원 사건을 말하는데, 이 사건은 영적인 사건이 아니고, 육적인 사건이다. 문자적인 다윗왕국의 회복을 말한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국가가 건국되어 60여 년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현재의 세속국가를 '올람 하바'라고 믿는 유대인은 거의 없다. 메시아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그가 세울 신정국가가 따로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새천년시대: 환난시기

교회시대로서의 새천년시대는 완성이 아니라, 미래종말의 약속 위에 서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궁극적인 천국을 향해가는 광야길이기 때문에 수많은 환난들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히브리인들이 가나안땅을 앞두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광야길을 걸었던 것과 같다. 비록 제자들이 세상 끝에 있을 징조를 물었지만, 24장에서 예수님이 답한 환난과 재난과 재앙들은 재림시기를 빼놓고는 모두 광야길 즉 긴 역사에서 발생할 사건들에 대한 것이지 역사의 어느 특정시기(칠년대환난)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사건들만을 예언하신 것이 아니다. 24장에 66-73년의 유대-로마전쟁과 64-68년의 네로의 박해가 특정시기로 암시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시기가 주의 재림이나 세상의 끝은 아니었던 것과 같다.

유대인들이 발 코크바와 사베타이 제비를 포함한 30여명의 거짓 메시아가 출현했었다고 말하는 것이나 삼국시대이후 궁예를 비롯해 많은 거짓 미륵들이 출현했었던 것에서 보듯이, 거짓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경계는 종말시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기에 모든 성도들이 늘 경계해야 할 교훈으로 받아드려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4-14절에 언급된 난리, 전쟁, 기근, 지진과 같은 재난과 박해로 인한 배도와 순교 곧 배신, 철폐, 구금, 고문, 참형을 감당해야 하는 대환난은 과거 2천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흔히 있었던 일이지 어느 특정시기에만 일어나도록 예정된 환난이 아니다(계 7:14).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박해당하는 성도들을 격려한 베드로 전서, 히브리서, 계시록을 비롯한 성경전서가 담고 있는 메시지이다(눅 21:19, 히 10:36, 계 13:10, 2:7,11,17,26, 3:5,12,21, 21:7).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은 재림과 종말이 있기 전에 장기간의 교회시대가 지속될 것과 그 시기 동안에 환난들이 닥치게 될 것을 경계한 말씀이다.

15-28절은 환난의 중대성, 심각성, 긴박성에 대한 경계이다.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는 박해기간을 단축하지 않으면, 극심한 박해를 견디고 믿음을 지킬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기간을 단축할 것이니, 끝까지 참고 믿음을 지켜 승리자가 되라는 말씀이다(롬 8:18, 고후 4:17, 계 2,3,11-13장). 15절,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단 9:27, 11:31, 12:11)은 박해의 심각성을 사례로 든 것이다. 주전 167년에 자신을 ‘신의 계시’라 주장한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175-164 BC)가 유대교와 토라를 사형으로 금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 부정한 동물로 봉헌했던 사건을 상기시킨 것이다. 20절의 안식일의 언급도 안티오쿠스의 헬라군이 유대인들이 모든 일을 중단하는 안식일에 공격하여 큰 피해를

입혔던 사건을 상기시킨 것이다. 16-19절의 급히 산으로 도망하라는 경고는 66-73년 유대-로마전쟁 때 수십만의 유대인들이 빵과 물이 희귀한 예루살렘성에 5개월간 갇혔다가 사로잡히거나 죽었던 것과 비슷한 사건들을 상기시킨 것이다. 21-28절의 큰 환난은 박해에 대한 경계이다. 박해가 아무리 극심해도 그 기간이 짧을 것이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 말고 믿음을 사수하여 승리자가 되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라는 교훈이다.

38. 새천년시대의 임박한 개방 2(마 24:29-51)

새천년시대: 재림의 지연

마태복음 24-25장의 새천년시대의 임박한 임재에 관한 감람산 설교와 5-7장의 새천년시대의 입문에 관한 산상설교는 중심축인 13장의 천국비유설교 좌우에 배치된 대칭의 짝인 것이 분명하지만, 24장의 설교는 5-7장의 산상설교보다는 오히려 10장의 과송설교와 겹치는 부분이 더 많다.

마태는 주후 26-30년에 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반세기가 지난 70-80년대에 자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 당대에 국한시키지 않고, 반세기가 지난 초기 교회시대와 더 먼 미래시대에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민중에게 들려주신 말씀들은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된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예수님 당대에 국한시키려 들면 안 된다. 마태뿐 아니라 다른 복음서 저자들 역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과 말씀들을 가지고 반세기가 지난 초기 교회시대의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 전 교회시대의 성도들에게 교훈하려고 했던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복음서에는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들과 정황만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저자들의 시대의 이야기들과 정황도 겹쳐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교회가 없었던 때이지만, 복음서가 기록되던 때에는 교회들이 많았고 또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들 속에 저자시대의 교회들의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 그것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들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복음서가 기록되던 시기에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

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어 했다. 주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동안에 교회들은 박해와 이단의 침투에 직면해 있었고, 그로인해서 배교자들이 속출하였으며,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육과 교직제도와 치리와 권징의 문제들이 부상되었다. 신약성경은 모두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할 필요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복음서조차도 이런 필요성에 때문에 기록되었다고 봐야한다. 구약성경의 예언서들처럼 신약성경의 서신서들은 기록당시의 필요성 때문에 기록된 것이므로 기록당시의 정황 한 가지만 존재하지만,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후대의 발전하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시대와 정황들이 병존하게 된다.

지연된 재림에 대한 신약성경의 설명은 주의 재림이 있기까지 교회시대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오순절 성령강림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자마자 곧바로 가나안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40년간 광야교회시대를 거쳤던 것처럼, 주의 재림과 세상 끝이 있기까지 장기간의 성령시대, 은혜시대, 선교시대, 교회시대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장기간에 교회들은 자주 환난들에 직면할 것이므로 예수님이 특정시기의 환난을 못 박아 예언하셨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 박해가 아무리 극심하고 환난이 커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말고 인내로써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야할 이유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성도들을 불러 모을 그날이 멀지 않기 때문이며, 또 그 때까지는 아직 종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천년시대: 재림의 시기

29절 “그 날 환난 후에”의 “그 날”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그 날들의”란 복수 소유격이며 앞에서 언급된 날들의 환난을 뜻한다. 이 환난을 역사의 어느 특정시기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에

서 이미 밝힌바 있다. 참고로 계시록 20장 1-6절을 근거로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주님의 지상 재림직전에 칠년간 대환난이 있을 것과 주님의 지상 재림직후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문자적으로 천년간 새 하늘과 새 땅이 출현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 또 인류 역사를 일곱시대로 구분하는 신학자들은 교회시대직후에 주님의 공중재림과 성도들의 휴거가 있을 것이고, 곧 바로 칠년간 대환난이 시작되며, 대환난직후에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어 천년간 왕국을 여시는데, 이 왕국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희망했던 다윗왕국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이들 전천년설 주장자들은 “그 날 환난 후에”를 칠년대환난후로 해석한다. 그러나 칠년대환난은 성경이 명시하지 아니한 자의적 해석일 뿐이다. 24장은 칠년대환난이 아니라 66-73년의 유대-로마전쟁과 64-68년의 네로박해에 대한 암시에 더 가깝고, 그조차도 인자의 재림이나 세상의 끝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 날 환난”을 역사의 어느 특정한 시기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긴 역사 또는 교회시대에서 일어날 환난들로 볼 필요가 있다.

그 날들의 환난들은 재림이 지연되고 교회시대가 길어지면서 겪게 되는 것들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되다가 재림의 때에 끝나는 것들이다. 또 주님의 임재가 역사의 어느 특정한 시기 또 그 시기를 살던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사건이 아니다. 비록 성도들은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겪고 또 죽지만, 영으로 부활하여 낙원천국에서 주님의 임재를 맞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의 지상재림의 때에 부활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의 재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파멸과 통곡의 날이 되지만, 성도들에게는 영광과 감격의 날이 된다(30절). 재림 때에 나타날 네 가지 징조들인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29절)과 큰 나팔 소리를 내며 천사들이 와서 구원받은 자들을 사방에서 모우는 것(31절)은 유대묵시

문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들로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그들의 세계에 대한 최후심판과 성도들이 받을 구원과 보상에 대한 표현들이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종말과 심판에 관한 8개의 비유들 가운데 첫 번째 비유이며, 시대의 징조들을 읽을 줄 알라는 교훈이다. 여기서 33절의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에서 “인자”는 헬라어로 ‘그가’ 또는 ‘그것’의 의역이다. 따라서 33절의 “인자”는 예수님일 수도 있고,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통칭하는 ‘그것’ 곧 새천년시대일 수도 있다. 만일 후자인 새천년시대가 옳다면, 34절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는 주후 30년 오순절 날 성령님의 강림과 교회의 출범으로 이미 성취된 것이 된다. 그러나 전자가 옳다면, 33절의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와 34절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는 주의 재림과 세상 끝이 임박했다는 것을 뜻한다.

새천년시대: 재림의 임박

34절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는 10장 23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의 반복이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도 10장 22절,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의 반복이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이들 말씀을 하신지 반세기가 지난 다음이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에서 “이 세대”는 예수님시대로 추정된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 세대”가 과거 세대가 되어버렸으니까, 34절의 말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는 말씀대로 앞에서 언급하신 일들이 수십 년 전에 벌써 성취됐어야 한다. 만약 그랬더라면 또 그렇게 이해되었더라면, 인자의 재림과 세상 끝이 벌써 도래했을 것이므로 마태복음을 비롯한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는 지속되었고, 마태와 다른 복음서 저자들도 복음서들의 기록이 꼭 필요한 일이었다. 인자의 재림은 지연되고 있었고, 아직 세상 끝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 사실을 잘 아는 마태는 왜 34절의 말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는 재림의 임박과 세상 끝에 대해 오해할법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소개하였는가? “이 세대”란 과연 무엇인가?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세대,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있는 지속적인 역사적 현재 세대를 말하고자한 것은 아닌가? 주의 재림이전까지의 교회시대를 말하고자한 것은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제한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확대된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민중에게 들려주신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된다. 그렇더라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마태는 24-25장에서 8개의 종말과 심판에 관한 비유로 재림의 임박을 경고하였다. 이들 비유에서 예수님이 주신 중요한 팁은 36절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이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선불리 종말의 시기를 지정해서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예수님은 이미 23절에서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와 26절에서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한부종말론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파악하라는 무화과나무비유에 이어서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37-39절), 밭 메는 자들(40절), 멧돌 가는 자들(41절), 주인의 청지기들(45-51절), 신랑을 맞으러간 열 처녀들(25:1-13), 주인의 달란트를 맡는 세 청지기들(25:14-30), 양과 염소무리(25:31-46)까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도적같이 임할 마지막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근신하며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이었다(계

3:3). 예수님은 42-44절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39. 새천년시대의 임박한 개방 3(마 25:1-46)

새천년시대: 깨어서 준비함

마태복음 25장은 8개의 비유들 가운데 마지막 세 개, 즉 신랑을 맞으러간 열 처녀들(1-13), 주인의 달란트를 맡는 세 청지기들(14-30), 양과 염소무리(31-46) 비유들이다. 재림의 날과 때를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이 도둑처럼 닥칠 것이므로 세심한 준비, 충성스런 섬김, 선한 행실로 “깨어 있으라”는 지시이다. 이 명령은 24,25,26장에 각각 한 번씩 나온다. “어느 날에” 주의 재림이 있을는지 모르기 때문에(24:42),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25:13) 그리고 겐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기 직전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26:38)고 지시하셨다.

신랑을 맞으러간 열 처녀들(1-13)은 모두 등을 준비하였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더디 올 것을 염려하여 등과 함께 별도의 기름병을 준비하였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신랑이 더디 올 것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등만 챙기고 기름병은 챙기지 않았다. 이 비유의 핵심은 신랑이 더디 온다는 점이다. 재림의 지연과 임박을 동시에 강조한 비유이다. 교회시대가 주의 재림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임할지 모르는 ‘아직’과 ‘이미’의 긴장 속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레오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하나님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사람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데, 그 이유가 사랑하며 살라는 뜻이라고 하였듯이, 마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주께서 재림할지를 알려주시지 않는데, 그 이유가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는 뜻으로 밝히고 있다.

1절의 “처녀”는 신부의 들러리이다. 지중해 연안세계의 혼인 잔치는 해질 때부터 시작된다. 신랑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신

부의 집으로 가서 종교의식을 치른 후 신부와 들러리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거나 신부의 집에서 혼인잔치를 열었다. 들러리들은 등을 들고 나가 마을입구에서 신랑을 기다렸다가 일행을 맞이하여 결혼식장으로 안내하는 일을 맡았다. 2절에서 그들을 미련한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로 구별한 것은 신구약성경에서 흔히 쓰인 히브리인들의 문학적 표현이다.

5절의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는 교회시대가 장기간이 될 것과 재림이 지연되는 동안 성도들이 나태하여질 것을 암시한 것이다. 신약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에 성도들은 지연되고 있는 주의 재림에 대해 묻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해답을 제시하고 있었다.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롬 11:25), 누가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눅 21:24), 베드로는 주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벧후 3:9)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24장 48절에서 재림이 지연된다는 생각이나 아예 없다는 악한 생각을 경계하셨다.

9절의 “너희 쓸 것을 사라”는 구원의 은총이 극히 개인적이어서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도 그와 함께 나뉘어질 수 없는 것임을 암시한다. 구원의 은총은 개개인 각자가 개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10-13절에서 기름병을 따로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자신들의 의지에 반하여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실제상황이 아니라, 주께서 재림하신 후에 열리는 혼인잔치에서의 상황을 암시하신 것이다.

새천년시대: 적은 일에 충성함

주인의 달란트를 맡는 세 청지기들(14-30)의 비유에서 세 청지기들은 주인에게 각자의 재능에 맞게 주인의 달란트를 책임지게 된다. 여기서 달란트는 재화가 아니라 책임이며, 부의 분배가 아니라 책임의 분배이며, 각자의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

되었음을 말한다. 다섯 달란트를 맡은 청지기와 두 달란트를 맡은 청지기는 각자의 능력을 100퍼센트 발휘하여 맡은 달란트를 배로 불렸다. 자기의 재산을 불린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불렸고, 제 몫을 불린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몫을 불렸다. 그들이 칭찬을 들은 것은 맡은 달란트를 배로 불린 때문이 아니라 맡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 때문이다. 다섯 달란트를 열 달란트로 불린 사람과 두 달란트를 네 달란트로 불린 사람의 차이점은 책임수행이 아니라 능력수행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따지실 것은 능력수행이 아니라 책임수행이란 점을 강조한다. 다섯 달란트를 맡았던 청지기가 보너스를 받은 것도 능력수행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책임수행에 따른 것이다. 두 달란트의 책임수행보다 다섯 달란트의 책임수행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요하기 때문이다.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었던 청지기는 자신의 안일과 유익을 추구할 뿐 책임수행을 하려하지 않았다. 주인의 것을 잃으로써 떠안게 될 책임추궁과 위험을 피하려고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 애써봤자 제 것이 되지 않는다는 이기적 판단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남겨봤자 주인이 차지할 것이고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는 악한 생각 때문에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였다.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어느 부잣집에 두 명의 머슴이 있었다. 계약이 끝나는 마지막 날밤에 주인이 찾아와서 두 머슴에게 최대한 가늘고 단단하게 새끼줄을 10자 정도씩 꼬도록 지시하였다. 그 밤만 지새면 주인과도 남남이 되는 터라, 한 사람은 대충하자는 생각으로 굵게 조금만 꼬고 잠들었고, 다른 사람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으로 정성껏 꼬았다. 떠나는 날 아침 주인은 어젯밤에 끈 새끼줄을 가지고 광으로 오라고 지시하였다. 두 머슴이 모이자 주인은 광에 들어가 엽전이 가득한 상자를 열면서 주인이 두 머슴에게 말하였다. “내가 여러분의 수고덕분에 부자가 되었으니 보답을 하려고 하네. 어젯밤에 끈 새끼줄에 꿰 수 있을 만큼 엽전을 꿰어서 고향에 돌아가 잘살게.” 정성껏 새끼줄을 끈

머슴은 많은 엽전을 껴어 가져갈 수 있었지만, 대충 아무렇게나 새끼줄을 끈 머슴은 한 닢도 켈 수가 없었다.

신랑을 맞으러간 열 처녀들의 비유가 준비하는 자세를 강조했다면, 주인의 달란트를 맡은 세 청지기들의 비유는 책임수행을 강조하였다. 맡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 두 청지기는 능력에 상관없이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 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21,23절)라고 동일한 칭찬을 받았지만, 한 달란트를 받아 땅속에 묻었던 청지기는 “악하고 게으른 종”(26절)이란 책망과 함께 제몫이 될 뻔했던 달란트를 빼앗긴 채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

주인의 달란트를 맡는 청지기들의 비유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 재림 때까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충성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6:33)는 말씀이다.

새천년시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봄

예수님의 재림직후에 문자적인 천년왕국과 또 그 왕국이 유대인들의 회복된 왕국이 될 것이라고 믿는 시대구분설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가 천년왕국의 시민들인 유대인들이며,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행한 친절과 해코지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나뉘는 심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또 그들은 교회시대가 유대왕국이 회복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장기간의 공백을 메우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구약을 신약에 맞춰 해석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약을 구약에 껴맞춰 해석한다.

양과 염소무리를 심판하는 “임금”은 마태복음에 여러 번 쓰인 표현이다. 하나님나라의 천지대군이신 하나님을 뜻할 때도 있고, 교회천국의 임금이신 예수님을 지칭할 때도 있다. 이 비유에서는 예수님을 뜻한다.

양의 무리는 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보살핀 그리스도인들

이다. 반대로 그들로부터 보살핌을 받은 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도 그리스도인들이다. 보살핌 자들이나 보살핌을 받은 자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이다.

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은 먹고 입고 마실 것이 없어서 가난하고 노숙자가 되며 병들었거나 범법행위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기보다는 박해 시대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다가 환난을 당한 자들이다. 박해를 피해야 하기 때문에 직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며 주거지를 떠나야하는 상황, 그래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광야사막 길에서 목마름과 노숙과 헐벗음을 겪어야하는 상황이 복음서가 기록되던 시대적 상황이었다. 일단 체포되면 극악한 고문을 받기 때문에 처형을 면해도 감옥에서 병사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1801년부터 1860년대까지 조선인 가톨릭 신자들이 일만 명 정도 순교하였다. 증언에 의하면, 그들에게 가장 참기 어려웠던 것은 잔인한 고문이 아니라 배고픔이었다고 한다. 박해를 피해도망가야 할 때,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숲속 길로 이동하기 때문에 온몸이 성한 곳이 없었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깊은 숲속의 도경계나 군경계로 피신해야하기 때문에 먹을 양식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 그들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먹을 양식을 주고, 마실 물을 주며, 집안에 숨겨주고, 씻겨서 옷을 갈아입히며, 병간호와 옥바라지를 하는 것은 곧 주님께 하는 선행이라고 말씀하셨다. 양의 무리들은 부지중에 주님을 대접했던 것이다(히 13:2). 40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고 말씀하셨다. 또 반대로 염소의 무리들에게는 45절에서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고 선언하시면서,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항변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셨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읽고 충격을 받아 삶 자체를 송두리째 바꿨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톨스토이요 테레사였다. 톨스토

이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는 주님의 말씀에 꽃혀서, 테레사는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에 꽃혀서 행동하는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들이다.

40. 새천년시대 개방을 위한 최후승리 1(마 26:1-25)

새천년시대: 거룩한 싸움

마태복음 26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에서 “다”(pantas)는 5-7장, 10장, 13장, 18-20장, 24-25장에 실린 다섯 개의 설교를 암시한다. 여기서 다섯은 모세오경에서 모형을 갖는다. 이들 다섯 개의 설교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7장의 산상수훈은 새천년시대에서 복을 받을 자들, 곧 천국을 소유할 자들에 대한 교훈이며, 유대인들이 버린 “율법의 더중한 바 사랑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23:23)을 강조한 새 윤리법 즉 신약법이다. 10장은 새천년시대를 알리는 출정식 설교로써 지도자들을 뽑아 파송하시면서 행한 일곱 개의 지시내용이다. 13장은 새천년시대의 특징과 성격을 설명한 8개의 천국비유이다. 18-20장은 임박한 투쟁과 죽음을 앞두고 행한 8개의 설교로써 새천년시대에서 실천해야 할 새 윤리들이다.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모세의 신명기 설교에서 모형을 갖는다. 24-25장의 설교는 종말과 심판에 관한 8개의 비유이다. 이 마지막 설교는 예루살렘에서 보낸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의 전반기에 행한 것이며, 도적같이 임할 마지막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근신하며 날마다 깨어 있으라는 권면이다.

21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새천년시대 개방을 위한 거사(擧事)요, 히브리민족이 요단강을 건넌 것에서 모형을 갖는다. 이후 28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모형을 갖는다. 새천년시대를 개방하기 위한 예루살렘에서의 거룩한 싸움에서 예수님은 25장까지 카리스마 넘치는 말씀으로 전세를 장악하였다. 그러나 26장부터는 싸움의 전세가 예수님께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2절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들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와 3-4절의 “그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흥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와 14-16절의 “그 때에 열둘 중의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 때부터 예수를 넘겨 줄 기회를 찾더라”는 말씀들은 싸움의 전세가 예수님께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말씀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거룩한 싸움에서 최후승리를 확신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엄습하고 있고, 사랑하는 제자들마저 배신할 것을 아시지만 물러서지 않으셨다.

7절의 “한 여자”는 요한복음 12장 3-8절에 의하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이고, “매우 귀한 향유”는 순전한 ‘나드’이며,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는 머리뿐 아니라 발까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9절의 “비싼 값”은 가롯 유다의 평가액으로 300데나리온이다. 300일 노동자 품에 해당되는 가치이다. 여인이 만난 예수님은 재화로 평가될 수 없는 무한한 가치였다. 그 고귀한 마음이 그녀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최초의 인물이 되게 하였다.

15절의 “은 삼십”은 30세겔로써 120일 노동자 품에 해당된다. 노예의 몸값이 이 정도였다. 향유가격을 300데나리온으로 평가했던 가롯 유다는 스승을 노예로 팔아넘긴 셈이다. 마리아와 비교해볼 때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나 저평가했는가를 가늠하게 한다.

새천년시대: 외로움과의 싸움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숨 가쁘게 보내셨다. 장소가 예루살렘이요 성전이었던 데다가 연중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는 유월절이 시작되는 주간이었고, 예수님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 때문에 또 제2유월절 해방에 대한 기대 때문에 사

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되었고, 여차하면 혁명에 가담할 태세였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정치종교지도자들에게는 쓴 소리요, 민중에게는 속 시원한 소리였다. 이에 정권의 안정을 꾀하는 최고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체포하여 처형할 흥계를 꾸미고 있었다. 이날이 수요일이었다.

이런 정황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게 될 것”(2절)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명예와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들떠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갈릴리를 떠나오면서 이미 몇 차례 수난을 예고하셨고, 그 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홀로 남겨졌다. 당신의 번민과 외로움을 위로해줄 자가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조차도 외면하셨다. 인간들의 오랜 외로움을 달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만백성의 주가 되기 전에 먼저 버림받고 외면당한 자들의 아픔, 짓밟힌 자들의 외로움을 맞보셔야만 했다. 복음송의 가사처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시고, “세상이 측량 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신” 주님이시며,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주님이시지만,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해야만”하셨다. “짓밟힌 장미꽃처럼” 우리를 위해 죽음을 당해야만 하셨다.

새천년시대에는 외로움이 외로움을 달랜다. 이날 수요일에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셨다. 외로움이 깊었던 예수님은 분명 나병환자 시몬의 오랜 외로움을 보셨을 것이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시몬의 집을 찾으셨을 것이다. 나병은 양성이든 음성이든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한 버림과 아픔의 상징이다. 그런 그와 식탁에 앉으신 것은 인간의 오랜 아픔을 달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마음이 역시 오랜 외로움을 겪었을 한 여인에게 윤희졌다. 어쩌면 그녀는 그 누구보다 가장 큰 위로가 필요했던

여인이었는지 모른다. 그런 그녀가 값비싼 향유병을 갖고 예수님께 와서 상체를 비스듬히 누이고 음식을 잡수시던 예수님의 머리위에 향유를 부어 외로움을 달래드렸다. 사람들은 간절히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나 정작 위로가 필요한 예수님의 외로움을 읽지 못하였다. 예수님과 삼년간이나 동거 동락했지만, 위로의 대상으로만 살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외로움을 읽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위로가 필요했던 이 무명의 여인은 위로받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값진 것으로 죽음을 앞둔 예수님을 위로해 드렸다. 오늘도 예수님은 인간들의 오랜 외로움 속에 계시면서 위로를 기다리신다.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고 한 제자들의 속마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다. 명예와 권세에 눈이 멀어 재화보다 더 값비싼 가치를 보지 못했다.

새천년시대: 세속적 욕망과의 싸움

예수님이 고뇌하며 갈등했던 싸움은 세속적인 욕망과의 싸움이었다. 이 싸움에서 이겨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는 예수님의 노력은 끊임없는 기도로 나타났다. 예수님은 민중이 끈질기게 자기를 찾고 요구하는 것이 세속적인 욕망 때문이란 것을 알고 계셨고, 그들의 유혹을 물리치셨다.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줄 표적을 구하는 민중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깨우치려했지만, 민중의 환멸은 극에 도달하였고, 결국 예수님의 길을 떠나갔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가롯 유다의 배신은 세속적 욕망으로 가득한 제자들의 배신을 대변한 것이었다. 가롯 유다의 배신은 정치종교지도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었다. 그들은 눈엣가시인 예수님을 체포하여 처형할 생각이었다. 그들의 음모가 수요일에 이루어졌다.

주후 30년 유월절 예비일은 목요일이었다. 유월절 식사는 18단계로 이뤄지는 긴 종교 식사이다. 예비일 오후 3시에 유월절

양을 잡는데, 이는 성전에서 저녁희생이 드려지던 시간이다. ‘쉐히타’(shechitah)로 불리는 도살은 ‘쇼헬’(shochet)이라 불리는 도살자 즉 랍비나 제사장이 대행한다. 그리고 그날 즉 예비일 저녁에 18단계의 유월절 식사를 하였다. 그날 예비일 저녁은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이 끝나가는 밤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금요일이 시작되는 밤이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신 것과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이 모두 이 금요일 한날 즉 20여 시간 안에 이뤄진 일이었다.

예수님은 일찍부터 폭력을 수반하는 세속적 메시아가 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셨다. 사랑의 메시아로 왔지,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민중의 영원한 반려자이기를 바랬지, 통치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나 민중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갖고 싶은 것만 갖고자 했다. 예수님의 사랑의 교훈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현실문제에 눈이 어두운 무력한 사내 또는 쓸모없는 인간으로 비취졌을 것이다. 예수님께 거는 기대가 컸던 만큼 민중의 환멸은 순식간에 증오로 바뀌었다. 그들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설픈 혁명가였을 바라바를 놓으라고 외친 것도 다 이 증오심 때문이었다.

제자들 가운데는 가룟 유다만이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민중의 기대를 저버린 채 분노의 불길 속에 몸을 던지려한다는 것을 알고 고뇌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마음은 정을 쫓던 여인에게 환멸을 느껴 헤어지려 해도 쉽게 헤어질 수 없는 사내의 마음과도 같았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배신은 예수님께 환멸을 느낀 자들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가혹한 현실에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랍비여, 당신은 사랑보다 큰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랑보다 지금 당장 효과가 있는 것을 원합니다. 현실에 쓸모 있는 것밖에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불의와 절망에 상처 입은 민중과 함께 계셨고, 영원한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욕망의 신을 섬겼던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홀로써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41. 새천년시대 개방을 위한 최후승리 2(마 26:26-30)

새천년시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마태복음 26장 26-30절은 주의 만찬 제정사이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금요일이 시작되는 밤 즉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한 유월절 식사 중에 남기신 유언이다. 이 제정사를 소개한 사람이 네 명인데, 마태와 마가의 것은 로마교회의 것으로 짐작되며, 바울과 누가의 것은 안디옥교회의 것임이 확실시 된다. 참고로 바울과 누가는 둘 다 안디옥 교회 출신이며 50년대와 60년대를 함께 사역한 선교사들이다.

네 개의 제정사들 가운데 고린도전서 11장 23-26절에 실린 바울의 것이 50년대 중반의 것으로써 현장성이 가장 뛰어나고, 오래된 것이다. 그 다음이 누가의 것이고, 마태와 마가의 것은 현장성보다는 예배용으로 다듬어진 것들이다. 세 복음서 모두 이 사건이 있고서 40-50년이 지난 70-80년대에 기록되었다. 그렇지만 누가는 현장성이 뛰어난 안디옥교회 주의 만찬 제정사의 전통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마태와 마가의 것과는 차이점이 두드러지지만, 바울의 것과는 공통점이 매우 많다. 이들 네 개의 제정사에 나타난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현장성이 높을수록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명령이 강조된다. 바울의 것에 2회, 누가의 것에 1회 있고, 마가와 마태의 것에는 전혀 언급이 없다. 마태와 마가에 반복령이 없는 이유는 이미 주의 만찬이 모든 교회들에서 매주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 현장성이 높은 바울과 누가의 것들은 “새 언약”의 성격이 매우 강한 반면에 마태와 마가의 것들은 “새”자(字)가 빠지고 “언약의 피”만 언급되었다. 그 이유는 복음서들이 기록될 당시에 이미 예루살렘이 붕괴되고 유대교가 극도로 약

해진 상황이었는데 다가 이미 기독교가 새로운 언약공동체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장성이 높은 바울과 누가의 것은 빵을 먹고 포도주잔을 들기 전에 “식후에” 또는 “저녁 먹은 후에”란 말을 쓰고 있지만, 예배용으로 다듬어진 마태와 마가의 것들에서는 배불리 먹고 마시는 애찬에서 소량의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기념의식으로 바뀐기 때문에 “식후에” 또는 “저녁 먹은 후에”를 생략하였을 것이다.

반대로 현장성이 낮을수록 신학적 해설이 많아진다. 바울과 누가가 “너희를 위하여”라고만 한 반면에 마가의 경우 “많은 사람을 위하여”로 마태의 경우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로 진보하였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에 대한 이해가 제자들에서 유대민족으로, 유대민족에서 전 인류를 위한 것으로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첫째로 배타적 민족주의 유대-기독교에서 온건적 포용주의 헬라-기독교어로 하나님의 구원의 지평이 점차 넓어지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유대인의 구원만을 위함이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함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둘째로 땅에서 하늘어로, 육(肉)에서 영(靈)어로, 유한에서 영원어로 패러다임이 바뀐 것을 의미한다.

유대교의 죄 사함의 개념은 짐승의 피로써 부정하는 것을 정하게 하는 개념이다. 세상에는 정한 것, 부정하는 것, 거룩한 것 세 종류밖에 없고, 그것들은 모두 피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이다. 반면에 기독교의 죄 사함의 개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영육(靈肉)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는 개념이다. 그것들은 영적이고 근본적인 것들이다.

새천년시대: 옛 언약의 피

출애굽기 24장 1-11절에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이 나온다. 1-3절은 예비단계로써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하나님

토라율법을 내용으로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데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고 묻는 장면이다.

4-8절은 본 단계로써 엄숙한 언약식의 장면이다.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언약, 곧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기록하고, 언약식 당일 이른 아침에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지파 수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청년들로 하여금 번제를 드리게 하였고, 소들을 잡아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였고, 살코기들은 언약식 마지막 단계인 언약의 식사 때에 사용하였다.

언약식의 중요단계 가운데 하나는 제물의 피를 뿌리는 의식이다. 모세가 소들의 피를 받아 받은 양푼에 담고 받은 제단에 뿌린 다음, 언약서인 토라를 회중에게 읽어준다. 회중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고 응답한다. 그러자 모세가 양푼에 담은 피를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렇게 말한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9-11절은 언약의 식사를 나누는 장면이다. 9-10절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 그리고 11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대표들 간에 나누는 언약의 식사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고 했다. 고대근동에서는 계약체결 후 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단을 쌓은 후에 계약 당사자들이 함께 식사를 나눴다.

이 시내산 언약을 구약 혹은 옛 언약이라고 말한다. 이 계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회중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으며,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출 19:5-6). 우리는 이것을 ‘선민’이라고 말한다.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조건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이고, 이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언약의 내용인 십계명과 토라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 시내산 언약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첫째는 짐승의 피로써 맺어졌다는 점이고, 둘째는 땅을 조건으

로 맺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옛 언약에서 땅은 문자적이고 세속적인 지상의 가나안 땅이고, 구원개념은 이 땅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이 땅의 지속적인 유지여부는 언약의 내용인 토라의 준수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아무리 대단한 유대인일지라도 그들이 죄와 허물, 특히 우상숭배에서 자유롭지 못한 피조물인 이상, 그들의 땅은 그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땅을 소유했던 때보다 빼앗겼던 때의 기간이 3배나 더 길었다. 일찍이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이 시내산 언약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지키는가에 달려있다고 믿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불행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기”(사 24:5) 때문이라고 했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불행이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연고”(렘 22:9)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과 같지 아니한 새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다(렘 31:31-33).

새천년시대: 새 언약의 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신 근거는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과 같지 아니한 새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을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에 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더 좋은 언약”이라 했고,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히 7:22) 또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보”(히 8:6)라고 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옛 언약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소의 피를 계약 당사자인 회중에게

뿌림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새 언약의 강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심령에 뿌림으로써 이뤄진다는 점에 있다. 히브리서가 새 언약을 일컬어 “더 좋은 언약”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침례식 때 신앙고백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사건을 통해서 죄의 종살이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 삶을 주신 하나님 한 분만을 구주로 모시고 섬기며,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새로운 언약을 한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로 된다. 이것이 신약(新約)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새 선민언약이다.

주의 만찬은 새 선민언약체결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벧전 2:9-10)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행위이다. 주의 만찬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공고히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97년경 로마로 붙잡혀 가면서 일곱편의 서신을 썼다. 그가 쓴 에베소서신에서 이그나티우스는 주의 만찬을 “불사(不死)의 약(藥)이요, 죽음의 해독제”라고 불렀다. 그는 말하기를, “만일 너희들이 주의 만찬에 자주 모이면 사탄의 세력은 무너지는 것이다”고 하였다.

주의 만찬은 기독교예배를 영적예배로 만들뿐 아니라, 유대교예배와 차별시킨다. 주의 만찬 제정사들은 “떡을 가지사(봉헌), 축사하시고(주의 만찬기도), 떼어(분병례), 주시며(성찬배수/聖餐拜受), 가라사대(교훈)”로 되어 있다. 이것들과 신약성경의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초기 기독교예배는 제1부 말씀의 예배로써 성경봉독(바울서신의 봉독), 집례자의 설교, 기도, 찬송시(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 엡 5:16; 골 3:16; 고전 14:26)가 있었고, 제2부 주의 만찬예배로써 인사와 평화의 입맞춤(고전 16:20-24), 봉헌(“떡을 가지사”), 주의 만찬설교(“가라사대”), 주의 만찬기도(“축사하시고”, 고전 10:16), 주기도(마 6:9-13), 주의

만찬에의 초대(고전 16:22: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 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라나타.”) 분병례와 참여(“떼어 주 시며”), 그리고 축도(고전 16:23-2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 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순서로 이어지는 예전을 가지고 있 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요, 구약에서 모형을 갖는다.

42. 새천년시대 개방을 위한 최후승리 3(마 26:31-75)

새천년시대: 공개적인 신앙고백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심문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신 대수난은 유월절 날 하루에 다 벌어졌다. 이날은 금요일이었다. 예수님은 체포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잡수셨다. 유대인의 유월절 식사는 18단계의 식사일 뿐 아니라, 찬양과 권면과 문답이 있고, 식사를 겸한 경건한 예식이어서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만찬이다. 만찬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까운 겐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셨는데, 이 날은 춘분이 지난 첫 보름날 밤이고 달이 휘영청 밝게 뜬 날이어서 햇불이나 등불이 없어도 이동에 지장이 없는 밤이었다. 예수님은 이곳 동산에서 세 번에 걸쳐서 힘겨운 기도를 하셨고, 자기와의 싸움에 돌입하셨다. 누가에 의하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눅 22:44)고 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번민과 괴로움을 눈치 채지 못했고, 피곤한 육신을 가누지 못해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심문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은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기까지 박해자들 앞에서 담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이 기도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체포되신 즉시 밤새도록 여섯 차례, 곧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각각 한 번, 공회원들 앞에서 한번, 헤롯 안디바에게 한번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두 번, 심문받으시는 동안 단 한 차례도 동요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지키시며 심문자들이 오히려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게 하셨다. 베드로 역시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에 대제사장들의 하속들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세 번 심문을 받고 세 번 모두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한 것은

졸음에 빠져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여섯 차례의 심문은 베드로보다 두 배인 여섯 차례 하나님의 뜻을 배신할 기회가 있었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삶의 미련들을 모두 극복하신 반면, 베드로는 세 번 모두 굴복하고 말았다.

예수님께서 공적생애출범을 앞두고 금식기도 후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심문)을 받으신 것,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 기도하신 후 심문받으신 것, 베드로가 세 번 심문받고 세 번 다 배신한 것에는 당대의 삼심제도(三審制度)라는 관행이 숨겨 있다. 베드로가 세 차례에 걸쳐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는 초대교회의 박해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인 비두니아(Bithynia)에 111년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플리니(Pliny the Younger)는 체포된 기독교인들에게 세 차례 배교할 기회를 준 후에 그래도 계속해서 신앙을 고집하면 처형토록 하였다.

초기 기독교시대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침례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게는 세 번의 신앙고백과 세 번의 침례를 주었다. 이 당시 침례는 물이 많은 공개된 장소에서 행해졌고 박해시대여서 위험한 일이었다. 믿음이야 발설치 않으면 남이 알 수 없지만, 침례는 그 믿음을 공개하는 것이므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다. 침례를 받는 자들은 먼저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고 고백한 후에 첫 번째 침수를,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고 고백한 후에 두 번째 침수를,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고 고백한 후에 세 번째 침수를 받았다. 이 세 차례의 신앙선언과 침수세례는 박해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자주 직면했던 세 차례의 배교선언과 무관하지 않았다.

새천년시대: 닭이 울다

74절을 보면,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곧 닭이 울었다.” 바로 그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닭이 울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심문을 당하신지가 벌써 네다섯 시간이나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새벽이 되고서야 비로소 대제사장들이 공회원들을 소집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문제가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로마제국 당시 고관대작의 집들은 대개가 이층집이고, 집 가운데에 뜰이 있었다.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뜰에 있었고 예수님은 이층에서 심문을 받고 있었는데, 마가복음 14장 66절에 보면,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로 되어 있다. 이것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여 집안으로 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래 뜰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지켜볼 수 있도록 이층 난간 쪽에 세워놓고 심문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제사장들의 다그침에 담대하게 답변하시던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교행위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아래 뜰에 있는 베드로를 연민의 눈빛으로 잠시 내려다보셨을 때에 때마침 닭이 울었고 동녘이 밝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서울대미대 김병종 교수는 자신이 그린 <닭이 울다>(1988)란 그림에 다음과 같이 해설을 붙였다. “닭이 우는 시간은 통회와 고통 그리고 환희의 시간이다.” 배교와 수탉의 울음과 동녘에 밝아오는 여명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일본인 작가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다. 여기에 “멀리서 닭이 울었다”라는 구절이 있다.

프랑스 파리 외방선교회본부 유물전시관에는 다 닳은 성모상이 새겨진 작은 성화판이 전시되어있다고 한다. 1637년 일본 큐슈우 시마바라(島原)에서 농민들이 과중한 세금과 기독교금지에 반항하여, 16세의 소년 아마쿠사 시로오(天草四郎)를 대장삼아 난을 일으킨 일이 있었다. 이때는 에도(도쿄)시대 3대 막부인 도쿠가와 이에미쯔 시대였는데, 시마바라 난을 진압한 후,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하여 이 성화판을 밟고 지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색출된 기독교인들을 ‘구멍 매달기’란 방법의 고문을 통해서 신앙을 포기토록 유도하였다. <침묵>에서 포르투갈 신

부는 자기 때문에 농민신도들이 겪는 엄청난 고통을 감내할 수 없어서 그들을 위해서 배교의 길을 택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맑고 깨끗하며 인간의 이상과 꿈이라고 믿어온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화판에 발을 올려놓는다. 그때 멀리서 닭이 울었다.

수탉의 울음은 새천년시대의 전령의 외침이다. 그 외침에 눈을 뜨고 통회하는 자는 새 날을 맞게 된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신 이유이다. 수탉의 외침에 눈을 뜨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만이, 온몸과 마음으로 침례를 받는 자만이 새천년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베드로는 닭이 우는 시점까지 어둠에 묻혀 있었다. 사랑하는 주님을 세 번씩이나 하찮은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던 즐장부였다. 그러나 그가 닭의 울음을 듣고 통회했을 때, 환희에 찬 새 날을 맞이할 수가 있었다.

새천년시대: 세상 죄를 지고

새천년시대를 앞둔 지난 2000년 12월 28일자 동아일보에 유대인들의 예수님의 처형이 과연 공정했는가를 오늘날의 형법체제로 살펴본 이정은 기자의 글이 실린 적이 있었다.

주후 30년 4월 7일 새벽, 메시아일 것으로 추정되는 30대중반의 젊은 예수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었다. 먼저 피고인 예수님에 대한 인정신문이 진행됐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갈릴리 사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고, 나이는 30대중반이었다. 그는 가롯 유다의 고발로 겐세마네 동산에서 유월절 밤에 체포되었다. 체포영장 제시도, 진술거부권 등을 알려주는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었다.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는 신성모독, 민중선동, 성전모독, 조세(租稅)거부, 자칭 메시아, 신성 참칭(僭稱)이었다. 검사석에는 70여명의 공회원들이 앉아 있었다. 그러나 변호인석은 비어 있었다. 국선 변호인도 선임되지 않았다.

공소장의 혐의는 대부분 오해와 거짓증인들의 거짓주장에서

비롯되었다. 빌라도 총독은 고민에 빠졌다. 예수님의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호의적인 의사를 표명했을 때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로마에 보고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실제로 빌라도는 6년 후인 주후 36년에 로마황제로부터 유배를 당했다.

증인들 몇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들은 “예수가 가이사(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도록 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하였다. 공회원들은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혐의는 종교국가가 아닌 로마에서는 중죄(重罪)에 해당되지 않았다. 빌라도는 “채찍 몇 대의 형을 선고 하겠다”며 일어섰다. 대제사장들이 발끈하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였다.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사칭한 혐의를 추가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로마에서 왕을 사칭한 죄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죄였다. 재판장이 선고를 망설이자 유대 방청객들이 난폭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사형에 처하라”며 아우성쳤다. 이성을 잃은 방청객들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던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처형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과연 예수님은 유죄였는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것은 그분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메시아의 등장을 거부하는 기득권층의 권력욕심과 민중의 세속욕망 때문이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억지혐의 적용, 법적절차를 무시한 재판진행은 이들 민관합동 마녀사냥에 휘둘린 빌라도 총독의 무리한 판결 때문이었다. 뒤늦게 이를 바로잡아보려는 노력이 한 차례 시도되었다. 이스라엘 건국 후 신학자들이 이스라엘 대법원에 예수님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던 것이다. 그들은 “유대민족이 그동안 주권적인 사법기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따져볼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잘못된 재판을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대법원은 “소송기록이 없고 신약에 단편적인 기록만이 남아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각하하였다.

예수님이 죄도 없이 권력욕에 찬 기득권층과 우매한 민중에

휘둘러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은 인류를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유월절 희생양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되었다. 예수님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기꺼이 십자가의 가시밭길을 걸으셨던 것이다.

43. 새천년시대 개방을 위한 최후승리 4(마 27:1-56)

새천년시대: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유대총독부는 예루살렘 서북쪽 약 112km지점에 위치한 항구 도시 가이사랴에 있었고,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지방의 수도 디벨료에 머물렀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헤롯궁전과 안토니우스 성곽에 로마군병영과 총독관저가 있었다. 빌라도와 헤롯 안디바는 민란이 일기 쉬운 유월절에 정치적 책임자로서 혹은 행사참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예수님은 겐세마네동산에서 체포된 직후 밤새도록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공회원들 앞에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헤롯 안디바 앞에서, 다시 빌라도 총독과 군중 앞에서 심문을 받으시고 사형선고를 받으셨다. 유월절 날 아침 8시경에는 살점을 도려내는 채찍을 맨살에 맞으셨고, 끌고다 언덕까지 십자가 형틀에 쓰일 가로대를 짊어지셨으며, 기도시간인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기도시간인 낮 12시경부터 저녁희생을 드리는 오후 3시경까지, 하루 중 태양이 가장 강렬해야 할 바로 그 시각에 칙흑 같은 어둠이 지속되었으며, 예수님은 저녁희생 제물이 드러지는 바로 그 시각에 운명하심으로써 인류의 화목 제물으로써 하나님께 바쳐졌다.

1968년 예루살렘의 기밧트 하미브타르 발굴에서 1세기경의 무덤이 발견되었다. 이 무덤의 유골함 속에는 요하난 벤하콜이라는 20대 남자의 유골이 들어있었다. 이 유골 중에는 18cm 길이의 굵은 쇠못이 박혀있는 발뒤꿈치 뼈가 있었다. 쇠못은 나무에 박힌 후 빠지지 않게 뒤끝이 안쪽으로 구부러져 있었고, 십자가는 올리브나무였다. 그리고 쇠못은 죄수의 발등이 아니라, 발뒤꿈치 옆 복사뼈 밑에 박혀 있었으며, 아카시아 나뭇조각이 죄수

의 발을 받치고 있었다. 유골함 속에는 큰 나무망치에 맞아서 부러진 것으로 추정되는 정강이뼈도 있었다. 발견된 손과 손목 뼈에서는 손바닥이 아닌 손목 위 두 개의 팔뼈 사이에 큰 못을 친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로써 2천 년 전에 시행된 십자가 처형식이 어떠한가를 재구성해볼 수 있게 되었다.

죄수가 십자가형을 받으면, 상의를 벗긴 채 나무기둥의 허리 부분에 양손이 묶인다. 그러면 죄수의 벌거숭이 등이 하늘을 향하게 된다. 죄수의 등에다 동물의 뼈나 철 조각이 매달린 채찍으로 내려치면 피가 튀기고 살점이 도려내진다. 체벌이 끝나면 죄수는 십자가의 가름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형장을 향해 걷는다. 도착하면 짊어지고 온 가름대를 기둥에 맞춘다. 그리고 땅에 눕혀진 십자가나무 위에 죄수의 옆구리가 나무 바닥에 닿게 놓인다. 그리고 죄수의 두 발이 세로 기둥에 나란히 모아진 상태에서 복사뼈 바로 밑에다 쇠못을 박는다. 굵고 울퉁불퉁한 쇠못은 두 발의 복사뼈를 관통한 다음 나무에 깊이 박히게 된다. 그리고 나서 죄수의 상체를 90도 비틀고 무릎을 꿇려서 바로 눕힌다. 다음에는 끈으로 양쪽 팔목을 가름대에 묶고 양손의 손목뼈 사이에 못을 박는다. 이렇게 한 다음 십자가를 세워 고정시킨다. 상체가 뒤틀린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은 산소 부족과 호흡곤란으로 큰 통증을 느끼지만 그렇다고 쉽게 죽지는 않는다. 낮에는 뜨거운 땀별과 밤에는 추위를 견뎌야 하고, 때로는 날짐승의 공격을 받으며, 고통 중에서 서서히 죽게 내버려둔다. 그러나 죄수를 급히 죽여야 할 경우에는 큰 나무망치로 정강이뼈를 쳐서 부러뜨린다. 그러면 횡격막이 숨통을 조여 죽게 된다. 예수님은 못 박히신지 6시간 만에 운명하셨다.

새천년시대: 어둠속에서 절규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정도 되었을 무렵에 칠후 같은 어둠을 향해 절규하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셨다.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란 뜻이라고 했다. 이 절규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첫째, 예수님의 절규는 산통이 옥동자분만을 위한 것이듯이 인류구원이란 옥동자분만을 위한 것이었다.

둘째, 예수님의 절규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선 어둠의 권세를 향한 선전포고였다. 예수님의 절규는 인간에게 막혀있던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한 것이었다.

셋째, 예수님의 절규는 어둠의 세력을 찢는 외침이었다. 이 절규는 이 땅의 사람들이 종종 경험하는 절망의 하소연이기도 하고, 인류에게 빛과 생명의 축복을 예정하시고, 자기 자신에게는 어둠과 죽음의 저주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비명이기도하다. 이 절규는 인간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휘장을 찢어 두 조각을 내듯이 사단의 어둠의 권세를 찢는 승리의 함성이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육시부터 구시까지,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부터 오후 세시까지 세 시간동안 지속된 어둠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어둠이 지배한 세 시간은 흑암의 권세가 오래가지 못한 다는 상징이다.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을 절규하게 만들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절규에 어둠의 권세가 찢기고 말았다.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절명하게 만들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절명에 죽음의 권세가 절명하고 말았다. 세 시간 동안의 어둠과 40여 시간 미만의 죽음은 부활의 여명과 승리의 함성을 위한 전조에 불과하였다. 갈보리 언덕의 어둠과 죽음은 먼동이 뜨기 직전의 침묵과 같은 것이었다.

둘째, 어둠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경험하는 절망의 현실이요, 하나님의 외면이자, 침묵이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 외면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이는 아들의 고통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고 말한다. 그랬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

주를 받았음이니라”고 쓰여 있다.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돌리는 것은 저주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단호하고도 냉혹한 외면이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온 땅에 어두움이 내리자 하나님이 자기를 냉혹하고 무섭게 외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감하셨을 것이다. 시편 22편 24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말씀,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고 한 말씀이 적어도 예수님께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을 것이다.

셋째, 어둠은 하나님 자신을 향한 외면이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의 외면은 하나님 자신을 향한 외면이었다. 더불어 어둠을 찢는 예수님의 절규 또한 인류에게 빛과 생명의 축복을 예정하시고 자신에게는 어둠과 죽음의 저주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절규였다.

새천년시대: 율법의 요구를 마치시고

신약성경에 “다 이루었다”는 구절이 쓰인 곳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로마서 13장 8절, 계시록 16장 17절, 21장 6절 네 곳이다. 계시록에서는 최후심판과 최종구원이 완성되었다는 뜻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6시간동안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들 가운데 한 마디이다.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가, 또 실제로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처음부터 죽음을 전제로 기록되었다. 예수님도 여러 차례 수난을 예고하셨고, “내 때”(마 26:18, 요 2:4, 7:6, 7:8) 혹은 “때가”(막 14:41, 눅 22:14) 또는 “승천하실 기약”(눅 9:51)이란 표현들을 사용하시면서 죽음의 때를 언급하셨다.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에는 무언가 중요한 뜻이 있다는 암시였다. 예수님이 죄도 없이 권력욕에 찬 기득권층과 우매한 민중에 휘둘러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은 이 중요한 숨은 뜻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이 숨은 뜻을 만천하에 선포하시려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죽음의 사명은 공적생애 출발부터 예수님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었고, 이 짐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깊어지신 실질적인 십자가였다. 이 십자가를 어찌 잠시 깊어진 나무 십자가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것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교였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이루셔야 했다.

첫째가 율법의 완성이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였고, 야고보서 2장 10절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롬1:18, 3:20). 그러므로 누군가 완전하신 분이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마침이 되실 필요가 있었다(롬 10:4). 그래야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의(義)에 이를 수 있고(롬 10:4, 9-13),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롬 8:4)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유대교의 제물보다 더 좋은 제물이 되셔야 했다. 인류의 속죄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더 좋은 제물로 삼으셔야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단 한 번의 완벽한 제사로서 흠이 많던 유대교의 제사들을 단번에 완성시켜 버리셨다.

셋째는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는 모든 율법의 핵심이요 으뜸인 사랑의 사도가 되셔야 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마 22:40)고 하셨다.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선포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한다.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시인 구상이 노래하였듯이, 정치종교지도자들의 수모를 받으며, 제자들의 배반과 도피 속에서, 백성들의 비웃음과 돌팔매를 맞으며, 십자가의 길을 홀로서 가셨다. 아무런 영웅적 기색도 없이, 아 니 볼꿀 없고 병신스런 모습을 하고서 그분은 부활의 길을 홀 로서 가셨다.

44. 새천년시대 개방을 위한 최후승리 5(마 27:57-28:15)

겻세마네 동산의 두 얼굴

고난주간사건들이 발생된 겻세마네, 골고다, 무덤, 이 세 가지 장소는 출애굽이후 히브리민족이 생활한 40년 사막과 요나가 보낸 삼일간의 고기뱃속의 원형이다. 또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을 보내시고 이어서 보낸 고난주간에 속하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입은 후에 이 땅에서 시작하는 교회생활 또는 순례자의 삶에 연결된다. 히브리민족이 사막생활 40년 동안 가본적도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복지를 향해 나아갔듯이, 예수님이 부활주일의 영광의 아침을 바라보고 고난주간을 묵묵히 감당하셨듯이, 우리 성도들도 천국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로 부활할 것을 바라보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겻세마네, 골고다, 무덤에 이르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바보처럼 걸어야 한다.

예수님은 삼년 육 개월의 짧은 시련과 배척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우리 시간으로 주후 30년 4월 6일 목요일 밤 (유대인에게는 금요일의 시작) 겻세마네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체포되었고, 밤이 맞도록 심문과 수모를 당하셨으며, 7일 금요일 이른 아침에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셨고, 아침 8시경에 살점이 파이는 날카로운 채찍으로 맞으셨으며, 가시관을 쓰셨고, 지치고 상한 몸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험한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다. 아침 9시경에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셨고, 6시간만인 오후 3시경에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다.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의 굴 무덤에 안치되어 약 40여 시간이 지난 4월 9

일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이른 아침에 놀랍게도 다시 사셨다. 로마군이 인봉한 굴 무덤의 돌문을 굴러내고 무덤 밖으로 살아서 나오셨다. 이후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으며, 5월 18일 겐세마네 동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홀연히 하늘로 올리어가셨다.

추락과 승천, 이것이 겐세마네 동산의 두 얼굴이다. 예수님은 체포되시던 밤에 겐세마네 동산에 오르셨다. 쟁반처럼 크고 둥근 보름달빛이 스산하게 비쬐던 밤이었다. 달빛이 쏟아져 내리듯이 예수님의 마음이 녹아내리던 밤이었다. 극심한 번민과 일그러진 낮빛으로 애절한 호소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던 밤이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 그 밤이 그대로 지새기를 애절하게 바라던 밤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밤에 겐세마네동산에서 체포당하셨다. 제자들의 몰이해와 배신까지 맛봐야했던 쓸쓸한 밤이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가야할 날이 더 많았던 30대 중반의 한 장년의 꿈과 기대가 무참히 꺾이고 나락으로 추락하던 밤이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났던 겐세마네 동산에 한낮의 태양이 따사로운 햇살을 쏟아내고 있었다. 썩고 냄새나던 죽은 자들의 무덤에서 깨어나 육중한 돌문을 열어젖히고 나와 맞이했던 부활의 아침처럼 찬란한 햇살이 쏟아지던 날이었다. 이날 예수님은 번민과 고통에 짓눌려 신음하다 체포됐던 바로 그 겐세마네 동산에서 위엄과 영광이 가득한 모습으로 승천하셨다. 무덤이 부활의 장소가 되었듯이, 나락으로 추락했던 장소가 위엄과 영광이 가득한 승천의 장소가 되었다.

골고다 십자가의 두 얼굴

1968년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예수님과 동시대의 20대 남자 요한안 벤하콜의 유골에 박힌 쇠못과 꺾인 뼈를 해부학자들이 재구성한 바에 따르면, 바닥에 놓인 십자가 위에 죄수를 가로로

눅힌 다음 가지런히 모아진 두 밭의 복사뼈 바로 밑에다 18센티미터 정도의 큰 못을 박았다. 굵고 울퉁불퉁한 대못은 두 밭의 복사뼈를 관통한 다음 나무에 깊이 박히게 되는데, 한번 박히면 뺄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 죄수의 상체를 비틀어서 바로 눅힌 다음 끈으로 양 팔목을 가름대에 묶고 양손의 손목뼈 사이에 큰 못을 박았다. 이렇게 한 다음 십자가를 세워 고정시키면, 죄수의 상체가 90도 뒤틀린 상태로 아래로 처지게 되어 호흡에 큰 고통을 받게 된다. 이 때 망치로 죄수의 무릎 뼈를 쳐서 부러뜨리게 되면, 횡격막이 숨통을 조여 죽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십자가는 수치와 죽음의 상징이자 극형 중의 극형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 불행의 상징이 아니라, 행복의 상징이 되었다. 무능의 상징이 아니라, 능력의 상징이 되었다. 무지의 상징이 아니라, 지혜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능력, 죄 사함의 능력, 구원의 능력, 악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지혜,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찾아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밝히는 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선지자 이사야는 53장 1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

다. 이런 사실을 누가 곧이듣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고 묻는다. 이 질문은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물음이다. 사람들은 묻는다. 어떻게 무덤이 부활이 되고, 어떻게 겿세마네의 고뇌의 장소가 승천의 장소가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골고다의 수치와 죽음의 십자가가 영광과 구원의 십자가가 될 수 있겠느냐? 연한 순 같고 메마른 땅에서 나온 식물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에게서 나타났겠느냐? 떨시를 받고, 버림을 당하며, 간고를 겪고, 질고를 겪어 마땅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느냐? 그렇게 당한 떨시와 질고와 슬픔과 고난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사람들의 물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인하여 예수님이 받으신 징계가 변하여 평화가 되었고, 채찍 맞음이 변하여 치료가 되었으며, 십자가의 죽음이 변하여 구원이 되었다. 이것이 골고다 십자가의 두 얼굴이다.

동굴 무덤의 두 얼굴

동굴 무덤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00년, 태어나신 후 100년간 유행했던 유대인의 매장방법이었다. 동굴 무덤 안으로 들어가면 본실이 있고, 입구를 제외한 본실 삼면의 벽은 시신을 안치할 수 있도록 깎아 만든 평상들이 있었는데 머리를 두는 쪽은 베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두툼하게 높여 만들곤 하였다. 그곳에 시신을 눕힌 지 1년 후에 유골을 수습하여 유골함에 보관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발견된 예수님 시대의 유골함들 가운데는 ‘야고보, 요셉의 아들, 예수의 형제’란 글이 새겨진 약 50cm 크기의 유골함과 ‘가야바의 아들 요셉’이라 새겨진 유골함도 있다.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유골함도 함께 발견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죽은 지 삼일 만에 부활하여 무덤을 박차고 나오셨다.

동굴 무덤은 육체의 죽음과 음부의 상징이며, 정신적 죽음인 절망과 좌절, 폐쇄적 자폐적 상태의 상징이다. 또 동굴 무덤은 흑암과 무지의 상징이며, 죄악 세상의 상징이다. 성경은 이 무덤을 강 혹은 바다로 묘사하곤 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에 이른 것은 영적으로 무덤에서 살아나 하나님의 선민공동체로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의미하며,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복지에 이른 것은 성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을 예표 한다. 또 우리 성도들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에 이른 것처럼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나 하나님의 새로운 선민공동체로서 거듭난 삶을 의미하며,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후에 영혼이 천국에 이르는 것은 붉은 유리바다를 건넌 후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 앞에 선 흰옷 입은 구원받은 큰 무리에 합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덤은 성도들에게 새롭고 영원한 세계로 이주하는 구원의 통로이다. 이것이 동굴 무덤의 두 얼굴이다.

이것을 제대로 입증해준 것이 나사로의 부활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사건이다. 이 두 사건은 육체 없는 영혼상태로 천국생활을 하던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육체로 부활하여 신천 신지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예시하는 사건들이었다. 나사로의 부활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나 나사로의 죽음의 때를 영광의 때로, 죽음과 무덤을 영광을 위한 것으로 설명하는데 있다. 굉장한 역설이지만, 이것이 기독교신앙의 핵심이다. 기독교인에게는 무덤이 오히려 영광이 되고, 죽음이 오히려 영광을 받을 때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죽을병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함으로 보았다. 성경은 죽어야 살고, 내려나야 얻고, 썩어야 열매 맺고, 부인해야 인정받는다라는 역설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죽음은 새롭고 영원한 삶의 출발점이고, 무덤은 부

활이 일어나는 장소가 된다. 또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장차 올 더 좋은 것이요, 진정한 의미의 회춘이며, 영생의 시작이다. 예수님은 약속하셨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 11:40).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요 11:25-26). 이 약속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

45. 새천년시대 개방을 위한 최후승리 6(마 28:1-15)

예수님부활의 신앙

예수님부활은 기독교가 시작된 출발점이며, 기독교가 가르치는 알맹이이다. 기독교는 부활신앙에 기초를 두고 있고, 부활을 믿는 종교이다. 기독교는 부활을 인간의 근본문제인 죽음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예수님부활은 기독교 변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 예수님부활의 진실성 여부에 따라서 기독교의 진실성 여부가 판가름 난다.

예수님부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은 얼마든지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목격자들의 증언이 기록으로 남아 있고, 역사적 정황증거들도 교회 안에 남아 있다. 그러므로 자료 부족을 느끼지는 않다. 다만 이들 자료들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 즉 신빙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첫째, 예수님부활이 과학의 문제인지 또는 신앙의 문제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예수님부활을 과학적 방법으로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다. 창조와 진화를 반복된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 사실로 입증할 수 없듯이, 예수님부활도 과학적 방법으로 입증할 수 없다. 현대기술과학은 죽은 자를 살려 낼 수 없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를 실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래서 불가지론자들은 과학적 방법으로 입증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을 미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과학적 방법의 제한성을 인정한다. 과학적 방법이란 결국 자연에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것 즉 창조나 부활과 같은 것을 실험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히 11:3)고 고백하였고, “하나님께서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롬 10:9)고 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부활의 문제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다.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특별히 뽑힌 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아무나 창조나 부활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예수님부활은 유물이나 문헌의 연구를 통해서 입증하는 고증학 방식으로 입증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신빙성 있는 목격자들의 증언과 교회 안에 보존되어 있는 역사적 정황증거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부활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설명되어진다 해도 믿음이 없이는 그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부활의 진실성 여부는 믿음의 문제이지 결코 입증의 문제는 아니다. 믿음이 있고 없음에 따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듯이, 믿음이 있고 없음에 따라 예수님부활을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부활의 일차적 증거는 믿음의 문제이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부활이 일상생활에서 다반사로 발생된다면, 그것이 과학적 사실은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부활의 독특성은 사라지고 만다. 또한 부활의 기초 위에 세워진 기독교의 독특성도 상실되고 만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존재하시면서 범죄자들을 즉시 처벌하신다면, 이 세상에는 종교도 법도 필요 없게 될 것이고, 과학도 학문도 필요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들(Ha-Tikvah: 희망)의 실상”이요, 헬라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Ideal World: 이데아의 세계)의 증거”(히 11:1)라고 가르쳤다.

예수님부활의 직접증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의 수가 많았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40일간 세상에 계시면서 열 한번이나 사람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목격한 사람의 수가 오백 명도 넘

는다.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이 빈 무덤으로 확인되었다.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은 동굴무덤이었다. 입구를 무거운 돌문으로 막고 진흙을 이겨 틈새를 봉한 후에 진흙에 관인을 찍어 당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열 수 없도록 하였다. 또 시신을 흠쳐갈 수 없도록 당대 최고였던 로마 군인들이 4교대로 무덤을 지키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인은 떨어져 나갔고, 돌문은 열려 있었으며, 무덤 속에는 시신을 감았던 세마포만 남아 있고, 시신은 무덤 속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예수님은 바위를 뚫어 만든 새로운 동굴무덤에 묻히셨다. 유대인의 동굴무덤은 대개가 성인이 허리를 약간 구부려야 들어갈 수 있는 130-150cm 높이의 입구를 갖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면 본실이 있고, 입구를 제외한 본실 삼면의 벽은 시신을 안치할 수 있도록 깎아 만든 평상들이 있었는데 머리를 두는 쪽은 베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두툼하게 높여 만들곤 했다.

무덤의 입구는 큰 돌을 원판으로 깎아서 막았다. 입구의 문턱은 돌문을 끼어 넣고 좌우로 굴릴 수 있도록 홈을 파놓았다. 이때의 홈통은 무덤 입구 쪽을 낮은 쪽으로 해서 약간 경사지게 파고, 그 대신 돌문이 정확하게 입구를 막고 설 수 있도록 낮은 쪽의 턱을 높게 만들었다. 입구를 봉할 때는 돌문을 피고 있던 받침목을 빼내고 밀기만 하면 홈통의 낮은 쪽으로 돌문이 굴러 쉽게 입구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돌문을 열고자 할 때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었다. 이 돌문의 무게는,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 교수들이 측량한 바에 따르면, 무려 1.5-2톤이나 되었다. 이 돌문을 홈통에서 경사가 높은 쪽으로 밀어 올리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영국 캠브리지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베자 성경 마가복음 16장 4절에 따르면,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라는 말씀에 이어서 가로 속에는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그곳에 누인 후 장정 20명이 굴릴 수 없는 돌로 무덤을 막았다.”라고 부연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돌문이 열려진 채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

예수님의 무덤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라 로마 군인 16명이 4명씩 일 개조가 되어 4교대로 지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대의 로마 군인들은 천하를 통일한 제국의 군인답게 가장 잘 훈련된 사람들이었다. 주후 79년 8월 24일 발생한 베수비오의 화산폭발로 이탈리아 남서부의 고대도시 폼페이시가 화산재에 깊이 묻혔다. 발굴과정에서 발견된 사실은 화산재에 묻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문을 쪽을 향해서 죽어있었다는 것이다. 모두가 피신의 극한 혼란 속에서 화를 당했던 것이다. 그런데 발굴자들의 눈길을 크게 끈 것은 성문을 지키던 로마 군인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문을 향해서 죽어있었지만, 이 군인만큼은 자신의 위치에서 정자세로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생명을 위협하는 화급한 상황에서도 군인의 임무를 다하면서 죽었던 것이다. 이 정도로 군인정신이 투철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다고 볼 때에 감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님부활의 간접증거

간접증거란 정황증거(circumstantial evidences)를 말한다. 예수님부활의 정황증거들은 기독교가 지난 이 천년 동안 지켜온 주일예배, 성만찬, 침례, 그리고 변화된 초기신자들의 삶에서 찾을 수 있다.

주일예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매우 확실한 정황 증거이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매우 엄격하게 지켰다. 성막제조공정에서 따온 39가지 범주의 안식일 법은 악명이 높다. 39가지 범주에 속하는 안식일 법의 종류가 수백 가지가 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던 초대교회가 이 안식일을 무시해 버리고 일요일을 지킨 것은 범상한 일이 아니다. 그들이 일가친척과 국가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고 버림당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한데는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 날을 '주의 날' 또는 줄여서 '주일'이라고 부르

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에 모였다.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주일예배는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기독교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 부활과 같은 사건이 아니고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될 수 없으며, 안식일을 무시하고 주일예배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지난 이 천년 동안 교회가 지켜왔던 성례인 침례와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매우 확실한 정황증거들이다. 침례와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에 동참하는 예식이다. 이들 예식이 초대교회 창립 때부터 시작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며, 기독교만의 독특한 예식으로 발전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순교를 불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매우 확실한 정황증거이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절망과 실의에 빠졌던 제자들에게 갑작스런 변화가 찾아온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한 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사두개인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주후 67년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기독교인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며, 바울 자신도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는 유대인들로부터 서른아홉대의 곤장을 다섯 번 이상 맞았고, 수없이 투옥 당하였으며, 심지어 돌로 몰매를 맞고 죽었다가 살아 난 적도 있다. 그러나 끝내는 네로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부활과 같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전설에 의하면, 대부분의 제자들이 제 각기 여러 나라들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굳이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이상의 몇 가지 정황 증거들만 가지고서도 예수님부활의 역사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문제는 입증이 아니라 믿음이다. 예수님

부활의 역사성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다. 예수님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승리할 것이지만, 부활을 미신으로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며, 마지막 때에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46. 새천년시대의 전망(마 28:16-20)

닫힌 세계와 열린 세계

신명기 34장을 보면, 요단강 동편 모압평지에 이른 모세는 120세의 노구를 이끌고 느보산의 비스가 정상에 오른다. 그곳에서 모세는 두 세계를 바라보았다. 하나는 자신과 히브리민족이 걸어온 과거세계였다. 40년 세월을 풀한 포기 보기 어려운 광야에서 텐트치고 살아온 삭막하고 험난한 세계였다. 노예와 죽음과 고난과 시련의 세계였다. 그러나 모세는 그곳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았다. 이스라엘 민족의 꿈과 미래가 담긴 세계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세계였다. 비록 자신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 막힌 세계였지만, 충실한 목자로써 자신이 이끌고 온 히브리민족에게는 열린 세계였다. 그곳은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희망의 땅이었다.

모세는 느보산의 비스가 정상에서 또 하나의 두 세계를 바라보았다. 유한한 지상세계와 영원한 영적세계를 바라보았다. 모세가 살아온 120년의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었다. 그는 이 기간 매우 고달프고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 모세와 히브리민족의 삶은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광야에서의 삶이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고, 자기 집이나 토지를 갖지 못했으며, 텐트를 말아 매고 끝없이 이동했던 유랑생활이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영의 눈을 뜨고 새롭고 영원하며 평화롭고 안락한 참 안식의 세계를 바라보았다. 하늘 가나안복지를 바라보았다. 비록 지상의 가나안땅은 막혔을지라도 그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 있었다. 모세는 이 세계를 맞이하기 위해서 조용히 그리고 혼자서 육신의 눈을 감았다. 아무도 그의 시체를 보지 못했다. 유대

인들은 그의 시신이 승천했다고 믿고 있다.

모세는 느보산의 비스가 정상에서 또 하나의 두 세계를 바라보았다. 늙고 꼬부라져 이생을 마감해야할 자신의 세계와 그 동안 키워온 젊고 패기 찬 후계자 여호수아의 세계를 보았다. 비록 자신에게는 미래세계가 막혔을지라도, 여호수아에게는 활짝 열려 있었다. 모세는 눈을 들어 또 한 세대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열린 세계를 바라보았다. 비록 자신은 평생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됐지만, 자신의 바통을 이어 받아 달려왔던 그 길을 이어 달려 줄 충실한 후계자에게 열린 미래세계를 바라보았다. 꿈과 미래가 담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세계를 바라보았다. 따라서 모세는 후회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었다. 캄캄한 세계를 향해서가 아니라, 밝고 환한 활짝 열린 영원한 세계를 꿈꾸면서 눈을 감았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세계도 이와 같았다. 부활하시고 갈릴리의 한 산에서 제자들 앞에 서셨을 때 수난의 짧은 과거세계와 긴 영광의 미래세계 및 지상세계와 천상세계를 동시에 보셨다. 또 수일 내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활짝 열릴 새천년시대를 보셨다.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교회천국시대를 바라보셨다. 그리고 3년 6개월간 수련을 쌓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대위임령(Great Commission)을 발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19-20절).

부활하신 예수님의 대위임령

공적생애의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격상 차이가 크다. 공적생애 중의 지시들은, 마치 모세가 광야사막생활에서 히브리 민족에게 내린 지시들처럼, 생전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린

지시들이지만, 부활하신 후 갈릴리의 한 산에서 내린 지시는, 마치 하늘의 하나님께서 가나안시대 개방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내린 지시처럼, 부활하시고 하늘에 속하신 독생자 하나님으로서 새천년시대의 개방을 눈앞에 둔 제자들에게 지시하신 대위임이다. 이제 그분의 제자들은 더 이상 예전의 그 나약했던 제자들이 아니다. 그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대위임령은, 마치 히브리민족이 하나님의 강한 군사들이 되어 가나안땅을 정복하여 다윗왕국을 건설한 것처럼, 땅끝까지 전도하여 그리스도나라의 십자가군기를 만방에 꽂을 것을 명령하신 지상 최대의 위임이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18-20절의 말씀,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는 여호수아서 1장 1-9절의 말씀, “여호와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프라테 강까지 헛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 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에서 모형을 갖는다.

사도행전 1장 4-8절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만나볼 수 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천국시대의 발전

예수님께서 13장의 천국비유에서 선포한 겨자씨와 누룩처럼 교회천국시대의 성장능력은 정말 대단하였다. 겨자씨나 누룩처럼 시작은 매우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었다. 새천년시대의 신념체계인 기독교복음이 그리스-로마세계에 전파된 초기 300년은 불법종교였고, 로마의 신(神)들에게 충실하고자 했던 제국의 황제들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전국적인 박해를 받았으며,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겨자씨나무처럼 외적으로 쭉쭉 성장하였고, 내적으로는 누룩 같은 힘으로 민중 사이를 파고 들었다. 그 결과 선교 300여년 만에 합법종교로 인정받기에 이르렀고, 주후 392년에는 로마제국의 국교로 자리매김까지 하였다.

주님께서 내다본 그대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주후 30년에 출범

된 지 360여년 만에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대로마제국을 기독교왕국의 새천년시대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2,000년 전 기독교가 전래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로마인의 정신세계는 그리스-로마 신화가 지배하였다. 중요한 사물의 이름들이 거의 다 신(神)의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믿었던 신들이 3만이 넘었고, 대표적인 신들에게 봉헌되었던 신전(神殿)들과 신상(神像)들의 유적들이 지금도 도처에 널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그리스-로마 사람들의 98퍼센트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며, 그리스는 동방교회, 로마는 서방교회를 대표하는 기독교의 양대 산맥으로 발전되었다. 이는 기독교복음의 신념체계가 갖는 변화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준 역사적 사건들이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공적생애를 광야사막시대로, 교회천국시대를 가나안정복시대로 설명하였다. 그렇다고 마태복음이 교회천국시대를 완전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본 것은 아니다. 그것은 마치 교회천국시대가 모형으로 취한 히브리인들의 가나안시대가 완전하고 영원한 세상이 아니었던 것과 같다. 교회천국시대는 시작된 현재종말시대으로써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미래종말의 축복을 미리 맛보고 누리며 선취하는 시대일 뿐이다. 그렇기에 교회천국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가나안시대를 살던 히브리인들이 끊임없는 배교의 위협 속에 살았던 것처럼 배교의 위협 속에 있으며, 히브리민족이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진 것처럼 무너지지 않도록 근신하여 깨어있어야 한다.

기독교복음이 희망하는 나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재림이후시대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세계를 세우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공적생애를 통해서 개방된 교회천국시대는 바로 이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세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받을 자들을 불러 모으는 시대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구름기둥을 신실하게 좇았던 것처럼, 신실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며 그 나라를 상

속받기까지 교회천국시대를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히 10:39). 그리스도인들은 참 안식의 나라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까지(계 15:2-4) 인내로써 믿음의 경주를 마쳐야 할 자들이다.